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 후원자와 마주하다
- 주문진 주민 만나기
- 한끼드림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임대단지 안전 약자 현황 조사
-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Contents

보고서 목차

01	후원자와 마주하다	1
02	주문진 주민 만나기	3
03	한끼드림 이용자 만족도 조사	19
04	임대단지 안전 약자 현황조사	33
05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49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4년 연구·조사 | 1차

후원자와 마주하다.

매년 2회 이상 연구·조사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묻고, 듣고, 향후 사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실천 과정에 개선 방안은 없는지, 새로운 욕구나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여러 조사 활동을 거치면서 결국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은 매일 변합니다. 지역사회를 더 잘 알려면 더 자주 묻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복지관은 조사업무를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더욱 자주 만나고, 묻고, 들으며 수시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성찰하고 개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조사 과업은 ‘후원자와 마주하다.’입니다. 지역사회 욕구 및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원 개발, 관계·예우 관련 복지관의 책무를 강화하여 서로를 보듬는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01 조사개요

조사목적	과업기간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개발 및 관리·운영 개선 후원자 정보 최신화를 통한 맞춤형 관계 예우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 2024. 1. 29.(월) ~ 2. 2.(금) 실행 2024. 2. 22.(목) ~ 3. 22.(금) 분석 2024. 3. 25.(월) ~ 4. 1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도구 구글 설문지, 희망이음 조사방법 온라인, 전화조사 분석방법 구글 Spreadsheet, Form

02 조사대상 2023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

구분	후원자(명)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고
개인		52	20	익명 등 3명 조사 대상 제외
종결후원자	63	8	3	정기후원자 중 2023년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 (후원 분석 조사를 통해 후원 불편사항 접수 및 재후원 요청-2건)
단체	69	3	3	단체 후원 대체로 공기업, 공단, 유관기관이나, 조사의 성격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
단체(개인기여)	136	-	-	단체(개인기여) 구분은 단체 소속된 개인의 기여금을 모아 단체 이름으로 후원한 경우 의미(단체 단위로 보면 2곳)
기타	4	-	-	후원으로 분류되지만, 후원 개발의 대상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사회복지관협회, 강릉시)
계	272	63	26 (41.2%)	조사대상 집단 중 유효한 연락 수단(휴대전화번호)이 있는 후원자는 45명으로 확인(그 외 후원자는 우편 발송 등 조치)

03 조사의 필요성

후원자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사회복지실천을 고민하기 위하여 후원자 소통 확대, 관계 강화 필요 이를 통한, 전문 모금 운영으로 맞춤형 지역 후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정기적인 개인정보 최신화 필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정보 유출, 소식 전달 누락 등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사회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되는 후원 활동 사회문제 참여 및 해결 기회 관점에서 후원 사업을 재편하고, 변화하는 후원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04 2023년 후원 요약 자세한 사항은 소식지, 연차보고서, 홈페이지 참고

개인 후원자 수	후원 단체 수	2023년 후원금·품액
196명	72개 단체	300,207,827원 2022년 이월금 제외
정기후원의 평균 후원금액	후원품 중 가장 많은 물품 종류	최대 후원 횟수 집계 가능한 2012년 이후
약 20,000원 <small>*21,270원(원단위 반올림)</small>	식품류 쌀, 도시락, 김치, 고기	~191회
이웃들과 나누는 후원물품	이웃들과 나누는 후원금	후원으로 진행한 복지 프로그램
6,756개 103,065,950원	214,727,902원	마카모에 9988하자, 한국화 먹그림, 다향다색, 성인문해학교,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주민동아리 등
후원으로 만드는 아이들의 꿈	후원으로 만드는 더 따뜻한 겨울	후원으로 만드는 든든한 일상
13,698,310원 정기결연후원사업 꿈드림 8,400,000원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5,298,310원	30,000,000원 난방지원 21,000,000원 김장김치지원 9,000,000원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후원)	11,641,200원 한끼드림(보조금 지원 인원 외 추가 10명의 복지사각지대 거동 불편 어르신 연간 식사 지원)

05 조사 성과 요약

1. 후원자 정보 최신화로 안전하게 개인정보 관리하고, 중단 후원자 재후원 연계

- 조사에 참여한 후원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 최신화(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하고, 복지관 실무자들이 후원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기능 강화(구글 시트 등 활용)
- CMS 만기 등 2023년 중 후원 중단 사례를 확인하여 재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희망이음,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최신화 한 정보에 기초하여 후원자 관리(후원중단 포함) 및 관계 강화 추진 가능.

2. 후원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완료

- 2022년 지역사회 실태조사에서 예비적으로 시행한 후원자 욕구에 관한 조사를 보완하여 기초 설문조사 시행함.
- 후원 경로, 이유, 선호 소통 수단, 원하는 사항, 투명성 인식 등 후원자의 다양한 욕구 및 시선을 질문하고 분석함.
- 표본이 크지 않아 조사 분석의 한계가 명백하나, 후원 개발 및 관리의 방향성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 의미가 있음.



연간 모금 기획 및 후원 개발 확대, 관계·예우 강화 전반에 관한 대안 도출

2024년 연구·조사 | 2차

주문진 주민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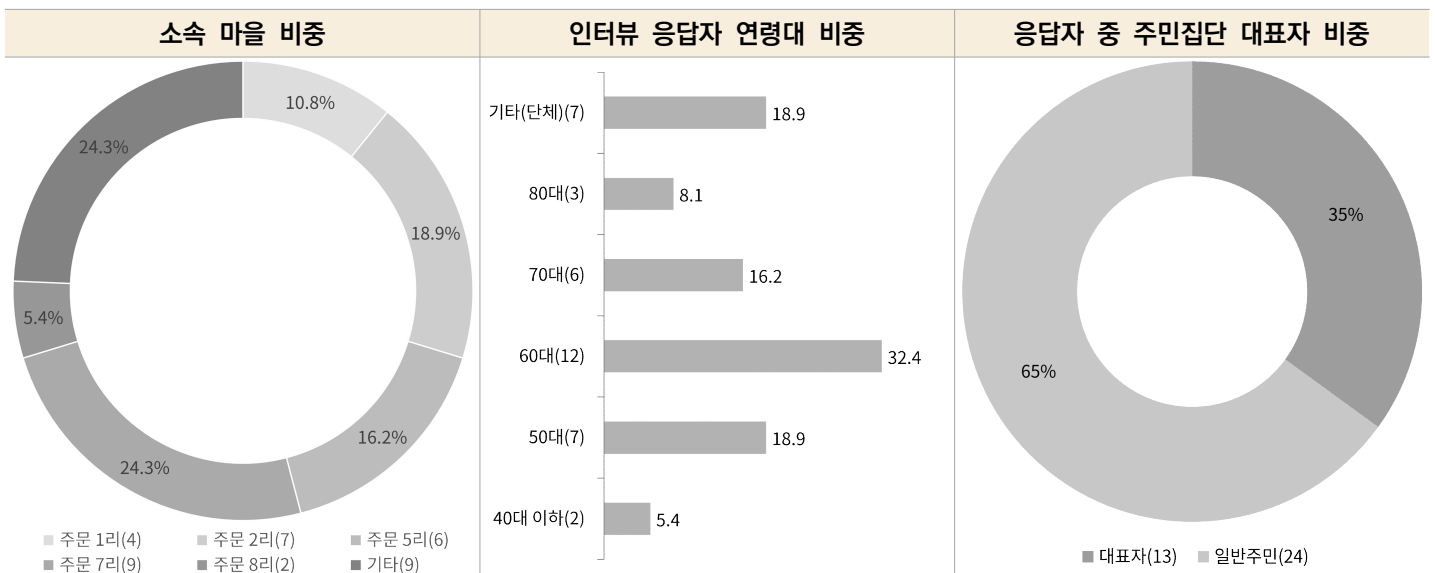
2023년부터 제2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선정을 통해, 주문진항 인근 주문 1, 2, 5, 7, 8리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양적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욕구와 지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의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오간 많은 이야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 사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더 궁금한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 주민 만나기(간단 인터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많은 주민을 개별로 만나고자 했으므로, 녹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글로 담았습니다. 녹음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에 응한 당사자에게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마을의 당사자(이장, 마을활동가 등)와 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각 현안을 살펴보고, 원인과 대안을 분석하고,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의 방향성을 고민했습니다. 모든 원인과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차원적 문제를 넘나들며, 주민이 주민 의식을 갖고, 공동체 활동에 임하도록 주문 마루 센터가 중심에서 조정, 중재의 역할이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마을 주민에게 현상만 묻지 않고, 주민과 함께 대안과 방향성까지 도출했다는 점에서 당사자를 임파워먼트하고, 새로운 욕구 및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함께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1 조사개요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욕구 조사에서 도출한 주요 주제(환경, 돌봄, 공동체 활동 등)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주민조직 세부 활동 주제를 성찰하고자 함.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첫인사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과업기간	준비	1. 29.(월)~3. 8.(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설계 및 주민만남 준비
	진행	3. 11.(월)~5. 1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만나기 조사 실행
	분석	5. 16.(목)~7. 3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차 개별 분석, TF회의를 통한 주제별 분류, 주민 공유를 통한 최종 분석(마을활동가 워크숍 2회기 운영), 보고서 작성 등 다소 개인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마을활동가 논의하여 조정 주제에 맞게 적절히 분류 및 해석하였는지 검토 등
조사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 인터뷰 질문·기록지(동의서), 주요정보제공자 명단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조사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별 분류 및 분석(※분석 효율성을 위해 구글 시트, GPT4o를 부분적으로 활용) 		
수행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조사TF(박영민, 조예송, 이수정, 김한나, 이주원, 정신영, 김덕, 배시영, 전근홍) 주문진 마을활동가 13명(워크숍을 통한 조사 분석 지원)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돌봄, 환경 마을활동가 향후 활동 방향성 도출 앞으로 해야 할 복지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바탕으로 마을 맞춤형 복지기획 		
조사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 과정을 녹음하지 않았으므로, 담당 조사자가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주문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실천적 조사 성격이 강하므로, 이번 조사 결과를 다른 마을에서 유사 사업을 진행할 때, 일반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02 조사대상

연번	소속(마을)	나이	활동참여의향	특정 참여 희망 분야	미참여 사유	비고
1	주문 7리	80대	조건부 참여	-	-	-
2	주문 7리	80대	참여	정보제공, 도움이 필요한 가구 소개	-	-
3	주문 7리	-	조건부 참여	-	건강 문제	단체
4	주문 5리	70대	참여	-	-	-
5	주문 7리	80대	참여	-	-	-
6	주문 1리	70대	참여	-	-	-
7	주문 1리	-	참여	-	-	단체
8	주문 5리	70대	-	-	-	-
9	주문 2리	80대	참여	-	-	단체
10	주문 7리	80대	참여	-	-	단체
11	초등학생	10대	참여	-	-	-
12	주문 1리	-	미참여	-	-	단체
13	인근 상인	50대	참여	-	-	-
14	주문 5리	60대	참여	먹거리 관련 활동	-	-
15	주문 8리	60대	참여	프로그램 진행 시 주민 송영 등	-	-
16	인근 상인	70대	조건부 참여	치매 예방, 우울 완화 프로그램	-	-
17	주문 7리	50대	참여	적극적인 지원	-	-
18	주문 5리	60대	참여	-	-	-
19	주문 2리	60대	-	-	-	-
20	주문 2리	-	미참여	-	건강, 센터 물리적 위치	단체
21	주문 2리	-	-	-	-	단체
22	주문 7리	60대	참여	-	-	-
23	인근 상인	60대	조건부 참여	사업 홍보 협조	-	-
24	주문 7리	70대	참여	프로그램 참여	-	-
25	인근 상인	50대	미참여	-	직업 활동	-
26	인근 상인	50대	-	-	-	-
27	주문 8리	60대	조건부 참여	프로그램, 축제 참여	-	-
28	주문 2리	50대	조건부 참여	행사 참여	-	-
29	주문 5리	70대	참여	프로그램 홍보, 마을 잔치 기획 등	-	-
30	주문 1리	50대	참여	프로그램 홍보, 잔치 기획 등 언제나 참여	-	-
31	주문 5리	60대	참여	프로그램 홍보, 잔치 기획 등 언제나 참여	-	-
32	주문 2리	60대	미참여	-	마을 자체 활동 참여	-
33	인근 상인	60대	참여	-	-	-
34	주문 2리	60대	참여	-	-	-
35	주문 7리	60대	참여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	-	-
36	인근 상인	40대	참여	-	-	-
37	기타	50대	참여	관련 사업에 이용자와 함께 참여	-	-



03 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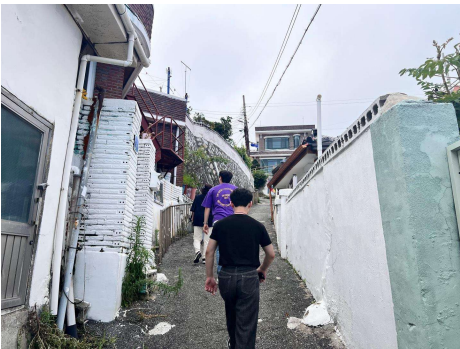
주민 만나기 대화 주제	마을활동가 워크숍에서 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자기소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현재 우리 마을의 현안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의견 - (주제1) 문화·예술 부족에 대한 생각 - (주제2)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생각 - (주제3)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에 대한 생각 • 현안을 ‘같이’ 해결할 방안 •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 우리 마을의 강점(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들고 싶은 마을 모습, 해보고 싶었던 활동 주제 • (유사 활동에서) 좋았던 활동, 보완이 필요했던 활동 •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일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다른 해결책 등 꼬리 질문

04 마을활동가 워크숍 진행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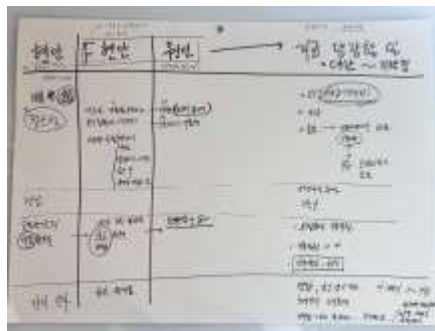
주민 만나기



마을활동가 워크숍



결론 도출을 위한 과정



05 조사하는 배경 2023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욕구조사 보고서 참고하여 구성

• [주제1] 문화·예술을 즐길 여건이 부족한 마을

- 가. 작년 사업 지역의 욕구 조사를 보면, 동네에 필요한 주민 모임 중 ‘문화/예술 활동 모임’이 3.11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참가하고 싶은 모임도 ‘문화/예술 활동 모임’이 34.2%로 가장 높게 조사됨(이어서 친목 모임 18.5%). 반면, ‘문화/여가 활동 시설’은 주민이 생각하기에 다소 열악(동네 환경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 ‘문화/여가 활동 시설’ 문제 20.5%로 2위, 동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문화/여가 활동 시설 만족도 가장 낮음)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 슬기롭게 문화/예술 활동 모임을 이어가기 위한 더욱 세부적인 현안, (주민이 생각하는) 원인, 대안 등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 모임에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수정, 보완할 예정임.
- 나. 한편, ‘문화/예술’과 관련된 욕구는 ‘모임’ 형태뿐만 아니라 ‘복지 프로그램’ 형태로도 확인되었는데, ‘마을 축제’, ‘건강/운동 교실’, ‘인생 글쓰기 교실’, ‘노래교실’, ‘요리 교실’ 등이 주민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보임. 특히, 축제는 [개최 방식, 주제, 내용, 수행 주체] 등 요소에 따라 구현되는 형태가 다른 복지사업이므로,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함. 또한, 건강/운동 교실에 대한 높은 욕구는 고령자 비중(44%)이 높은 사업 지역의 인구학적 배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더 세부적인 구현 방식(강좌인지, 검진인지 등)을 질문하여 사업 진행에 반영해야 함(그 외 복지 프로그램도 주제는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인 구현 방식, 장벽 등 검토 필요).

• [주제2] 끈끈하게 연결된 마을에서 서로 돕는 마을을 만드는 방법

- 가. 지역에 오랜 기간 정착하여 주민끼리 친밀하고(동네 지인과 거의 매일 만나는 비율이 57.4%),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고민 의논 상대 동네 이웃 45%), 건강 악화에 따라, 경사가 많은 지역의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만나기 어려워 지거나, 고령에 따른 지인 부재(상실)로 동네 이웃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마을의 물리적 여건을 이번 사업을 통해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함(아울러, 질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에 동참하는 주민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 나. 또한, 거주 기간이 길지 않은(10년 미만) 지역주민은 동네 지인을 거의 만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끈끈하게 연결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공동체 결속력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됨. 2023년 조사도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마을 경로당 등 커뮤니티 공간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이 주로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주민 사이에서 파악되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의 실제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다. 한편, 전반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돕기(57.7%)’로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응답한 근거를 지역주민에게 다시 묻고,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을 도출한 후 마을활동가 등의 사업과 연계하고자 함. 특히, 욕구 조사에서는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중심으로 물어보고자 함.

• [주제3] 동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

- 가. 동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오랜 기간 살아온 지역주민(58.1%)이 대다수인 마을에서 물리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다소 많았음. 특히, (문화/여가 활동 시설을 제외하면)주차장(1.99점), 녹지 환경(1.99점), 운동/체육 활동 시설(2.06점)이 다소 낮음. 이번 사업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나, 강릉시의 다른 사업(주민 참여 예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거점센터 리모델링 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구성을 최대한 듣고자 함.
- 나. 한편, 개인의 ‘집수리 서비스(3.03점)’에 대한 욕구도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됨. 독거가구의 가장 큰 불편한 점도 ‘집수리·수선(33.3%)’으로 나타나, 희망하는 집수리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함. 간단한 집수리나 정리(청소) 욕구가 크다면, 마을활동가 집단, 지역 후원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자 함.

06 주민만나기 활동 결과 및 앞으로 방향성 제안(표)

대분류	중분류	현안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키워드	원인(지역배경)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관련 강점
공동체 만들기	마을잔치 추진 (공동의 목적 만들기)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 마루 센터 거점으로 활용 • 신리천 유희지 활용 	마을 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지속성 • 홍보 부족 •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리천 유희지 활용한 행사 • 침체된 저녁 분위기 되살리기 (오일장 버스킹, 야행 등) • 도립대와 협력하여 행사 추진 해보기 • 각종 기념일을 맞아 행사 • 옛날 영화 틀어놓고, 음식 나눠 먹는 소소한 마을 잔치 해보기(1년에 4회 정도) 	자연환경 및 경관, 주민 간의 관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초복 행사처럼 먹거리 잔치 희망 • 주민 노래자랑 • 음식 나눔 잔치(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나 간단한 국수, 떡 같은 음식) • 효도(경로) 잔치와 같은 느낌 희망 • 놀거리가 있는 행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행사 진행 필요 (주먹구구식 진행 경계)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치 진행 시 주민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 • 2리 경로당 작은 잔치 자체 진행 중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사라진 작은 마을 잔치 활동 회복 희망 • 멀리서 진행되는 행사는 참여하기 어려움 				

대분류	중분류	현안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키워드	원인(지역배경)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관련 강점
공동체 만들기 (계속)	공동체 구성의 세부 요소 인식	마을 간 심리적 장벽이 연결을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마을 때 7리 방문 시 불편한 느낌 (남의 집에 있는 느낌) 노인정이 마을마다 있어서, 같은 마을 어르신끼리는 사이가 좋은데, 다른 마을 어르신과는 교류가 많지 않음 	심리적 거리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센터 이용자 다수가 특정 마을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벽이 낮은 사회서비스를 거점센터에서 제공하여, 다양한 사람이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정기적으로 간단한 수선 서비스 제공(마을활동가) 친한 주민들을 통한 입소문 내기 투호, 오재미 차기, 다트, 탁구대 등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요소 만들기 간단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10~20분 운영하여 부담 없이 거점센터에 오게 유도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 대상 홍보 <p>※마을활동가가 생각하는 거점센터가 중요한 이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 구경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관리도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p>	주민 간의 관계, 생활 편의성 및 안전
		안전감 있고 개방된 공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마을 당시 거점센터의 원 목적은 주민 소통 공간으로의 이용 그러나, 주민들 관심이 줄어들고 특정 주민만 이용하면서, 각 마을 주민이 모이는 공간 만들기에 어려움 새뜰마을 2리 거점 장소 준공 당시 주민 소통 용도로 홍보했지만, 현재는 관리의 어려움 발생(상시 공간개방 등) 	폐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어든 주민 관심 아는 주민만 만나는 경향 다른 리는 다른 마을이라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마련 소통 창구의 구실을 하는 사람(마을활동가) 필요 주민을 위한 공간 상시 개방 희망 마을에 있는 공용 공간을 마을에서 함께 관리하는 방안 논의 시도하기 (열려 있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부족(조리 공간 등) 주민들이 담소를 나눌 공간 부족 실외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정자 등) 보수 필요 거점센터는 사랑방으로 꾸리고, 경로당은 거점센터를 가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이기를 바람 	열린 사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부족 중간 지점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을 위한 공간을 계속 개방 필요 정자 바람막 보수 양지바른 골목에 의자 두기 주문 마루 거점센터 리모델링 단순 프로그램 외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공동체 식사를 통해 당번을 돌아가며 활동을 주관하고, 함께 먹거리를 준비해 오거나, 만들어 먹으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활동 추진하기 	

대분류	중분류	현안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키워드	원인(지역배경)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급 해볼 수 있는 것)	관련 강점
공동체 만들기 (계속)	공동체 구성의 세부 요소 인식 (계속)	공동체 거점 공간에 대한 지속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리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점센터(카페, 세탁) 운영 경비 걱정 (미인가 경로당)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만, 공간 운영에 대한 도움 필요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은 이용수요 봉사자 부족 순응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 형식으로 특정 마을 주민이 운영을 보조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음 모임 공간을 지속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우면 좋겠음 	주민 간의 관계, 생활 편의성 및 안전
		주민 모임의 구실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임 공간은 있지만 모임 이유가 부족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의 사정을 알기 어려운데, 정기적인 식사 모임을 통해 주민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명확한 모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다른 취미 마을에 경사로가 많아 목적이 없으면 모이기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하며 주민과 만나기 작은 도서관과 같이 독서 모임 만들어 보기(소셜, 문화, 역사) 월 1회 이상 영화 상영 간단한 영상 촬영 활동 하기 기타 공동체 프로젝트 고민을 위한 주민 워크숍(반사회) 정기 개최 선진지 견학으로 통찰력 확대 	
		공동체, 알고 지내는 편한 관계에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과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 그러한 사람들과 음식 먹는 것이 가장 즐거움 	편한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임(공동체)을 다른 활동으로 참여하도록 촉진 시도 	
		부족한 공동체 활동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공동체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생계 우선에 따른 시간 부족) 프로그램 참여할 인원 부족(적은 수요) 인구 적은 젊은 연령대와 많은 노년층이 서로 어울리지 못함 	시간과 수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건강상 문제 적은 유동 인구 생계 문제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마을활동가가 있지만, 마을활동가가 또 다른 형태의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마을이 함께 동참하는 방안 필요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검토(소통, 리더십, 마을활동, 문제해결 등) 정기적이고, 1시간 단위의 활동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마을활동가와 함께 제안하고, 실행하기 	
		협력과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이후 주민단체 간 소통이 부족하여 체육대회가 잘 진행되지 않음. 정상 추진되도록 단체 간 의사소통 촉진 필요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거나, 마을 주민에게 의미 있는 행사라면, 단체 간 협의를 촉진 및 중재하며 원활히 이루도록 돕기 이 과정에서 이미 행사기획, 추진 관련 경험 주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갈등과 대립에 따른 마을 분위기 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특정 마을이 갈등 속에서 분위기가 와해 새뜰마을로 인해 마을이 갈라짐 사람과 사업 모두의 문제라 인식 	대립,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주민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Key person 간 갈등 해소 필요 	

대분류	중분류	현안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키워드	원인(지역배경)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관련 강점
복지 프로그램 욕구	즐거운 노화	가변성 높은 주민 일상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마을 자체 프로그램이 많아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필요(단순 프로그램 지양) •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은 생계 등 이유로 참여가 힘든 경우가 다소 많음 • 고정적인 시간으로 개인 일과와 맞지 않아 참여가 힘든 경우가 많음 •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프로그램 희망 (덜 힘든데, 신나는) • 무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 필요 	차별화,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문화 혜택 • 생계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를 촉진하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이벤트(공동체를 통한 문화 활동 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신나는 예술여행 등 외부 문화 예술 자원도 지속 연계) • 저녁 시간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고민 • 참여가 강제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고민(복지관 측, 평균 연인원 관리가 핵심) • 생계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주민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만들기 • 노인복지관의 기획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자연스럽게 집단 구성하도록 돕기 	교통 및 접근성, 자연환경 및 경관, 주민 간의 관계
		문화환경이 부족한 마을에 대한 문화 복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내 영화관 등 전반적인 문화 시설 부족 • 즐길 거리, 먹거리 모두 부족(큰 다리 넘어가면 조금 있는데 여기는 없음) 	문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가 당장 환경 조건을 바꿀 수는 없으니,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시도를 고민하기 • 예: 영화관이 없다면, 함께 팝콘을 나누고, 주민이 원하는 영화 틀어놓기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면, 종종 작은 잔치를 주민끼리 모여서 준비하기 	
		다양한 문화, 여가 콘텐츠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붓글씨와 같은 <u>정적인 프로그램</u> • 계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 <u>찾아가는 미술 프로그램</u> • <u>만들기 프로그램</u>이 만족도 높음 • 영상 시청 프로그램 • 요가, 사물놀이 • 노래교실 •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 <u>운동 관련 활동</u> • 노래, 화훼, 율동, 운동 프로그램 • 한글 배우기(성인 학습 프로그램) • <u>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교육</u> 	다양한 PG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에 대한 두려움 • 가르쳐 주는 사람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서낭당 제사 날짜가 상이, 단오제 같은 풍어제 행사 기획(3일 규모) • 새로운 것을 두렵지 않게 배우도록 반복 학습 필요(돌봄 활동가의 스마트폰 알려주는 활동) • 찾아가는 프로그램 기획 검토 • 주 참여 대상 집단인 ‘후기 고령인구’ 신체 건강 고려하여 프로그램 기획 •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수시 제공(분리수거-환경, 스마트폰-디지털) 	

대분류	중분류	현안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키워드	원인(지역배경)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관련 강점
복지 프로그램 욕구(계속)	건강한 노화	신체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건강 프로그램도 더 많기를 희망 운동, 건강, 체조 관련 프로그램 희망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 희망 의료지원, 한방치료 활동 희망 주된 관심사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간단한 운동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로 건강 관심 높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10~20분 움직이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노인층 위주 프로그램 희망) 간단하게 산책 같이 다니며, 사진 찍는 활동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해서 운동 여건 만들기 지역사회에 있는 외부 건강 자원(건강검진, 의료상담, 한의원 등) 적극 연결하기(보건소, 건강위원회 등) 	교통 및 접근성, 주민 간의 관계, 생활 편의성
		정신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영화, 만들기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극 활동(심리치료) 독거노인 치매, 우울감 프로그램 필요 	우울, 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높은 독거가구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활동가가 간단하게 준비하여 인지 지원 활동 해보기 연극 활동은 완벽한 수행보다는, 부담되지 않게 수행하는 방안 고민하기 	

대분류	중분류	현안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키워드	원인(지역배경)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관련 강점
복지지원	복지 사각지대 문제	공적 돌봄 외 사각지대 주민 돌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척도 없고 요양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주민은 다른 형태 돌봄 필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방문 필요 <i>(집에만 누워있는 지역주민)</i> 많은 사람이 요양보호를 받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외 시간에도 말동무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다만, 남성 노인들은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임 	공적 돌봄 밖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독거노인 다수 생활 요양보호 외 시간은 홀로 보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거·위생관리 가장 시급(마을활동가끼리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주거 개선 다뤄보기) 가능하다면, 주민의 집을 ‘일일 사랑방’으로 만들어서 작은 모임 만들어 보기 (혼자 있는 시간에 주민끼리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고민) 거부하는 경우, 정신질환이나 자존심, 오해, 우울증, 치매는 없는지 헤아려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기, 간단한 물품 전달하며 안부 묻기(주는 사람 태도가 아니라 당사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태도로 활동하기) 	주민 간의 관계
		당사자 맞춤형 정보전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 구조 정말 힘든 사람은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같음 <i>(어렵פות이 들려오는 정보)</i> 	맞춤형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가 잘 안됨 발굴도 잘 안됨 서류상 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복지 전달 과정에서 마을활동가-복지관-이장과 긴밀한 협력 필요 다양한 주체가 서로 소통을 잘할 방법을 고민하기(간담회, 협의회, SNS운영 등) 마을의 강점을 알리면서 지역에 맞는 소통 채널 운영(유튜브, 라디오 등) 	
		체계상 허점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수급자는 혜택을 받지만 바로 위에 있는 사각지대 주민은 지원이 전혀 없음 개인의 자존심에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음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로 수급 탈락 실거주지가 다른 주민은 복지에서 소외 	공적 복지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상 허점 자녀 거주지 이동 후 부모 주소지까지 일괄 변경함에 따라 실거주지 차이 발생 수급 여부 판단 시 재산만 보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이)공공에 지속 소통하고 건의하기 공백이 발생한 영역은 민간 복지 영역에서 사례관리 또는 마을 활동으로 다루기 	
		강한 결속 바깥의 소외된 주민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속된 공동체 밖 주민 파악 필요 경로당 노인회 소속 외 주민은 잘 모름 얼굴을 아는 이웃의 어려움만 파악되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의 어려움을 알 수 없음 중독 문제를 겪는 소외 주민이 보임 	소외 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마을을 살아가는 모두가 최소한 느슨한 소속감과 안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마을 수시로 돌아 다녀보기, 한끼드림 부식 전달 도우며 고립가구 만나기, 격정되는 주민을 안내할 수 있도록 쉬운 창구 만들기(본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참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 공동체, 단체 간 네트워크를 돕기(공동의 목표 의식을 만들기-작은 잔치, 마을 의제 발견 등) 	

대분류	중분류	현안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키워드	원인(지역배경)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관련 강점
복지지원 (계속)	복지지원 욕구	거동 불편한 주민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동 불편 가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운행 필요 고령으로 인해 거점센터 방문이 어려움 	이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문마루 거점 센터를 오갈 수 있는 작은 마을 셔틀 운영 단, 법이나 보험 등 한계를 확실하게 점검하여 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보행보조기(실버카), 전동 휠체어 수리/교체 필요 	주민 간의 관계
		생활고충관리 (마을활동가의 활동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식들도 도와주지 못하는 소일거리를 도와주는 활동 희망 식사, 말동무, 청소 관련, 병원 동행 (이동지원), 찾아가는 음식 나눔 활동 집수리, 주택 보수, 생필품 지원 필요 어려운 복지 신청 실질적 도움 	생활 고충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동 마을관리소 마을활동가의 생활고충관리/간단 집수리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마을활동가의 상시 활동 요소로 고려하기) 이/통장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역할 분담 등 협의 필요 마을활동가-이장 간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함께 교육 받거나 교류할 기회를 충분히 조성하기 간단한 집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려면, 집수리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받기 간단 집수리를 통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 기대 독거노인 안심벨 등 장치 중 건전지로 가는 것들은 건전지 다 닳으면,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섬세하게 살펴보기 	
경제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문제	수산업 쇠퇴와 늦은 도시개발로 인구 유출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별로 없음 과거보다 바다에 고기 많이 없어서서 일자리 줄었음 어업(수산업) 쇠퇴로 인한 수요 및 경기 하락 발전이 더딘 지역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다 외지로 떠나감 	지역 경제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지에 비해 차별점 부족 자원과 볼거리 부족 지역 규모 작음 고령화 일자리 부족 도시개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은 시책 차원의 해결이 요구됨 지역화폐 제도 만들어서 편의점이나 가까운 마트에서 활용하도록 추진 (다른 지역의 사례)자기 돌봄이나 활동 정도에 따라 쿠폰으로 환급하여 원하는 곳즈, 물품 등을 얻도록 하는 제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관광요소 개발 필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사업 등 	교통 및 접근성, 자연환경 및 경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건물관리 및 보수	시급한 노후 주택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벼락, 벽지, 지붕, 싱크대, (재래식)화장실 등 집수리 필요 판자집이 많아 열악한 주거 많음 우풍, 물샘, 병충해 문제 방치된 빈집 문제 개선 필요 화장실에서 벌레나 달팽이 출몰하여 사용에 불편을 겪음 노후 주택(아파트) 안전 점검 필요 	노후된 주택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마을 지원 낮은 형평성 낡고 관리되지 않은 환경 방치되거나 오래된 건물 재산 소유가 복잡한 땅이 많아 빈집 문제 해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의견을 취합하여 정말 필요한 주거 여건부터 개선하기 (강릉시)가능하다면, 빈집 철거하여 문화공간이나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외부 자원 연계 적극 추진 골목에 화사한 분위기가 들도록 화초가 많으면 좋겠음 방재는 시에 요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수요가 있는 주민은 신청하도록 안내하기(마을활동가) 	주민관계
		공용 시설 관리 및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길 계단, 안전바 노후 공용 화장실 관리 문제(청결도 등) 새뜰마을 진행 이후 망가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공용 시설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되지 않은 환경 개인 화장실은 정화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공용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제점 확인하고 개선 요청하기 공용 화장실은 현재 공공 일자리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나, 그 외 주체가 관리하는 공용 화장실의 위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분류	중분류	현안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키워드	원인(지역배경)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급 해볼 수 있는 것)	관련 강점
지역의 물리적 환경(계속)	기초 인프라 부족	주차 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 공간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많아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좁은 해안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마을에 남는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기 	-
		제반 시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마을에 보충되면 함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적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이 힘들 	제반 인프라, 운동 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문마루 거점 센터 리모델링할 때 공간 안에 간단한 운동 기구 추가(탁구대 등) 	-
		마을 내 이동 편의 증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여건상 장애인 이동 불편 경사로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실버카도 이동하기 어려운 골목이 많음(불당골 인근) 밤길이 어두워 이동이 불편함 안전 손잡이 파손 문제 골목길 겨울철 빙판길 형성으로 일시적으로 고립되는 주민도 있음 낙상사고 발생 위험 골목에서 주민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 	이동 편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문제 거점센터 높은 위치(언덕 위) 고령화 염화칼슘 및 제설 장비 미비 제설 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 화장실 등 마을 곳곳 시설의 문턱, 세면대 등 위치가 다시 고려되어야 함 대문 보안등 고치기 가능하다면, 미끄럼 방지 시설 확충하기 눈이 많이 오면, 마을활동가와 함께 눈 치우기 등 	주민 간의 관계
	환경문제	마을 쓰레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심하고 악취가 있음 반려견 에티켓 문제 / 반려견 산책할 때 배변을 치우지 않아 도로에 방치됨 바다 쓰레기 많음(불꽃놀이 쓰레기 등) 	환경 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투를 구매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종종 발생 분리수거 중요성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마다 추가 쓰레기통을 설치했지만, 악용하는 주민이 많아 그만둔 적이 있음 쓰레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므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보완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교육보다는 실생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가 돕기 	자연환경 및 경관
	안전 확충	안전사고 예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노인가구 대상으로 안전교육 필요 	안전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대처 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일상생활 안전교육(강릉소방서 도움) 	주민 간의 관계
재난대응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도로가 부족하고, 용구들이 점검이 잘 되어있지 않음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음 	재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으로 이루어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도로가 부족하여 재난 발생할 때 대응력이 낮음 집마다 화재경보기, 소화기 설치 돕기(건망증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됨) 주민끼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본관 사회재난대응복지사업 참고) 		

07 주민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 강점

구분	내용
교통 및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리는 큰길이 잘 되어있어 다니기 좋음 언덕 중간만 빼면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음 양양 고개가 있어 대중교통이 편함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비교적 가까이 있어 좋음
자연환경 및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경치, 맑은 공기 등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좋음 바다가 가까이 있어 쉽게 놀러갈 수 있음 바다와 산이 가깝고, 자연경관(풍경)이 좋음 바다 환경이 매우 좋음 공기 좋고, 물이 맑음 좋은 공기, 시원하고 살기 좋음 공기질이 좋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음 노인 일자리 덕분에 골목길 환경이 더욱 잘 관리되고 있음
주민 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심이 좋고, 정이 많음 이웃 간 부딪힐 일이 많이 없음 주민이 서로 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정겨움 이웃이 좋아 동네 마실 하기 좋음 주민이 서로 교류를 많이 함 매일 보는 주민들과 잘 어우러지는 동네 택시 기사와도 안면이 있을 정도 단독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웃끼리 교류와 공유가 많음 이웃끼리 친밀도가 높음 정이 많고 서로를 챙김 마을의 빈 땅을 주민이 서로 활용하며 정답게 살아감 주민들 단합이 좋음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순수함/사람들 성격이 순함 (노인일자리를 줌)활동적인 분이 많음 주민들과 단합이 잘 되어서 정이 들어 떠나고 싶지 않음 소통이 잘 되는 마을, 정이 많은 마을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함
생활 편의성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 도둑(범죄)이 없고, 정이 많음/조용한 마을 싱싱한 생선이 많음 해변 곳곳에 있는 화장실 시설이 좋음 새뜰마을(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과거보다 마을이 깨끗하게 보임 정자나 운동기구, 경로당 시설이 잘되어 있음

08 이야기 분류 번호표

대분류	중분류	번호
공동체 만들기	마을잔치 추진 (공동의 목적 만들기)	1, 4-1, 7-1, 56-1, 70, 100-1, 104-1, 112-1, 128-1, 128-2
	공동체 구성의 세부 요소 인식	1-2, 2, 17, 20, 28, 31, 31-2, 41-1, 44, 48-1, 57, 60, 67, 68, 79, 95, 98, 108, 120, 121, 121-1, 123, 126
복지 프로그램 욕구	즐거움 노화	1-3, 7, 10, 24, 31-1, 34, 37, 45-1, 48, 84, 88, 92, 96-1, 100, 104, 108-1, 112, 116
	건강한 노화	4, 14, 41, 52, 53, 56, 76, 80, 124, 124-1, 128
복지지원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복지지원 욕구	5-1, 8, 16, 18, 23, 25, 29, 36, 42, 45, 55-1, 72, 73, 77, 81, 85, 93, 97, 101, 105, 107, 109, 117, 122, 125, 129
경제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문제	3, 12, 13, 27, 40, 55, 58, 59, 87, 90, 123
지역의 물리적 환경	건물관리 및 보수	1-1, 5, 9, 11, 19, 35, 43, 58, 71, 74, 75, 83-1, 94, 101-1, 103
	기초 인프라 부족	6, 15, 22, 30, 43, 51, 54, 64, 72-1, 89, 92-1, 96, 102, 110, 115, 119
	환경 문제	35, 39, 132
	안전 확충	91, 106, 114, 118, 130

09 [결론] 주민 만나기 결과(요약)와 현재 사업과의 연결성

2024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방향성 사업의 비전 사업의 목표		요약 및 향후 계획 마을활동가 활동 방향과 세부 사업 방안 제안
건강하고 서로 끈끈한 마을 집밥 레시피, 한끼 식탁, 건강관리, 식생활 돌봄 활동가 등	식생활 돌봄 활동을 기반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이 당번제로 돌아가며, 먹거리를 준비해 오거나, 함께 만들어 먹는 공동체 식사(소셜다이닝) 모임을 기반으로 서로를 느슨하게 돌보는 체계를 만들게 도와야 함(식생활 돌봄 마을 활동가, 지역주민). • 초반에는 마을활동가가 주민을 공동체 식사에 초대하는 형태가 된다면, 마을 활동가 또한 공동체 식사 운영을 위한 기초 역량(요리, 이야기 풀기 등)이 준비되어야 함.
	공동체 거점 공간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는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주민 당사자이면서, 주민과 주민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함. 이를 위해, 교육과 선진지 견학으로 통찰력,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안전감이 있고, 개방된 공간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임. 우선, 많은 주민이 공동체 공간을 이용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공간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마을활동가 정기 활동일마다, 다양한 사람이 쉽게 오도록 ‘문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겠음(간단 수선, 공구대여, 간단 인지 훈련 PG, 스마트폰 일일 질문 코너 운영, 분리수거 정보 ‘꿀팁’ 안내, 간단한 집수리 등). • 한편, 사회복지사도 중재자로서 단체와 단체의 협력을 끌어내야 함. 특히, 코로나19 등 모종의 이유로 단체/주민 간 협력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다고 하면, 주문 마루 센터와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좋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다른 형태의 공동체 활동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잘 연결되어 있지만 마을 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특정 목표(모임의 구실)를 바탕으로 모이도록, 초기 활동 시 적절한 촉진과 지원을 해야 함.
	주민이 말하는 마을 현안을 같이 해결해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목표나 소재로는 식사, 독서, 문화/예술 동아리, 마을 축제 기획 등 될 수도 있고, 모임 구성을 위해 전체적인 주민 강점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반사회 성격으로 주민 워크숍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음. • 노인 일자리 등으로 하루 일정의 변동이 큰 지역주민 특성상 1시간 이상 단위로 모이기에 부담이 됨. 당사자들의 일상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시간, 장소 등 고려)로 기획해야 함. • 거동이 불편하여 주문 마루 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어려우면, 마을활동가가 당사자의 관계망이 되며, 안부 확인, 주거/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음. 다만, 마을 특성상 곳곳에 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주민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민의 집을 돌아가며, 일일 사랑방(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운영하여 느슨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시도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요양보호를 받더라도 그 외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므로, 이러한 방식은 거동 불편, 건강 약화 등으로 공동체 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줄일 수 있음. 단, 동시에 건강 약화 등으로 외부와 물리적 연결이 힘든 주민을 직접 지원할 마을 자원 개발도 필요함. • 복지 전달 과정에서 정보 누락으로 복지/민원 신청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하는데, 주문마을 기록 제작소, 마을활동가(아웃리치, 한끼드림 지원 등)를 통해 복지 정보제공 체계를 보완하면 좋겠음. 이 과정에서 이장과의 역할 규정도 중요함.

2024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방향성		요약 및 향후 계획
사업의 비전	사업의 목표	마을활동가 활동 방향과 세부 사업 방안 제안
<p>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의 마을 노후주택 개선 사업, 재난 대응 복지, 환경 개선 활동가 등</p>	<p>주민이 말하는 마을 현안을 같이 해결해 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의견을 취합하여 정말 필요한 주거 여건부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함. 공공이 해야 할 일이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어야 함. 단, 마을활동가가 마을의 무장애 조성, 위험한 장소, 재난 안전 위협 등을 복지 감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좁고 경사가 많은 마을 특성상, 장애나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긴급 대피가 다소 어려운데, 이를 보완할 방안도 고민해야 함(예방 차원에서 장비 설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례 파악, 가구별 맞춤형 대응력 증진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과 훈련 등). 마을에서 쓰레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음.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에 따라 파일럿 사업(분리수거장 설치)을 시도해 봤지만,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음. 마을활동가가 분리수거 방법을 지속 전파하는 정보 안내 활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자원순환운동본부 등의 단체와 협력한 참여형 캠페인 활동(홍보성 캠페인은 지양)을 전개하면 좋겠음. 이후에 분리수거장 추가 조성 등 조치를 병행하는 방법도 제안함. 길거리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 골목에 화초를 심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드는 시도도 필요함. 깨끗한 바다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마을이나, 바닷가 인근으로 쓰레기를 허락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음. 환경 마을활동가, 주민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증진해 보는 시도도 권함.
<p>교육·문화·예술이 가득한 마을 그림 화방, 등대 올림 합창단, 화사한 인생, 에코브릿지, 꿈글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로 인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주민이 문화를 충분히 누리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참여를 촉진해야 함(복지 프로그램, 문화/예술 모임, 신나는 예술여행과 같은 외부자원 연계 등). 또한,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찾기 위해, 프로그램/활동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시도도 필요해 보임. 일단, 사람이 모이면 기획된 프로그램 전·후로 지역주민이 교류하게 도와서, 자연스럽게 모임 형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함(참여동기 확인하여 같은 목적 공유하기, 유대 강화를 위해 특정한 활동 제안하기, 이야기 주제 던지기 등). 문화/예술에 대한 물리적 여건을 당장 개선하기 어려워, 마을 사람끼리 할 수 있는 노력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임. 특히, 물리적 환경은 당장 개선할 수 없어서 낙담, 무력감이 인터뷰 과정에서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끼리’ 시도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면, 마을의 강점과 활동 목적성이 보이면서, 공동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봄.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동 소재(주제)가 제안되었으나, 기존 욕구 조사 예측 범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음. 단, 구현 형태 측면에서, 고령자가 많은 마을인 탓에 큰 동작이 요구되는 활동보다 비교적 쉽게 참여하고,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문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외부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직접적인 욕구에 대응해야 함.
<p>주민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 주문마을 기록제작소, 월간 주문경(잔치)</p>	<p>지역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 주민으로 성장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가 주도하는 큰 행사보다 주민이 모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은 잔치를 자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특히,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가 큰 것에 비해 지역 내 여건이 부족하므로, 마을에서 주민(활동가)이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함. 반복 언급된 영화관람 소재는 비교적 쉽게 이를 수 있으므로, 정식 개소 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음.

MEMO

2024년 연구·조사 | 3차

한끼드림 만족도 조사

우리 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식사 배달지원 사업 ‘한끼드림’을 주 1회(화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보조금에 지역사회 소중환 후원금을 더하여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고령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따라, 선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변하는 지역사회 욕구에 맞춰 선정 기준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6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경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당사자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였습니다. 한편, 지금 한끼드림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만족도와 변화 수준에 대한 파악도 책임성 및 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끼드림은 프로그램 특성상 매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탓에 정확한 만족도 평가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2년 주기로 돌아오는 대단위 집단의 재상담(이용 기간에 종료에 따른 재신청-선정 과정) 과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끼드림을 이용한 당사자의 변화 수준과 만족도를 평가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식사 지원 사업 특성상 유의미하게 큰 욕구 변화를 점검하기 어려웠지만, 식사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당사자들에 감사드립니다.

01 조사개요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운영 체계 개선 식사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과업기간	준비	3. 4.(월)~4. 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끼드림 주 담당자 만족도 조사 사전 설계 T/F 설계 회의(1~3차) 및 조사 계획 확정
	진행	4. 9.(화)~6.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설계에 따른 조사 진행(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조사 담당 T/F 등 조사원 투입) 한끼드림(화요일) 진행 일마다 회수 원칙
	분석	7. 1.(월)~8. 20.(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처리 및 자료 코딩 조사 분석 및 평가회의 분석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사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대면조사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을 시작한 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사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94명 대상으로 조사 진행 조사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92명 조사 완료 <p style="text-align: center;">※한끼드림 이용자는 당사자의 경제, 신체건강, 사회정서, 영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선정</p>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movi를 활용한 통계 분석(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등) 		
수행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조사TF(이수정, 정신영, 이주원, 박영민, 조예송, 김한나, 김덕, 배시영, 전근홍)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사회서비스(한끼드림)의 질 파악과 발전 방향성 도출 한끼드림 이용자의 추가 복지 욕구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역사회돌봄 추진 		
조사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다수가 초고령인 점을 반영하여 쉬운 설문지로 구성하여야 했으나, 일반 설문지로 진행한 탓에 당사자의 요양보호사 의견이 조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설문지 구성 과정에서 당사자의 현황(돌봄 등)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하게 질문하기보다 사업 만족도와 변화 수준 파악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한끼드림 집단의 세부적인 욕구 파악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제 실천 과정에서는 2021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3년 마중하다 조사, 강릉시 자체 식사배달지원사업 욕구 파악 자료를 활용하여 이번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만족도 및 성과 파악을 기관 내부에서 자체 진행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도출에 있어, 기관의 미션 및 비전, 운영 여건을 고려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음. 		

02 조사 항목

분류	세부 항목
개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참여 동의여부 성별, 연령, 장애유형, 가족유형, 거주동네 거동여부, 신청경로
사업 만족도 및 복지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끼드림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1~5점) 현재 배포하는 부식 활용 방법 안내문(레시피)에 관한 만족도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및 지원 욕구
한끼드림 이용 후 일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후 나의 일상이 변화된 정도(경제, 장보기, 영양, 정서, 외로움) 한끼드림 배달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유형

03 조사하는 배경

구분	내용
한끼드림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7월 현재, 강릉시의 고령인구 비중은 약 25.5%로, 강원특별자치도(24.8%), 전국(19.6%) 보다 높으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노인 독거가구도 늘고 있음(주민등록인구통계).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약화하여 영양 균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는데(질병관리청),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독거가구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 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높아짐. 또한, 전체 노인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노인 독거가구의 증가, 사회 인식의 변화 요인으로 인해 공동체 결속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한끼드림 사업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음.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데, 복지관 한끼드림 정기 자원봉사자의 식사(부식) 전달과 안부 확인, 건강주거 모니터링을 통해 영양, 식생활 외적인 영역까지 당사자를 계속 도울 수 있음(안전망 역할). 이에, 한끼드림은 늘어나는 고령자 복지 수요 속에서 항상 자원 배분에 대한 큰 책임감이 요구됨. 따라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및 사례판정(복지관 사례관리 절차의 일부 활용) 과정을 거치고, 이용 기간을 2년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2021년부터 체계를 잡아옴(욕구 및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재상담을 통해 재선정 가능). 아울러, 최근에는 가파른 지역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실천 경험에 근거하여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도 함. 즉, 이번 만족도 조사 또한 한끼드림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서비스 품질과 성과를 파악하여 앞으로 한끼드림 서비스의 발전 방안 도출과 모니터링·선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해 조사를 기획한 것임.
2022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식 배달 만족도 ‘매우 만족’ 43명(64.2%), ‘만족’ 17명(25.4%)으로 조사되었고, 점수 환산 시 평균은 약 3.52점임. 한편, 생활도움정도는 점수 환산 시 평균 약 3.68점으로 조사됨(‘매우 만족’ 47명-70.1%, ‘만족’ 19명-28.4%). 불만족 사유 ‘부식의 양이 부족해서(3명)’, ‘먹기 힘든 식재료가 배달되어서(2명)’, ‘기타(2명)’으로 조사됨. 부식 배달 활용 유형 ‘직접 조리’ 41명(61.2%),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의 도움’ 20명(29.9%),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 5명(7.5%), ‘기타’ 1명(1.5%)로 조사됨. 섭취하기 힘든 부식 ‘육류(9명)’, ‘콩류·잡곡류(3명)’, ‘생선류(7명)’, ‘채소류(1명)’, ‘과일(2명)’, ‘유제품(5명)’, ‘기타(41명)’으로 나타나, 개인 기호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다만, 씹기 어려운 딱딱한 음식은 대체로 피함. 추가복지지원 ‘건강·의료지원’ 21명(32.8%), ‘집수리’ 15명(23.4%), ‘세탁지원’ 4명(6.3%), ‘돌봄지원’ 4명(6.4%), ‘상담’ 3명(4.7%), ‘기타’ 17명(26.6%) 순으로 조사됨. 기타 응답으로는 수급비용 확대, 난방지원, 청소지원이 언급됨.

04 한끼드림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가. 응답자 개인적 사항 및 분포

단위: 명/(%)

[표]개인적 사항	계	성별		장애 현황		가구 유형		이동유형							
		남성	여성	비장애	장애	1인	동거	혼자 이동	도구 사용	지팡이	실버카	휠체어	불가	기타	
계	92	31 (33.7)	61 (66.3)	40 (43.5)	52 (56.5)	76 (82.6)	16 (17.4)	40 (43.5)	52 (56.5)	26 (50.5)	11 (21.2)	6 (11.5)	8 (15.4)	1 (1.9)	
연령대	75세 미만	32 (34.8)	15 (46.9)	17 (53.1)	10 (31.3)	22 (68.8)	24 (75.0)	8 (25.0)	19 (59.4)	13 (40.6)	5 (38.5)	1 (7.7)	3 (23.1)	4 (30.8)	-
	75세 이상 85세 미만	39 (42.4)	12 (30.8)	27 (69.2)	20 (51.3)	19 (48.7)	36 (92.3)	3 (7.7)	20 (51.3)	19 (48.7)	13 (68.4)	3 (15.8)	1 (5.3)	2 (10.5)	-
	85세 이상	21 (22.8)	4 (19.0)	17 (81.0)	10 (47.6)	11 (52.4)	16 (76.2)	5 (23.8)	1 (4.8)	20 (95.2)	8 (40.0)	7 (35.0)	2 (10.0)	2 (10.0)	1 (5.0) *목발

※휠체어는 자립하여 탈 수 있는 경우 선택, 이동 불가능 자립하여 이동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선택

- 2024년 한끼드림 만족도 조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자 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이용자 92명이 조사에 참여함. 이용자 연령대를 분류하였을 때, '75세 미만' 32명(34.8%), '75세 이상 85세 미만' 39명(42.4%), '85세 이상' 21명(22.8%)으로, 이용자 다수가 75세 이상 후기 노인으로 파악됨.
- '성별'에 따른 분류 결과, '남성' 31명(33.7%), '여성' 61명(66.3%)으로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 세부 분석 결과, '남성'은 전기 고령인구가 많고, '여성'은 '75세 이상 85세 미만' 연령대가 많음. 이용자 성별이 편중된 이유로 성별에 따른 기대 연령 차이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애 현황'을 보면, '비장애' 40명(42.5%), '장애' 52명(56.5%)으로 조사됨. '장애'가 있는 이용자 중에서도 청각장애(25명), 지체장애(17명), 시각장애(6명), 신장장애(4명), 뇌병변장애(3명), 호흡기장애(3명), 뇌전증장애(2명), 정신장애(1명), 심장장애(1명), 안면장애(1명) 순으로 많았고, 2개 이상 중복 장애가 있는 이용자는 8명으로 파악됨. 다만, 초기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정보(장애 이용자 약 40% 비중)보다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개인의 신체 기능 약화로 임의 선택하였을 가능성과 아주 과거에 판정받아 현재는 장애 정보가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함. 한편, '비장애' 이용자 중에서는 '75세 이상 85세 미만'이 가장 많고, '장애' 이용자 중에서는 전기 노인이 많음. 당사자 발굴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 기관(협회 등)'으로부터 발굴 연계 사례 다수가 '전기 남성 노인 장애 가구'가 많은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본래 한끼드림은 신체 기능 약화에 따른 식생활 돌봄이 목적이므로, 후기 노인 대비 건강한 전기 노인은 장애 또는 거동에 어려움을 주는 만성질환이 있는 주민이 이용하게 됨).
- '가구 유형'에 따르면, '1인 가구' 76명(82.6%), '동거가구' 16명(17.4%)으로 파악됨. '1인 가구'는 '75세 이상 85세 미만'이 많고, '동거가구' 중에서는 전기 노인이 많음. 한편, '이동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혼자 이동' 40명(42.5%), '도구 사용' 52명(50.5%)으로 나타남. '도구 사용'하는 이용자 중에서는 '지팡이' 26명(50.5%), '실버카' 11명(21.2%), '이동 불가' 8명(15.4%), '휠체어' 6명(11.5%), '기타' 1명(1.9%) 순으로 파악됨. 이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 '8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은 다른 '연령대' 대비 '도구 사용'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짐. 그러나, '휠체어', '이동 불가'를 선택한 이용자는 전기 노인이 가장 많음. 장애가 있는 이용자의 응답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함.

나. 장애 현황에 따른 이용자 특성

단위: 명/(%)

[표]개인적 사항 (장애현황 분류)	계	성별		가구 유형		이동유형	
		남성	여성	1인 가구	동거가구	혼자 이동	도구사용/이동불가
계	92	31(33.7)	61(66.3)	76(82.6)	16(17.4)	40(42.5)	52(56.5)
장애유무	비장애	8(20.0)	31(80.0)	34(85.0)	6(15.0)	18(45.0)	22(55.0)
	장애	23(44.2)	29(55.8)	42(80.8)	10(19.2)	22(42.3)	30(57.7)

- 1) 이용자 중에서, 비장애는 '남성 8명(20.0%), '여성' 31명(80.0%)으로 조사되었고, 장애가 있는 경우 '남성' 23명(44.2%), '여성'은 29명(55.8%)으로 파악되며, '남성' 이용자의 장애 비중이 다소 높음.
- 2) '가구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비장애' 중에서 '1인 가구' 34명(85.0%), '동거가구' 6명(15.0%)으로 나타났고, '장애가 있는 이용자' 중에서는 '1인 가구' 42명(80.8%), '동거가구' 10명(19.2%)로 조사됨.
- 3) '이동유형'에 따르면, '비장애' 중에서 '혼자 이동' 18명(45.0%), '도구사용/이동불가' 22명(55.0%)이며, '장애가 있는 이용자' 중에서는 '혼자 이동' 22명(42.3%), '도구사용/이동불가' 30명(57.7%)으로 파악됨.

다. 이용자(응답자)가 사는 지역 분류

[표] 사는 동네	계	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초당동	경포동	포남1동	포남2동	교1동	교2동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연곡면	사천면	옥계면	강동면	구정면	성산면	주문진읍
명	92	11	11	8	2	1	11	4	4	1	4	6	6	2	1	3	1	1	5	10
%	100	12.0	12.0	8.7	2.2	1.1	12.0	4.3	4.3	1.1	4.3	6.5	6.5	2.2	1.1	3.3	1.1	1.1	5.4	10.9

- 1) 이용자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성덕동(11명)-강남동(11명)-포남1동(11명)-주문진읍(10명)-내곡동(8명)-중앙동(6명)-홍제동(6명)-성산면(5명)-포남2동(4명)-교1동(4명)-옥천동(4명)-옥계면(3명)-초당동(2명)-연곡면(2명)-경포동(1명)-교2동(1명)-사천면(1명)-강동면(1명)-구정면(1명)'순으로 파악됨.
- 2) 동/읍면 지역으로 분류하면, '동지역' 69명(75.0%), '읍면지역' 23명(25.0%)으로 나타남. '동지역'에서는 '성덕동', '강남동', '포남1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주문진읍'에 가장 많이 거주함.

라. 한끼드림을 신청한 경로

[표] 신청경로	계	복지관 직원	주민센터 직원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이·통장	지인 및 이웃	자발적 신청	기타
명	92	12	18	35	2	2	2	21
%	100	13.0	19.6	38.0	2.2	2.2	2.2	22.8

- 1) '요양보호사(35명)-기타(21명)-주민센터 직원(18명)-복지관 직원(12명)-이·통장(2명)-지인 및 이웃(2명)-자발적 신청(2명)' 순으로 조사됨. 특히, 공공/돌봄 인력의 소개와 연계 비중이 높음. 한편, 경로가 '복지관 직원'인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사례의 방문인 경우가 많았음.
- 2) '기타' 응답으로는 농아인협회(9명), 지체장애인협회(7명), 정신건강복지센터(1명), 가족(1명), 초록우산(1명)이 언급됨. 특히, '기타'경로로 신청한 경우 '75세 미만' 10명으로 가장 많음.

마. 이용 기간에 따른 개인적 사항 분류

단위: 명/(%)

[표]개인적사항 (이용기간분류)	계	성별		연령대			가구 유형		장애 현황		이동유형		
		남성	여성	75세 미만	75세 이상 85세 미만	85세 이상	1인 가구	동거 가구	비장애	장애	혼자 이동	도구 사용/불가	
계	92	31 (100)	61 (100)	32 (100)	39 (100)	21 (100)	76 (100)	16 (100)	40 (100)	52 (100)	40 (100)	52 (100)	
이용 기간	1년 미만	15 (16.3)	5 (16.1)	10 (16.4)	6 (18.8)	5 (12.8)	4 (19.0)	12 (15.8)	3 (18.8)	8 (20.0)	7 (13.5)	4 (10.0)	11 (21.2)
	1년 이상 2년 미만	52 (56.5)	17 (54.8)	35 (57.4)	16 (50.0)	25 (64.1)	11 (52.4)	43 (56.6)	9 (56.3)	20 (50.0)	32 (61.5)	26 (65.0)	26 (50.0)
	2년 이상	25 (27.2)	9 (29.0)	16 (26.2)	10 (31.3)	9 (23.1)	6 (28.6)	21 (27.6)	4 (25.0)	12 (30.0)	13 (25.0)	10 (25.0)	15 (28.8)

- 1) ‘이용 기간’을 보면, ‘1년 미만’ 15명(16.3%), ‘1년 이상 2년 미만’ 52명(56.5%), ‘2년 이상’ 25명(27.2%)으로 파악됨. 그 외 ‘성별’, ‘연령대’, ‘가구 유형’, ‘장애 현황’, ‘이동유형’에 따른 큰 특이 사항은 없음.
- 2) 전출·사망 외에도 한끼드림 ‘선정-모니터링-재상담’ 과정을 통하여 특정 이용자가 한끼드림 이용 권리를 독점하지 않고, 지역 상황과 개인별 욕구 및 문제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권리를 고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바. 한끼드림 이용자 전반적 만족도

[표]전반적 만족도	계	1	2	3	4	5	Mean	SD
명	92	2	-	7	11	72	4.64	0.806
%	100	2.2	-	7.6	12.0	78.3		

- 1) 한끼드림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64점으로 조사됨.
- 2) 100점 환산 시, 92.8점으로 확인됨.

단위: 명/(%)

[표]유형별 전반적 만족도		명	Mean	SD
성별	남성	31	4.74	0.575
	여성	61	4.59	0.901
연령대	75세 미만	32	4.63	0.833
	75세 이상 85세 미만	39	4.56	0.912
	85세 이상	21	4.81	0.512
가구 유형	1인 가구	76	4.59	0.867
	동거가구	16	4.88	0.342
이용 기간	1년 미만	15	4.80	0.561
	1년 이상 2년 미만	52	4.69	0.643
	2년 이상	25	4.44	1.158
장애 현황	비장애	40	4.45	1.04
	장애	52	4.79	0.536
이동유형	혼자 이동	40	4.70	0.648
	도구사용/이동불가	52	4.60	0.913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도는 확인되지 않음

- 3) ‘성별’에 따른 만족도 분석 결과, ‘남성’ 4.74점, ‘여성’ 4.59점으로, ‘남성’의 만족도가 소폭 높음.
- 4) ‘연령대’에 따른 분석 결과, ‘75세 미만’ 4.63점, ‘75세 이상 85세 미만’ 4.56점, ‘85세 이상’ 4.81점으로, ‘85세 이상’ 이용자 만족도가 소폭 더 높음.
- 5) ‘가구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1인 가구’ 4.59점, ‘동거가구’ 4.88점으로, ‘동거가구’의 만족도가 소폭 높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동거가구’가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를 풀이하면, 한끼드림 표적 집단 특성상 장애,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사례가 많아, 가족 일원 중 한 명이라도 식생활 돌봄(한끼드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됨.
- 6) ‘이용 기간’에 따른 분석 결과, ‘이용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결론에서 서술함.
- 7) ‘장애 현황’에 따른 분석 결과, ‘비장애’ 4.45점, ‘장애’ 4.79점으로, 장애가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 8) ‘이동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혼자 이동’ 4,70점, ‘도구사용/이동불가’ 4.60점으로 조사됨.

사. 한끼드림 꾸러미의 조리법(레시피) 이용 현황 분석

단위: 명/(%)

[표] 특성별 조리법 주된 이용 현황		계	성별		장애여부		이동유형	
			남성	여성	비장애	장애	혼자 이동	도구 사용/불가
계		92	31 (100)	61 (100)	40 (100)	52 (100)	40 (100)	52 (100)
제공된 조리법 주된 이용 현황	한끼드림 포장 안에 요리법이 있는지 모름	8 (8.7)	5 (16.1)	3 (4.9)	2 (5.0)	6 (11.5)	4 (10.0)	4 (7.7)
	요리법을 활용하지 않음	26 (28.3)	6 (19.4)	20 (32.8)	10 (25.0)	16 (30.8)	7 (17.5)	19 (36.5)
	요리법을 활용하기 어려움	14 (15.2)	6 (19.4)	8 (13.1)	5 (12.5)	9 (17.3)	8 (20.0)	6 (11.5)
	요리법을 활용하여 조리	38 (41.3)	13 (41.9)	25 (41.0)	21 (52.5)	17 (32.7)	20 (50.5)	18 (34.6)
	기타	6 (6.5)	1 (3.2)	5 (8.2)	2 (5.0)	4 (7.7)	1 (2.5)	5 (9.6)

- 1) 주 1회 한끼드림 꾸러미를 전달할 때, 단순히 식재료만 포장하지 않고 영양사가 권장하는 식재료 활용 방법(조리법)을 첨부하고 있음(2023년부터 실시).
- 2) 이에, 조리법의 주된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분석한 결과, ‘한끼드림 포장 안에 요리법이 있는지 모름’ 8명(5.7%), ‘요리법을 활용하지 않음’ 26명(28.3%), ‘요리법을 활용하기 어려움’ 14명(15.2%), ‘요리법을 활용하여 조리’ 38명(41.3%), ‘기타’ 6명(6.5%)으로 조사됨.
※기타: 머느리 조리, 영양보호사 도움, 기존 조리법 활용 등
- 3) 대다수 이용자는 조리법이 매주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전체 중 41.3%의 이용자는 조리법을 활용함. 다만, 조리법이 있는지 모르는 이용자도 여전히 있으므로, 전달 과정의 개선 대책이 요구됨.
- 4) ‘조리법을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중도 15.2%로 높지는 않으나, 고령, 신체 건강, 장애, 비문해, 조리 미숙, 기본 재료 부족 등의 이유로 조리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음. 현장 실천 과정에서 추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도출 해야 함.
- 5) 한편, ‘여성’ 중 ‘조리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데, 모니터링 기록을 참고하면, 조리법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기호에 맞게 식재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또는, 영양보호사의 식생활 지원).

아. 한끼드림 이용자의 추가 지역사회 돌봄 욕구

[표] 추가 지역사회 돌봄 욕구(가장 필요한 1개만 선택)	명	%
계	80	100
다른 사람과 모임 활동	3	3.8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3	3.8
심리·정서 지원(상담, 치료)	3	3.8
주거환경 지원	22	27.5
건강·의료 지원	16	20.0
대형 세탁 지원	11	13.8
유용한 복지 및 생활정보 전달	9	11.3
기타	13	16.3

※결측값 12명

1) 한끼드림(식생활 돌봄) 욕구 외 건강 약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지역사회 돌봄 욕구를 물어본 결과, ‘주거환경 지원’ 22명(27.5%), ‘건강·의료 지원’ 16명(20.0%), ‘대형 세탁 지원’ 11명(13.8%), ‘유용한 복지 및 생활정보 전달’ 9명(11.3%), ‘다른 사람과 모임 활동’ 3명(3.8%),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3명(3.8%), ‘심리·정서 지원(상담, 치료)’ 3명(3.8%) 순으로 조사됨.

※기타: 부식만 필요, 다른 복지 불필요, 냉방기기 지원 등

2) 2022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한끼드림)의 결과와 유사한 순(건강·의료 지원-집수리-세탁지원-돌봄 지원-상담-기타)으로 조사됨. 특히, 두 조사의 문항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건강·의료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는 계속 큰 상황임.

자. 한끼드림 자원봉사자와의 주된 관계

[표] 당사자가 생각하는 한끼드림 자원봉사자와의 주된 관계	명	%
계	90	100
자원봉사자를 모름	3	3.3
인사만 나눔(부식만 전달)	25	27.8
단순 일상생활 이야기	17	18.9
건강 상태 등 특이 사항 확인(모니터링)	27	30.0
기타	18	20.0

※결측값 2명

1) 작년 마주하다 조사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분석 결과, ‘건강 상태 등 특이 사항 확인’ 27명(30.0%), ‘인사만 나눔(부식만 전달)’ 25명(27.8%), ‘기타’ 18명(20.0%), ‘단순 일상생활 이야기’ 17명(18.9%), ‘자원봉사자를 모름’ 3명(3.3%) 순으로 조사됨.

※기타: (협회)방문 수령, 사회복지사 방문, 누구인지 소개가 없어 서먹함, 소통 어려움, 병원 방문, 돌봄 인력 대리 수령 등

2) 한끼드림 담당자 추가 확인 결과, 장기 자원봉사자, 단체 자원봉사자는 한끼드림 이용자와 관계 형성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거나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없는데, 신규 개인 자원봉사자는 단순 부식 전달에서 그치는 것으로 파악함.

차. 한끼드림을 이용하고 나서 변화한 점

단위: 명/(%)

[표] 한끼드림 이용 후 변화 정도		1	2	3	4	5	명	Mean	SD
생활	경제적 도움 정도	2 (2.2)	-	2 (2.2)	18 (19.8)	69 (75.8)	91	4.67	0.731
	장보기 도움 정도	1 (1.1)	-	4 (4.4)	19 (20.9)	67 (73.6)	91	4.66	0.670
	주관적 건강(영양) 도움 정도	1 (1.1)	-	8 (8.8)	22 (24.2)	60 (65.9)	91	4.54	0.750
정서	일상생활의 즐거움 정도	1 (1.1)	-	12 (13.2)	23 (25.3)	55 (60.4)	91	4.44	0.806
	외로움(고립) 완화 정도	2 (2.2)	-	17 (18.7)	23 (25.3)	49 (53.8)	91	4.29	0.922
빈도		91							
Mean		4.52							

※결측값 1명

- 1) 한끼드림을 이용하고 나서 이용자가 변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한끼드림 선정 기준에 관련된 사항(생활, 정서)을 분석한 결과, 평균 4.52점으로 조사됨(100점 환산 시 90.4점).
- 2)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경제적 도움 정도’ 평균 4.67점, ‘장보기 도움 정도’ 4.66점, ‘주관적 건강(영양) 도움 정도’ 4.54점, ‘일상생활의 즐거움 도움 정도’ 4.44점, ‘외로움(고립) 완화 정도’ 4.29점 순으로 나타남. 참고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평가는 2023년 마주하다 조사 보고서(장수식당&한끼드림 인터뷰)에서도 유사하게 언급됨.
 ※경제적 부담 완화 실질적인 도움이 됨, 균형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됨,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 장보기 부담이 완화됨.
- 3) 일상생활에 물리적 여건에 도움을 준 생활 영역에서는 전체 평균을 웃도는 반면, 정서 영역은 평균보다 낮음. 본래 재화 제공을 통한 식생활 돌봄이라는 한끼드림 사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용자 선정 과정에서도 정서 상태에 관한 비중이 높지 않음.
- 4) 그러나, 지역사회 변화에 따라 정기 자원봉사자를 통한 인간적 관계 형성과 고립 예방도 중요한 만큼 사업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특히, 신체 기능이 낮은 ‘85세 이상’ 이용자는 ‘외로움 완화 정도’가 3.90점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함.

05 결론 도출

가. 한끼드림 신청·발굴 및 선정 과정

- 1) 현재 한끼드림 접수 및 발굴은 복지관, 지자체(찾아가는 보건복지), 요양보호사, 이웃, 통장, 협회, 당사자 직접 신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기존에는 공공을 중심으로 발굴 및 연계되다가,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이웃을 통해 한끼드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다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전기 남성 노인 대다수는 장애인 협회-농아인, 청각, 지체 등-가 발굴한 사례). 한편, 복지관 직원을 통하여 신청한 사례도 실천 경험상, 공공이나 복지기관이 연계하여 첫 방문을 우리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진행한 경우가 많기에 이용자로서는 혼동할 가능성이 있음.
- 2) 이 조사 결과의 핵심은 한끼드림 프로그램을 이용할 표적 집단을 찾고, 연계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크게 요구된다는 것임. 다만, 한끼드림은 고유한 접수 및 선정 과정이 있어서, 지역사회가 선정 결과를 오해(신청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병행하여야 함. 특히, 사례 연계된 모든 당사자에게 식생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한정된 자원의 배분 책무성으로 인해 종종 선정되지 않기도 하는데, 연계 기관이나 이웃, 요양보호사로서는 선의의 의도로 복지관에 연계하였으나, '거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담당자가 유의해야 함(모든 사례 정보를 전달할 수 없지만, 상담 및 선정 정황을 충분히 설명).
- 3) 또한, 지역사회가 한끼드림 이용자를 발굴 및 연계할 때, 1차 스크리닝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 누리집 등에 기본적인 한끼드림 신청·이용 정보를 게재해야 함. 무엇보다 복지관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 정보를 쉽게 열람하도록 하면, 기존에는 한끼드림을 아는 지자체 담당 주무관, 민간 단체, 요양보호사만 한끼드림을 신청해 왔다면, 당사자를 포함한 일반 지역주민도 한끼드림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수행 인력 대비 많은 신청 민원이 몰리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전에 '노인 영양 상태 자가 평가도구'¹⁾를 활용하여 자가 진단하거나, 거동 시 도움 필요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청하도록 신청 과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만약, 대기인원이 있으면 현재 대기인원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것도 도움 되겠음. 한편, 지자체(읍면동)는 주기적으로 담당 주무관이 변경되므로, (이용 대기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복지관에 수시로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요가 높은 읍면동은 주무관이 변경될 시 주기적으로 교류해야 함.
- 4) 현재 한끼드림 이용자가 살고 있는 지역 중 읍면지역의 비중은 25%로 동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전달 과정의 어려움이 큼(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의 어려움). 그러나, 강릉시 읍면지역의 고령화 수준은 동지역보다 훨씬 높아서, 노인 식생활 돌봄 수요는 여전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강릉시 보조금을 통해 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복지시설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식생활 돌봄을 비롯한 복지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함(담당자 간 간담회, 대화의 기회).

1) 질병관리청(국가건강정보포털) 누리집 참고

나. 한끼드림 선정 기준표의 적절성

- 1) 현재 한끼드림은 신청 및 발굴로 사례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상담한 후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 건강, 정서,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복지관에 와서 식사하는 장수식당과 달리, 식재료를 직접 집 앞까지 배달하는 사업이므로, 나이, 저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으로 장보기 등 외부 활동 제한 여부를 고려하는 것임.
- 2) 한끼드림 이용자의 약 65%는 후기 노인인 우리 복지관의 다른 식생활 돌봄 사업인 장수식당 후기 노인 비중보다 큼. 후기 노인이 주 이용 집단이므로, 선정 기준표에서 후기 노인의 나이 구분을 더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음. 특히, 85세 이상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85세 이상 인구 집단이 다른 노인인구와 또 다른 특성은 없는지 실천 과정에서 파악 하여, 추가 복지 욕구에 대응하거나, 선정 과정에 반영해야 함.
- 3) 한편, 강릉시에서 본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식사 배달 지원사업 전체 이용자에게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시 전체 무료 급식 이용자 중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중에 비해서 본 복지관의 한끼드림 이용자는 42.5%에 불과함(강릉시 조사는 대외비 자료인 관계로 비공개). 본 복지관의 선정 기준이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한 덕분에, 자원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짐. 이와 관련하여, 이용 후 변화된 수준도 전체 평균 4.52점으로 높고, 전반적 만족도 평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도구 사용 비중이 높은 85세 이상 집단’과 ‘장애’ 집단이 소폭 만족도가 더 높음.
- 4) 이용 기간 구간에 따라서는 이용자 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특성별 이용자 분포도 크게 튀는 집단이 없게 운영되고 있음. 본 사업이 추구하는 표적 집단이 고르게 신청, 발굴, 모니터링 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욕구 및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도와서 전반적인 접수-모니터링-종결 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촘촘한 스크리닝 과정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추가 후원금을 투입하여 복지 사각 지대의 식생활 돌봄을 함께 돕고, 지역사회 도시락 업체 후원으로 긴급 먹거리 수요가 있는 가구에 도움을 주며, 기본적인 지역사회 돌봄 요구에 대응해야 함(현재도 수행하고 있음).

다. 한끼드림 운영과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강화

- 1) 현재 주 1회 한끼드림 꾸러미를 전달할 때, 식재료 포장과 함께 영양사가 권장하는 조리법을 제공함. 조리법을 활용하는 비중이 약 41%로, 담당자 예상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조리법을 활용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조리법 제공을 유지해야겠음. 그러나, 한끼드림 꾸러미 안에 조리법이 있는지 모르는 이용자가 아직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담당자가 예상했을 때는, 조리법을 A4 크기로 인쇄 후 반으로 접어서 꾸러미에 넣고 있어서, 꾸겨지거나, 훼손되어 읽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음. 접어서 제공하기보다 시인성 좋은 크기로 인쇄하여(A5), 꾸러미에 훼손하지 않고 포장하는 방식(종이봉투, 테이프 부착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2) 조리법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중이 약 15%로, 고령이나 신체 건강, 장애, 비문해 등의 요인이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쉬운 설명(그림, 어휘 선택 등)이 동반되는지 성찰이 필요함. 또는, 조리 미숙으로 인해 조리법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2021년 행복성장 4UP에서 시도하였던 ‘집밥 남선생’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찾아가는 요리법 특강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음.

- 3) 기본 재료 부족이나 조리 도구가 부족하여 식생활이 어렵다면, 복지관 내 다른 사업과의 연계(사례관리, 지역사회 보호, 후원품 연계)나 외부 공모를 통한 자원 개발을 검토해야 함. 특히, 한끼드림 특성상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없다면, 이용이 어려우므로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주거개선을 우선하는 것도 필요함. 혹시 반찬 제공 필요도가 높은 경우 후원 도시락 연계나 외부 자원 개발이 필요함. 지속하여 반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면, 강릉시와의 논의가 요구됨.
- 4) 아울러, 한끼드림 이용자의 다른 복지 욕구(경제적 지원 외)를 살펴보면, 주거환경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2년 만족도 조사에서도 2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한끼드림 이용자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복지 욕구로 보임. 그러나, 주거환경 지원은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선불리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임. 다만, 주거환경 지원의 범위는 다소 폭이 넓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주거 지원 욕구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이 요구됨(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담당자와의 관계성 강화 전제).
- 5) 현재 복지관의 주거 지원은 사례관리 또는 마을관리소(강남동 권역)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하기 전에 공공의 주거개선 자원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함.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 자원을 개발하여 주거복지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음. 이 과정에서는 한끼드림 담당자-사례관리, 마을관리소 담당자 간 유기적인 소통이 요구됨. 혹은 간단한 집수리 욕구라면, 마을활동가나 강릉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것도 방법임.
- 6) 한편, 복지 정보제공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대개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관계로, 인쇄물이나 말로 전달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제시됨. 첫째, 조리법을 전달하는 방식을 빌리거나 둘째, 한끼드림 자원봉사자가 직접 복지정보를 전달하도록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임.
- 7) 대형 세탁지원의 경우, 이미 많은 이용자가 늘해랑 돌봄 빨래방을 알고, 이용하고 있어서 추가 돌봄 욕구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용자들이 있는 만큼 신청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규 한끼드림 이용자는 늘해랑 돌봄 빨래방을 다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할 때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조직 내에서 협의가 필요함(지역사회 보호 사업 간 연계 강화). 물론, 한끼드림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당사자도 늘해랑 돌봄 빨래방은 요건에 맞을 수 있으므로, 미신청 안내 시 늘해랑 돌봄 빨래방과 같은 문턱이 낮은 복지 서비스 이용 안내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음.
- 8) 건강·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으나, 전반적인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해 질문함. 2022년 조사 때는 1순위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2순위로 낮아졌고, 주로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건강·의료 지원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긴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례관리 당사자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함.

라. 한끼드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조직화

- 1) 한끼드림 자원봉사자는 단순 부식 꾸러미 전달을 넘어,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욕구 및 문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당사자의 일상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조사 결과 자원봉사자를 잘 모르는 이용자가 있었는데, 추가 확인을 해보니 단체 봉사자의 순환, 병원 방문 등으로 외출하고 있어서 서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현관문까지 나올 수 없는 사례가 있었음. 추가로, 기타 사항을 보면, 특정 거점 공간 방문 수령, 요양보호사의 대리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음.

- 2) 또한,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부식만 전달받은 사례도 27.8%로 조사되었는데,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제공자 중심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봉사자-이용자 간 신뢰 관계 형성과 오고 가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봄.
- 3) 한편, 오랫동안 한끼드림 운영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당사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 상태 등 특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오래 활동한 만큼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역량과 당사자를 공감하는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또는, 개인의 역량 차이일 수도 있으나, 이와 별개로 한끼드림 자원봉사자가 오랫동안 활동하려면 단순 부식 전달 외에도 목표 의식을 가지도록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봄.
- 4)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지속 의지 영향 요인 분석’²⁾ 연구를 보면, 참여동기 수준,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정서적·사회적 인정 보상, 업무의 적절성이 자원봉사 지속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동기 종류는 각자 다르지만, 2022년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따르면 본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주된 동기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라는 이타적 동기로 파악됨. 따라서, ‘나’ 자신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명확하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관련하여, 담당자로부터 성과를 공유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당사자로부터는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겠음.
- 5) 특히, 당사자로부터의 반응은 ‘노인자원봉사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³⁾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 지속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자원봉사자-이용자 간 관계 형성은 자원봉사자의 동기 강화, 지속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자원봉사자가 관계 형성과 대화를 잘 이어가려면, 최소한 기초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사전 교육 후 투입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조직화 사업의 활동가 교육과 연계하여 역량 강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음. 봉사자의 추가 모집을 통해 1인당 방문해야 하는 가구의 수를 줄여서,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임. 개인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어렵다면, 기업, 단체에 자원봉사 연계를 요청하면 좋겠음.
- 6) 한편, 다른 봉사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자원봉사자 지지 격려 서비스에 초대하여 봉사자 간 교류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해볼 만한 시도임. 소속감 증진을 위한 한끼드림 자원봉사자 집단명(애칭)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음(한끼드림 드리머즈 등).
- 7) 앞으로 계속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책무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상대적으로 고립 위기가 높은 만큼, 한끼드림에서도 자원봉사자-당사자 간 관계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고립도가 높은 이용자는 본 복지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마을활동가를 소개하여 안전한 관계망을 만드는 시도도 필요하겠음.

2) 임숙자, 임복희, 하태수 (2023).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지속 의지 영향 요인 분석. 지역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3) 서연석, 하영진, 오세영 (2018). 노인자원봉사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제34집 2호

마. 한끼드림 평가 체계

- 1) 전반적인 만족도는 4.64점으로 2022년 조사 대비 100점 환산 기준으로 0.8점 올라 92.8점을 기록함. 유형별 만족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남성, 85세 이상 노인, 동거가구,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소폭 만족도 높음.
- 2) 그러나, 이용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조금씩 낮았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이용하면 개인의 수요는 점점 다양해지지만, 단체 식사배달 사업 특성상 구성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재료 다양성과 양, 개인의 저작 기능에 따른 식재료 기호도 차이는 2022년 만족도 조사부터 언급된 사항이기도 함.
- 3) 한편, 한끼드림 이용 후 생활상의 개선이 정서적인 측면보다 더 잘 이뤄짐. 본래 재화를 나누는 사업이므로, 목표한 바를 적절히 이루고 있다고 보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예방 목표에 대응 방안이 필요함.
- 4) 올해 처음 한끼드림 이용 후 변화 사항을 파악하기 시작함. 만약, 앞으로 한끼드림 만족도, 성과 평가를 체계화한다면, 2~3년 주기로 만족도, 변화 수준, 영양상태 자가 평가, 식생활 현황 파악 등을 통할 수 있겠음. 이를 위해, 평소 한끼드림 이용자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상당지에 기록된 주요 개인적 사항은 통합 명단에 함께 기재하여 이용자 모니터링 원활하도록 구성).

2024년 재난대응복지사업

임대 단지 안전 약자 현황조사 보고서

“아파트에서 노상 불 났다고 이러면서 방송하지. 대피하라고. 근데 10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나 같은 거 반도 못 내려가. 빨리 걷지도 못해.”

작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처음 구상한 질문지에도 없던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민께서는 불이 나면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살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편리한 아파트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사가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주민을 도울 때는 ‘주거 상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실천을 합니다. LH 입암 3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은 그러한 지역주민이 안전한 주거를 갖게 하는,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복지관이 있는 아파트에는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안전 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대응은 복지 영역과 조금 거리가 있는 실천 영역이지만, 매슬로우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욕구’ 해결도 개인의 주요 과업입니다. 개인이나 지역 여건으로 인해 그것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강릉시는 산불,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당사자와 복지관이 개별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주택관리공단, 강릉시(성덕동)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는 상상을 해봅니다. 재난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보를 잘 전달하고,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마을과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관으로서 우리 마을의 안전을 지켜 입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01 조사개요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약자 현황조사로 밝힌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와 공유 재난 대응 강화 방안을 만들어 거주지 안전 인식 수준 강화 		
과업기간	예비조사	1. 23.(화)~3. 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관리공단 입암3 관리소와 협력 논의 예비조사 기획 및 진행, 분석 조사 결과 욕구가 더 많은 집단을 표적 조사하기로 결론
	사전준비	4. 23.(화)~5. 1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파악을 위한 문항 보완 사전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주민센터, 입암3 관리소와 협력 논의
	조사진행	5. 27.(월)~7. 19.(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자율 참여 기간(5월 27일~6월 14일) 2차: 1촌 돌봄단 조사원 투입(6월 10일~7월 12일) 3차: 자율 참여 기간(7월 15일~7월 19일)
	결과분석	7. 22.(월)~9. 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처리 및 자료 코딩 조사 분석 및 평가 분석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자발 참여 또는 1촌 돌봄단 조사원 투입)		
조사대상	LH 입암 3단지 75세 이상 노인(단, 302동은 예비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하므로 65세 이상), 장애가 있는 입주민 413명 중 실제 328명 조사 참여 완료		
분석방법	SPSS 29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단, 통계적 유의는 확인하지 않음)		
수행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전근홍 협력 기관 주택관리공단 입암3 관리소, 성덕동 주민센터 		
활용방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논의		
조사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단위로 조사했으나, 가구원별로 특이 사항이 있는 집은 개별로도 조사에 참여하여 욕구 및 문제가 더 큰 가구의 의견이 분석에 더 많이 반영되었을 수 있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기초적인 조사이므로, 조사 항목의 수준과 분석의 한계가 명확함. LH 입암 3단지에 한하여 조사했으므로 다른 지역 또는 아파트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02 조사 항목

분류	세부 항목
개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 주소, 나이, 함께 사는 사람, 장애 유형, 장애정도
당사자의 건강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유형, 청력, 시력, 인지·판단 특이 사항
재난 관련 욕구 및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발생 시 욕구 및 문제 도와줄 이웃의 유무 집에 주로 있는 시간대

03 조사하는 배경

가. 조사 전 필드리서치(입주민 간단 인터뷰 약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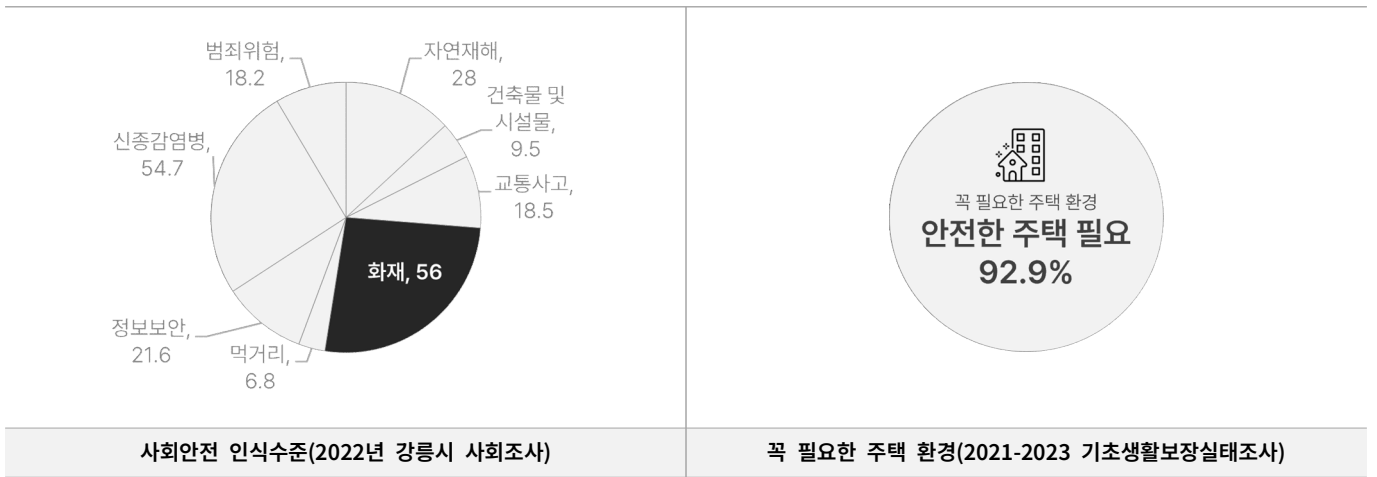
구분	언급한 내용
대피 방법을 잘 모르거나 결정에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비상벨이 울릴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우유부단한 것 같고...
비상벨 (오)작동 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벨이 울릴 때마다 겁이 덜컥 나요. 나는 잘 걷지를 못하니 옆집 사람한테 알아봐 달라고 해요. 내가 심장질환이 있어 빨리 뛰지도 못하고, 울릴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고 두려워요.
거동이 불편하여 생존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이 불편해서 보행기를 끌고 다니거든요. 동작이 느려서 다른 사람에 의지해야 할 것 같아요. 동네에 대피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나 같이 높은 층에 살면 그냥 죽은 수밖에 없죠.
실질적이며, 맞춤형 대피 방법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작 잘 못할 것 같다. 나한테 맞는 대피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15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항상 문이 잠겨 있어서 대피해야 할 때 못 쓸 것 같아 걱정된다.

나. 계속되는 크고 작은 아파트 사고에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감 확산

- 작년 25일, 성탄절에 사람들의 많은 안타까움을 사는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고4>가 있었음*. 연일 보도된 뉴스에는 한 가족의 비극과 피해 입주민이 겪은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음. 더 탐색해 보니 화재 사건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임5).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뉴스에 나오더라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고들도 많은 것으로 보임. 강릉에도 올해 2월 중 노암동 아파트 화재 소식을 접할 수도 있었음. 이외에도 과거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의 화재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보통 재난·재해는 사회적 약자일 때 더욱 예방하기 힘들고, 대응하기도 힘들어서 우리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강릉시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사회 안전 인식 수준 중 <화재 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56%). 팬데믹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신종감염병 불안 수준이 54.7%인 것을 보면, 화재 불안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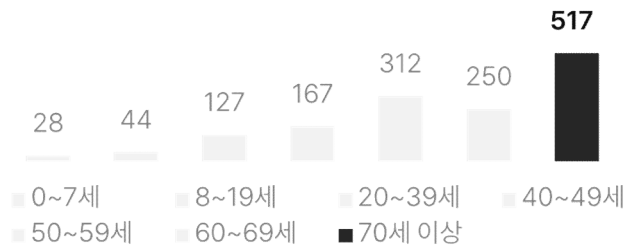
4)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어린 두 아이 지키고父는 숨져(이데일리, 12월 25일)

5) 남양주 화도읍 아파트 13층서 화재(파이낸셜뉴스, 1월 8일) / 강릉 아파트에서 한밤중 화... 2명 연기 흡입(연합뉴스, 1월 6일)수원 아파트서도 화재... 에어프라이어 켜놓고 잠들어(데일리안, 11월 27일) 등



다. 공동주택 화재 피해의 심각한 현황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2만 3,471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332명, 부상자는 2,425명 발생함⁶⁾. 2023년 아파트 화재 건수 2,993건 중 인명 피해는 405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으로 기록됨⁷⁾. 2022년 강릉시 화재 인명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로 사망 4명, 부상 10명임(전년 대비 42.9% 증가). 2021년 기준, 강릉시 공동주택 화재도 전년 대비 15건에서 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며 공동주택 화재의 피해 수준이 심각함⁸⁾.
- 또한, 주택화재의 가장 큰 피해 연령대는 노년층으로 나타났는데(최근 10년간 화재 사망자 70세 이상이 571명으로 가장 큼), 복지관이 위치한 LH 입암 3단지 입주인 다수도 노년층으로 확인됨(고령자 비중 약 59.7%). 더불어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됨.



소방청 누리집 - 주택화재통계

라. 재난 발생 시 화살촉은 안전 약자에게 향하지만, 여전히 대응 방안은 부족

- 강릉시의 최근 대형 화재 피해를 떠올려 보면, 경포(난곡동) 일원의 대형 산불이 있었음. 갑자기 닥친 산불에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주민과 학생들은 빠르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이영양증 환자와 60대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대피에 어려움을 겪다가, 장애인복지관의 도움으로 겨우 대피할 수 있었음. 장애인 복지관이 아니었으면 재난 사각지대에서 안전 약자가 더 큰 비극을 겪었을 수 있었음. 이처럼 노인, 장애인은 안전 약자로서 재난 발생 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⁹⁾.

6) '공동주택 화재'로 5년간 332명 숨져...내년부터 안전시설 강화(KBS, 2023년 10월 12일)
 7) 이웃집서 불나면 무조건 밖으로 대피? 그러다 더 큰일 납니다(조선일보, 2024년 1월6일)
 8) 2022년 화재통계연보, 2022강릉통계연보
 9) 강릉 화마에 '전신마비 아들' 화상, 어머니 '팔 골절'...'도움 절실'(뉴스원, 2023년 5월 10일), 아파트 화재로 80대·60대 모자 숨져...주말·휴일 사고 잇따라(한겨레, 2023년 9월 24일)

2) 재난 시 위기 수준이 높은 노인·장애인

구분	내용	출처
재난 시 위기 발생 수준이 높은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은 위기 대처 능력이 낮고, 더 큰 피해를 봄. 세계적으로도 재난 피해자 중 다수 노인(카트리나 허리케인, 우리나라 06년 홍수 등)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1.4%의 안전사고 경험함 (1%p 높음). ADL이 낮은 노인은 대응력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시대의 재난안전망 구축 방안(희망브릿지, 2018)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0), 재난 시 노인의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한국방재학회, 2008)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과 재난 시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화재 사고 비중 높음(0.6명 대비 1.6명) 화재 시 장애인 사망 비율은 57.4%로, 비장애인 12.1% 대비 5배 높음. 소방서 측에서 장애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응 매뉴얼 다수 개정,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특히, 계단대피)함. 장애 유형별 맞춤 매뉴얼 보급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으로 잘 대피하라'는 월체어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 (여성경제신문, 2023년 2월 13일) 장애인 화재사고 사망자 비중, 비장애인의 4.7배...재난안전사고 대책은 '부재' (헬스케어N, 23년 10월 24일) 장애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
낮은 사회계층 재난 위험에 더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관련 항목에서 낮은 사회계층이 평균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피 정보의 충분하지 않다(51.0) - 재난정보 이해 어려움(37.4) - 재난 피해 경험 수준과 회복 수준 낮음 - 재난에 대한 전반적 불안 수준(77.0) - 재난에 대한 불평등 인식 수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계층별 재난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04 입주민 현황 분석

가. 동별 개인적 사항

※단위: n, %

구분	기본 사항			연령대					가구 유형		
	입주민	대상 현황	참여 현황	40세 미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85세 미만	85세 이상	1인 가구	동거 가구	
동	301	167	90	66	12 (7.2)	57 (34.1)	52 (31.1)	34 (20.4)	12 (7.2)	107 (64.1)	60 (35.9)
	302	163	127	94	9 (5.5)	58 (35.6)	33 (20.2)	43 (26.4)	20 (12.3)	131 (80.4)	32 (19.6)
	303	161	102	87	10 (6.2)	47 (29.2)	43 (26.7)	46 (28.6)	15 (9.3)	124 (77.0)	37 (23.0)
	304	177	94	81	18 (10.2)	58 (32.8)	42 (23.7)	43 (24.3)	16 (9.0)	113 (63.8)	64 (36.2)
전체	668	413	328	49 (7.3)	220 (32.9)	170 (25.4)	166 (24.9)	63 (9.4)	475 (71.1)	193 (28.9)	

- 1) 안전 약자 사례조사를 위해 사용한 입주민 명단은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최신화한 명단을 사용함. 당시 입주민 668명 중 조사 대상은 7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입주민 조건으로 413명이었고, 이 중 328명이 조사에 참여함. 단 302동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동이므로, 당시에 참여한 65세 이상 입주민 조사 데이터도 분석에 반영함.
- 2) 입주민 전체 연령 분포에서 65세 이상 입주민이 전체의 약 60%로, 고령화율이 높은 강릉시의 읍·면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높은 상황임.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집단서도, 75세 이상 후기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노인 인구에 이어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170명(25.4%)이고, ‘40세 미만 입주민’은 49명(7.3%)으로 가장 적음.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303동(64.6%)으로 조사됨.
- 3) 가구 유형을 보면, ‘1인 가구’ 475명(71.1%), ‘동거가구’ 193명(28.9%)으로, ‘1인 가구’가 훨씬 많은 상황임. 동별로 보면, ‘302동’ 131명(80.4%), ‘303동’ 124명(77.0%), ‘301동’ 107명(64.1%), ‘304동’ 113명(64.8%) 순으로 파악됨.

나. 동별 장애 현황 분류

※단위: n, %

구분		장애 현황												
		비장애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신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동	301	110 (65.9)	57 (34.1)	14 (24.6)	4 (7.0)	10 (17.5)	7 (12.3)	1 (1.8)	12 (21.1)	8 (14.0)	2 (3.5)	-	-	-
	302	104 (63.8)	59 (36.2)	19 (32.2)	3 (5.1)	6 (10.2)	6 (10.2)	-	14 (23.7)	11 (18.6)	-	1 (1.7)	-	-
	303	109 (67.7)	52 (32.3)	20 (38.5)	5 (9.6)	1 (1.9)	2 (3.8)	-	7 (13.5)	13 (25.0)	2 (3.8)	1 (1.9)	-	1 (1.9)
	304	129 (72.9)	48 (27.1)	17 (35.4)	5 (10.4)	3 (6.3)	3 (6.3)	-	6 (12.5)	9 (18.8)	4 (8.3)	-	1 (2.1)	-
전체		452 (67.7)	216 (32.3)	70 (32.4)	17 (7.9)	20 (9.3)	18 (8.3)	1 (0.5)	39 (18.1)	41 (19.0)	8 (3.7)	2 (0.9)	1 (0.5)	1 (0.5)

‘장애 현황’에 따르면, ‘비장애’ 452명(67.7%), ‘장애’ 216명(32.3%) 순으로 조사됨. 장애 세부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70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 41명(19.0%), ‘지적장애’ 39명(18.1%), ‘시각장애’ 20명(9.3%), ‘청각장애’ 18명(8.3%), 기타 장애 순으로 확인됨. 장애가 있는 입주민 비중이 가장 높은 동은 ‘302동’ 59명(36.2%), 가장 적은 동은 ‘304동’ 48명(27.1%)으로 파악됨. 표로 정리하지 않았으나, ‘장애’ 입주민 중 ‘심한 장애’는 168명(77.8%), ‘심하지 않은 장애’ 48명(22.2%)임.

다. 동별 노인·장애 복합 요건을 가진 입주민 현황

※단위: n, %

구분		노인·장애현황				
		계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비장애 노인	노인이 아닌 장애인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동	301	125	17 (13.6)	68 (54.4)	27 (21.6)	13 (10.4)
	302	126	17 (13.5)	67 (53.2)	30 (23.8)	12 (9.5)
	303	131	14 (10.7)	79 (60.3)	27 (20.6)	11 (8.4)
	304	127	9 (7.1)	79 (62.2)	26 (20.5)	13 (10.2)
전체		509	57 (11.2)	293 (57.6)	110 (21.6)	49 (9.6)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입주민은 총 509명임. 이 중에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57명(11.2%), ‘비장애 노인’ 293명(57.6%), ‘노인이 아닌 장애인’ 110명(21.6%),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49명(9.6%)으로 파악됨. 전·후기 노인이면서 장애가 있는 입주민을 모두 합치면, 106명(20.8%)으로 확인됨.

라. 연령대별 장애 유형

※단위: n, %

구분		장애 유형												
		비장애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신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연령대	40세 미만	38 (77.6)	11 (22.4)	-	-	1 (9.1)	-	-	10 (90.9)	-	-	-	-	-
	40세 이상 65세 미만	121 (55.0)	99 (45.0)	21 (21.2)	9 (9.1)	5 (5.1)	4 (4.0)	1 (1.0)	24 (24.2)	28 (28.3)	6 (6.1)	-	1 (1.0)	1 (1.0)
	65세 이상 75세 미만	113 (66.5)	57 (33.5)	25 (43.9)	1 (1.8)	6 (10.5)	7 (12.3)	-	5 (8.8)	12 (21.1)	1 (1.8)	-	-	-
	75세 이상 85세 미만	128 (77.1)	38 (22.9)	19 (50.0)	7 (18.4)	6 (15.8)	3 (7.9)	-	-	1 (2.6)	1 (2.6)	2 (5.3)	-	-
	85세 이상	52 (82.5)	11 (17.5)	5 (45.5)	-	2 (18.2)	4 (36.4)	-	-	-	-	-	-	-
	전체	452 (67.7)	216 (32.3)	70 (32.4)	17 (7.9)	20 (9.3)	18 (8.3)	1 (0.5)	39 (18.1)	41 (19.0)	8 (3.7)	2 (0.9)	1 (0.5)	1 (0.5)

- 1) 연령대별 장애 비중을 보면,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99명(45.0%)으로 가장 많고, '85세 이상'은 11명(17.5%)으로 가장 적음. '40세 미만'은 '지적장애'가 10명(90.9%)으로 가장 많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정신장애' 28명(28.3%), '지적장애' 24명(24.2%), '지체장애' 21명(21.2%) 순으로 많음.
- 2) '65세 이상 75세 미만'에서는 '지체장애' 25명(43.9%), '정신장애' 12명(21.1%) 순으로 많음. '75세 이상 85세 미만'은 '지체장애' 19명(50.0%), '뇌병변장애' 7명(18.4%), '시각장애' 6명(15.8%) 순으로 많음. '85세 이상'은 '지체장애' 5명(45.5%), '청각장애' 4명(36.4%) 순으로 많았음.

마. 가구 유형별 노인·장애 복합 요건을 가진 입주민 현황

※단위: n, %

구분		노인·장애 복합 요건				
		계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비장애 노인	노인이 아닌 장애인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가구 유형	1인 가구	387	41 (10.6)	237 (61.2)	67 (17.3)	42 (10.9)
	동거가구	122	16 (13.1)	56 (45.9)	43 (35.2)	7 (5.7)
전체		509	57 (11.2)	293 (57.6)	110 (21.6)	49 (9.6)

- 1) 가구 유형별 복합 요건을 가진 입주민 현황을 보면, '1인 가구'는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41명(10.6%), '비장애 노인' 237명(61.2%), '노인이 아닌 장애인' 67명(17.3%),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42명(10.9%)으로 확인됨.
- 2) 한편, '동거가구'는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15명(13.1%), '비장애 노인' 56명(45.9%), '노인이 아닌 장애인' 43명(35.2%),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7명(5.7%)으로 나타나, 동거가구가 상대적으로 장애가 있는 입주민 비중이 더 높음.

05 안전 약자의 재난 관련 욕구 현황 분석

가. 개인적 사항에 따른 재난 대피 관련 신체기능 현황

※단위: n, %

구분	이동 현황						청력			시력			인지·판단			
	혼자	지팡이	실버카	휠체어	불가	기타	특이 없음	청력 저하	장애/질환	특이 없음	시력 저하	장애/질환	특이 없음	치매 진단	장애	
연령대	40세 미만	6 (75.0)	-	-	-	2 (25.0)	-	8 (100)	-	-	5 (62.5)	3 (37.5)	-	1 (12.5)	-	7 (87.5)
	40세 이상 65세 미만	50 (70.4)	5 (7.0)	1 (1.4)	5 (7.0)	9 (12.7)	1 (1.4)	60 (84.5)	8 (11.3)	3 (4.2)	50 (70.4)	19 (26.8)	2 (2.8)	57 (80.3)	-	14 (19.7)
	65세 이상 75세 미만	35 (61.4)	12 (21.1)	3 (5.3)	2 (3.5)	5 (8.8)	-	45 (78.9)	9 (15.8)	3 (5.3)	37 (64.9)	15 (26.3)	5 (8.8)	50 (87.7)	6 (10.5)	1 (1.8)
	75세 이상 85세 미만	69 (48.9)	31 (22.0)	20 (14.2)	9 (6.4)	11 (7.8)	1 (0.7)	90 (63.8)	49 (34.8)	2 (1.4)	72 (51.1)	61 (43.3)	8 (5.7)	127 (90.1)	14 (9.9)	-
	85세 이상	13 (25.5)	18 (35.3)	11 (21.6)	3 (5.9)	5 (9.8)	1 (2.0)	17 (33.3)	31 (60.8)	3 (5.9)	19 (37.3)	29 (56.9)	3 (5.9)	43 (84.3)	8 (15.7)	-
	장애 현황	장애	88 (54.3)	28 (17.3)	11 (6.8)	12 (7.4)	21 (13.0)	2 (1.2)	120 (74.1)	31 (19.1)	11 (6.8)	96 (59.3)	52 (32.1)	14 (8.6)	132 (81.5)	8 (4.9)
	비장애	85 (51.2)	38 (22.9)	24 (14.5)	7 (4.2)	11 (6.6)	1 (0.6)	100 (60.2)	66 (39.8)	-	87 (52.4)	75 (45.2)	4 (2.4)	146 (88.0)	20 (12.0)	-
노인 장애 복합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20 (47.6)	12 (28.6)	3 (7.1)	2 (4.8)	5 (11.9)	-	30 (71.4)	9 (21.4)	3 (7.1)	24 (57.1)	13 (31.0)	5 (11.9)	36 (85.7)	5 (11.9)	1 (2.4)
	비장애 노인	84 (50.9)	38 (23.0)	24 (14.5)	7 (4.2)	11 (6.7)	1 (0.6)	99 (60.0)	66 (40.0)	-	86 (52.1)	75 (45.5)	4 (2.4)	145 (87.9)	20 (12.1)	-
	노인이 아닌 장애	55 (70.5)	5 (6.4)	1 (1.3)	5 (6.4)	11 (14.1)	1 (1.3)	67 (85.9)	8 (10.3)	3 (3.8)	54 (69.2)	22 (28.2)	2 (2.60)	57 (73.1)	-	21 (26.9)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13 (31.0)	11 (26.2)	7 (16.7)	5 (11.9)	5 (11.9)	1 (2.4)	23 (54.8)	14 (33.3)	5 (11.9)	18 (42.9)	17 (40.5)	7 (16.7)	39 (92.9)	3 (7.1)	-
전체	173 (52.7)	66 (20.1)	35 (10.7)	19 (5.8)	32 (9.8)	3 (0.9)	220 (67.1)	97 (29.6)	11 (3.4)	183 (55.8)	127 (38.7)	18 (5.5)	278 (84.8)	28 (8.5)	22 (6.7)	

- 1) ‘이동 현황’을 보면, ‘혼자 이동’ 173명(52.7%), ‘지팡이’ 66명(20.1%), ‘실버카’ 35명(10.7%), ‘이동 불가’ 32명(9.8%), ‘휠체어’ 19명(5.8%), ‘기타’ 3명(0.9%) 순으로 조사됨.
※기타: 자동차, 옆에서 도와주기, 손잡이 잡고 돌아다님 등
- 2) ‘청력 특이 사항’에서는 ‘특이 없음’ 220명(67.1%), ‘(주관적으로 느끼는)청력저하 또는 보청기’ 97명(29.6%), ‘청각장애 및 청력 관련 질환 진단’ 11명(3.4%) 순으로 나타남.
- 3) 한편, ‘시력 특이 사항’은 ‘특이 없음’ 183명(55.8%), ‘(주관적으로 느끼는)시력저하’ 127명(38.7%), ‘시각장애 및 시력 관련 질환 진단’ 18명(5.5%) 순으로 파악됨. 큰 차이는 없으나, 시력 관련 특이 사항이 있는 비율이 청력 특이 사항보다 더 많음.
- 4) 마지막으로, ‘인지·판단 특이 사항’에서는 ‘특이 없음’ 278명(84.8%), ‘치매 진단’ 28명(8.5%), ‘(지적)장애 진단’ 22명(6.7%) 순으로 조사됨.
※이동/시력/청력/인지 등 복합적인 건강 상태 ‘특이 없음’ 88명(26.8%), ‘1개’ 98명(29.9%), ‘2개’ 81명(24.7%), ‘3개’ 46명(14.0%), ‘4개’ 15명(4.6%)으로, 2개 이상의 건강 특이 사항이 있는 약 43%에 달함.
- 5) 신체기능 현황을 개인적 사항 ‘연령대’에 따라 본다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이동하는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임. 이러한 경향은 ‘청력’과 ‘시력’ 특이 사항에서도 비슷함.
- 6) 다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장애 입주민만 응답)’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도구를 사용하는 응답자 중 ‘휠체어’, ‘(혼자)이동 불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한편, ‘인지·판단’에서는 젊은 연령대는 ‘지적장애’ 비중이 높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 집단에선 ‘치매 진단’으로 인한 특이 사항을 주로 언급함.
- 7) ‘장애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비장애’와 ‘장애’ 간 도구 사용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장애’ 입주민의 ‘이동 불가’ 비중이 ‘비장애’의 약 2배로 나타남.
- 8) 다만, ‘청력’과 ‘시력’ 특이 사항에서는 ‘비장애’ 입주민이 특이 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지체 장애’는 비중이 커 이동 관련 사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청력’과 ‘시력’은 세부 장애 유형 내에서 지체 장애만큼 비중이 크지 않고, 대개 비장애 노인이 시력 및 청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집계된 것으로 보임.
- 9) 마지막으로, ‘노인·장애 복합 요건’에 따라 보면,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비율이 ‘노인이 아닌 장애’ 55명(70.5%), ‘비장애 노인’ 84명(50.9%),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20명(47.6%),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13명(31.0%) 순으로 조사됨.
- 10) 장애가 있더라도 젊은 연령대라면 거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구를 사용해야 하면, ‘장애가 있는 전·후기 노인’보다 ‘휠체어 및 이동 불가’ 비중이 소폭 높음. 반면, 노인은 장애가 없더라도 도구를 사용하는 비중이 약 50%로 조사되었는데, 노인 요건에 더하여 장애 요소가 복합적인 경우 도구 사용 비중이 더 높고, 지팡이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 11) ‘청력’ 및 ‘시력’ 특이 사항에서도, ‘노인이 아닌 장애’ 입주민이 특이 사항이 없는 비중이 가장 높고,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은 특이 사항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음.
- 12) ‘인지·판단’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이 특이 사항 비중이 가장 낮고, 다른 집단에서 특이 사항이 주로 확인됨. ‘노인이 아닌 장애’ 집단은 지적장애, 그 외 노인 집단은 주로 치매 진단이 원인임.

나. 개인적 사항에 따른 재난 시 욕구 및 문제

※단위: n, %

구분		재난 시 욕구 및 문제				
		계	실제 재난 시 침착한 대응을 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전달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대피 경보, 표지판 보완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	기타
연령대	40세 미만	7	-	2 (28.6)	5 (71.4)	-
	40세 이상 65세 미만	67	2 (3.0)	10 (14.9)	48 (71.6)	7 (10.4)
	65세 이상 75세 미만	46	2 (4.3)	13 (28.3)	26 (56.5)	5 (10.9)
	75세 이상 85세 미만	137	4 (2.9)	41 (29.9)	86 (62.8)	6 (4.4)
	85세 이상	51	2 (3.9)	5 (9.8)	44 (86.3)	-
장애현황	장애	155	6 (3.9)	27 (17.4)	111 (71.6)	11 (7.1)
	비장애	153	4 (2.6)	44 (28.8)	98 (64.1)	7 (4.6)
노인장애복합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40	2 (5.0)	8 (20.0)	26 (65.0)	4 (10.0)
	비장애 노인	153	4 (2.6)	44 (28.8)	98 (64.1)	7 (4.6)
	노인이 아닌 장애인	74	2 (2.7)	12 (16.2)	53 (71.6)	7 (9.5)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41	2 (4.9)	7 (17.1)	32 (78.0)	-
층	1~5층	105	2 (1.9)	22 (21.0)	70 (66.7)	11 (10.5)
	6~10층	98	5 (5.1)	26 (26.5)	64 (65.3)	3 (3.1)
	11~15층	105	3 (2.9)	23 (21.9)	75 (71.4)	4 (3.8)
가구유형	1인가구	238	9 (3.8)	61 (25.6)	154 (64.7)	14 (5.9)
	2인가구	60	1 (1.7)	9 (15.0)	46 (76.7)	4 (6.7)
	3인가구	6	-	1 (16.7)	5 (83.3)	-
	4인가구	4	-	-	4 (100)	-
전체		308	10 (3.2)	71 (23.1)	209 (67.9)	18 (5.8)

- 1) ‘재난 발생 시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해 보니,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 209명(67.9%),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알려주는 대피 경보 및 표지판의 보완’ 71명(23.1%), ‘기타’ 18명(5.8%), ‘실제 재난 시 침착한 대응을 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전달’ 10명(3.2%) 순으로 조사됨.
- 2) 연령대별로 세분화해도, 모든 연령대에서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2순위는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대피 경보 및 표지판 보완’으로 응답함. 다만, 65세 미만의 집단에서 직접적인 대피 도움 비중이 높다가, ‘65세 이상 8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짐. 그러나, ‘85세 이상’부터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을 요구하는 비율이 커짐.
- 3) ‘장애 유무’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입주민 111명(71.6%)이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반면, ‘비장애’ 입주민은 98명(62.1%) 응답함. 또한, ‘비장애’는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대피 경보, 표지판 보완’ 욕구가 ‘장애’ 집단보다 비교적 큼.
- 4) ‘노인·장애 복합 요건’에 따른 욕구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집단별 응답 비율을 비교했을 때,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7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이 아닌 장애인’ 71.6%,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65.0%, ‘비장애 노인’ 64.1% 순으로 나타남.
- 5) ‘살고 있는 층’에 따른 분석을 보면, ‘1~10층’은 큰 차이가 없으나, ‘11~15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 욕구 비율이 가장 높음. ‘1~5층’은 ‘기타’ 응답에서 ‘필요 없음’을 언급하기도 함.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대피 경보 및 표지판 보완’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큰 차이는 없으나) 6~10층(26.5%)이었음.
- 6) 마지막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2인 이상 가구는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 다만, 가구 단위 조사가 원칙이나, 특이 사항이 많은 가구는 복수의 가구원이 동시에 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고, 2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보다 훨씬 적으므로, 비교의 한계가 분명함. 다만, 단지 내 사회복지 실천 경험상 1인 가구 못지않게 2인 이상 가구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어서, 이러한 응답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됨(2인 이상 가구는 1인 가구 대비 장애 가구가 많기도 함).

다. 신체기능에 따른 재난 시 욕구 및 문제

※단위: n, %

구분	재난 시 욕구 및 문제					
	계	실제 재난 시 침착한 대응을 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전달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대피 경보, 표지판 보완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	기타	
이동 유형	혼자 이동	154	8 (5.2)	51 (33.1)	79 (51.3)	16 (10.4)
	지팡이	65	1 (1.5)	12 (18.5)	50 (76.9)	2 (3.1)
	실버카	35	1 (2.9)	5 (14.3)	29 (82.9)	-
	휠체어	19	-	1 (5.3)	18 (94.7)	-
	이동 불가	32	-	2 (6.3)	30 (93.8)	-
	기타	3	-	-	3 (100)	-

※단위: n, %

구분	재난 시 욕구 및 문제					
	계	실제 재난 시 침착한 대응을 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전달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대피 경보, 표지판 보완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	기타	
청력	특이 없음	202	5 (2.5)	53 (26.2)	128 (63.4)	16 (7.9)
	청력 저하	95	5 (5.3)	15 (15.8)	74 (77.9)	1 (1.1)
	장애/질환	11	-	3 (27.3)	7 (63.6)	1 (9.1)
시력	특이 없음	165	3 (1.8)	47 (28.5)	99 (60.0)	16 (9.7)
	시력 저하	126	6 (4.8)	21 (16.7)	98 (77.8)	1 (0.8)
	장애/질환	17	1 (5.9)	3 (17.6)	12 (70.6)	1 (5.9)
인지판단	특이 없음	258	10 (3.9)	64 (24.8)	167 (64.7)	17 (6.6)
	치매 진단	28	-	4 (14.3)	24 (85.7)	-
	장애	22	-	3 (13.6)	18 (81.8)	1 (4.5)
전체		308 100.00	10 (3.2)	71 (23.1)	209 (67.9)	18 (5.8)

- 1) ‘재난 시 욕구 및 문제’를 ‘이동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1순위는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으로 조사되었으나,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집단은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대피 경보, 표지판 보완’이 다른 집단보다 비중이 큼.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집단은 전체적으로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다소 높는데, 특히 ‘휠체어’와 ‘이동 불가’ 집단이 가장 높음.
- 2) ‘청력’ 및 ‘시력’에 따라 보면, ‘장애/질환’ 집단보다 ‘시력 또는 청력 저하’ 집단이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을 선택한 비중이 더 큼. 관련 장애나 질환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저하가 심리적으로 안전 인식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3) ‘인지·판단’ 영역에서는, ‘치매 진단’ 및 ‘(지적)장애’ 집단이 ‘실제 재난 시 직접적인 대피 도움’을 선택한 비중이 큼. 반면, ‘특이 없음’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대피 경보, 표지판 보완’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 4) 한편, 전체적으로 ‘특이 없음’ 집단에서 ‘기타’ 선택 비율이 높는데, ‘기타’ 내용으로는 ‘도움 불필요’가 가장 많음.

라. 재난(화재)이 발생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 여부

재난(화재)이 발생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 여부	n	%
이웃이 있다	24	7.4
이웃이 없다	299	92.6
계	323	100

‘재난이 발생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 여부’를 보면, ‘이웃이 없다’ 299명(92.6%), ‘이웃이 있다’ 24명(7.3%)로 조사됨. 입주민 다수가 고령 등의 사유로 재난 발생 시 상호 도움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마. 집에 주로 있는 시간대

집에 주로 있는 시간대	n	%	케이스 중 %
종일	246	72.6	75.9
09~12시	13	3.8	4.0
12~18시	17	5.0	5.2
18시 이후	63	18.6	19.4
계	339	100.0	104.6

응답자 중 ‘집에 주로 있는 시간대’는 ‘종일’ 246명(72.6%), ‘18시 이후’ 63명(18.6%), ‘12~18시’ 17명(5.0%), ‘09~12시’ 13명(3.8%) 순으로 조사됨.

06 결론 도출

구분	내용
<p>[결론] 안전 약자의 재난 대비 강화 : 개별화 대응, 기초 관계 만들기</p>	<p>① 재난이 발생하면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위기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큰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음. 조사를 진행한 LH 입암 3단지도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비중이 높은 영구 임대단지로, 재난 대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임.</p> <p>② 실제 이번 조사 모집단 데이터에서도, 입주민 668명 중 안전 약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509명(약 76%)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단, 본격적인 조사에서는 노인 조사 대상군을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75세 이상으로 한정). 또한, 509명 중 노인이면서 장애가 있는 입주민은 106명으로, 다른 집단보다 대체로 신체기능이 좋지 않아 직접적인 대피 지원 욕구가 높음(특히,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 다양한 안전 약자가 거주하는 만큼 대비가 확실해야 함.</p> <p>③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 후기 노인(특히, 85세 이상), 노인이 아닌 장애인, 장애가 있는 전기 노인, 비장애 노인 순(또는 동거가구, 1인 가구순)과 같은 기준으로 ‘가정별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 만들기’, ‘응급 안심 벨 설치**’, ‘재난 경보 체계 개선(쉬운 정보 파악)’, ‘상호 협력 체계 만들기(자력 피난이 어려운 경우 도움 주고받을 이웃)’와 같이 안전 약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이 걱정하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임.</p> <p>*힘이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큰 사람을 옮기려면 이불을 밑에 깔고 옮겨야 하는 것 등¹⁰⁾ **조사 과정에서 주택관리공단 관리소를 통해 일부 안전 약자(휠체어 등)에게 배분 완료</p> <p>④ 이와 관련하여, 시사IN의 재난안전 소셜벤처 라이프인코리아 김동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면, 기존의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과 같은 기초적인 교육 외에도 고령, 장애 특성이 있는 재난 취약 계층에게 맞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함. 실제 재난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예측하여, 일상에서 개별화 교육·훈련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임. 이어서,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조사 사례를 예로 들며, 재난에서의 ‘자조’와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함. 큰 재난일수록 정부의 구조에는 빈틈이 커지는데, 이를 개인과 공동체를 통한 구호로 메꿔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¹¹⁾ 또 다른 기사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당사자가 위험에 처하면 이웃들이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라 함. 아울러, 국제구호활동가들도 공동체가 끈끈하면 재난이 났을 때 구호 활동이 잘 이뤄진다고 언급하며, 공동체 차원에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¹²⁾.</p>

구분	내용
<p>[결론] 안전 약자의 재난 대비 강화 : 개별화 대응, 기초 관계 만들기</p>	<p>⑤ 따라서, 개인이 잘 대피하도록 돕는 교육, 훈련 체계의 개선과 점검도 중요함과 동시에, 공동체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중요함. 현재 입암 3단지는 경로당,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이웃 공동체는 현장 실천 과정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으나, 대체로 공동체 결속이 크지 않은 지역임¹³⁾. 이번 조사에서도 재난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없는 비율이 약 93%에 달하기도 했으므로,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기초 관계에 기반한 개별화 대응 시나리오가 중요하겠음.</p> <p>⑥ 한편, 직접적인 이동상의 어려움 외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이나 청각, 인지 기능에 특이 사항이 있으면(또한, 살고 있는 층에 따라서도) 대피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재난 대응 과정에서 물리적 여건 개선, 소방에서 식별하기 쉽게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p>
<p>[향후 계획] 지역사회 복지관의 재난 시 역할</p>	<p>① ‘재난 피해자의 회복 수준에 대한 지역 공동체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 논문에 따르면, 재난 피해 경험 중 경제, 심리 피해와 회복 수준의 부적인 관계에서 공동체 회복탄력성이 유의한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함. 재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재난 준비도, 신뢰, 효능감, 지역 애착도 등과 관련)이 중요한 것임. 더불어, 앞서 결론에서도 재난 과정에서는 관계망이 중요하므로 지역 사회복지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재난 상황에 ‘같이’ 대비·대응하여 일상성 회복).</p> <p>② 이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는 재난 속의 사회복지사로서 역할로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 체계연결자, 체계개발자, 위로자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함¹⁴⁾. 다음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역할을 본 조사 결론과 다른 연구¹⁵⁾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p> <p>③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재난 대비 교육, 훈련 -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법에 따라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보 제공 - 욕구가 큰 안전 약자부터 재난 대응 시나리오 만들고 훈련 <p>④ 체계연결자(중개자, 사례관리자, 중재자, 옹호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응을 위해 단지 내 기초 관계 만들기(P/G 연계, 층별 인사 나누기 캠페인, 관계 형성 주선, 상호 돌봄을 위한 당사자 조직 등) - 재난 발생 시 개별화를 통한 물질/정서 지원(자기 결정권) - 물리적 여건 개선을 위한 자원 연계(안심 벨, 경보 방식 개선 등) <p>⑤ 체계개발자(프로그램 개발자, 계획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우울 완화, 삶의 질 지원 프로그램 기획(종교, 커뮤니티, 여가, 문화, 등), - 일상성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등(상황별 사전 대비/약속 필요) - 재난 발생 시 복지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과 사전 논의 필요 - 재난 사후에도 당사자를 지속해서 돕기(경포 산불 피해자의 극복/적응 수준 파악 등) - 단지 내 안전 약자 정보 최신화/관리 체계 구축

10) 김다운 기자. (2023년 8월 2일). 재난 대응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닌 이웃이다.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5>
 11) 김다운 기자. (2023년 8월 2일). 재난 대응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닌 이웃이다.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5>
 12) 브라이언 임팩트. 재난 일상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 <https://brianimpact.org/fellow/2626/>
 13)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3). 2023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지역주민 욕구 및 만족도 조사)
 14) 하정미. 폭풍 속을 걷어가는 새끼오리 : 세월호 재난 개입 경험을 중심으로 한 재난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 참고문헌에 한 번에 정리함.

07 참고 문헌(향후 계획)

- 김다운 기자. (2023년 8월 2일). *재난 대응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닌 이웃이다*.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5>.
- 김연희. (2011). 재난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개입전략 : 다차원적 접근 모델. *사회복지연구*, 42(4), 5 - 34.
- 김은혜, 최서경, 노총래. (2022). 재난경험자의 우울, 회복탄력성, 사회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4(2), 317-341.
- 박성현 기자. (2022년 3월 8일). *재난 피해를 위한 지원, 사회복지 영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1>.
- 이가을, 변병설. (2022).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30(1), 255-280.
- 임혜선, 남동엽, 이기영. (2022). 재난피해자의 회복수준에 대한 지역공동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5, 5-30.
- 최지경, 변규리, 김상인. (2020). 재난 발생 시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 생태체계이론의 외체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3), 191-207.
- 하정미. (2018). 폭승 속을 걸어가는 새끼오리 : 세월호 재난 개입 경험을 중심으로 한 재난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6(3), 122-150

MEMO

2024년 연구·조사 I 4차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01 조사개요

조사목적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복지 욕구를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복지 실천 제안		
과업기간	준비	6. 3.(월)~7. 1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설계 회의 조사 계획 확정
	진행	7. 9.(화)~8. 9.(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 진행(사회복지 실습생, 자원봉사자 협조) 이용자 특성에 따라 현장, 인터넷 조사 병행 조사 답례품 제공(인터넷: 기프티콘, 현장: 수건)
	분석	8. 12.(월)~1. 3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처리 및 자료 코딩 조사 개별 담당 분석 통합 평가회의, 분석보고서 작성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단, 현장 참여 시 1:1 대면조사)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누구나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장수식당, 교육문화, 마을관리소 이용자 등) 		
분석방법	SPSS를 활용한 통계 분석(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수행인력	조사연구T/F(전근홍·정신영·이주원·배시영·이수정·조예송·김한나)		
조사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에 따라 응답자를 수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 다만, 복지관과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큰 의미가 있음. 우리 복지관의 실천과 성찰에 도움이 되기 위한 실천적 측면의 의미가 더 큰 조사이므로, 같은 결과를 두고 분석과 통찰, 활용의 범위가 다른 여건에 있는 기관, 연구자와 다를 수 있음. 우리 복지관 실무 현장에서 ‘지금까지’ 유의한 데이터이므로 앞으로 복지 실천 시 자료를 참고할 때는 다른 정책 데이터, 연구 자료와 비교 검증하면서 현장에 적용해야 함. 		
문항개발 참고자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1·2022·2023·2024상반기 조사 자료, 서울복지실태조사, 국민 삶의 질 조사 등		

02 조사 항목

분류	세부 항목	
응답자 유형 구분	① 성별, ② 경제상황, ③ 주거유형, ④ 가구유형, ⑤ 사회참여, ⑥ 돌봄여부, ⑦ 연령대, ⑧ 장애현황, ⑨ 사는동네	
정신건강	① 일주일간 느낀 행복감, 우울감, 스트레스, ② 이웃관계 만족도, ③ 여가생활 만족도, ④ 신체건강 만족도, ⑤ 정신건강 만족도, ⑥ 재난안전 만족도, ⑦ 식생활 만족도, ⑧ 주거환경 만족도, ⑨ 소득 및 경제 만족도, ⑩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 ⑪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⑫ UCLA외로움(성인용 단축형) 척도	
여가 및 사회관계망	①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② 여가를 주로 같이하는 사람, ③ 여가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④ 직접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의 수, ⑤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모임, ② 선호하는 복지 프로그램 유형, ③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 ④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민하는 이유	
강릉종합 사회복지관 만족도	교육문화	① 교육문화 이용 현황, ② 프로그램 선택 시 중요한 요소, ③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④ 동아리 전환 시 참여 여부, ⑤ 동아리 전환 시 미참여 이유
	마을관리소	① 마을관리소 이용 만족도(국민건강보험공단 공통 양식), ② 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장수식당	① 장수식당 이용 만족도, ② 집에서 식사 시 주된 유형, ③ 식사를 거르는 이유, ④ 식당 비상 운영 시 선호하는 대체 운영 방식

03 응답자 특성

가. 연령대에 따른 응답자 분포

- 1) '2024년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지역주민 욕구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538명이고, '남성' 128명(23.8%), '여성' 410명(76.2%)으로 조사됨. 경제 상황에 따르면, '비수급' 373명(69.3%), '수급 및 차상위' 165명(30.7%)이고, 주거유형으로 나누면 '아파트' 402명(74.7%), '아파트 외' 136명(25.3%)으로 나타남.
- 2)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299명(55.6%), '동거가구' 239명(44.4%)이 응답하고, 사회참여(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방법대, 지역동호회 등 참여) 측면에서는 '미참여' 482명(89.6%), '참여' 56명(10.4%)이고, '돌봄 여부'에 따르면, '미이용' 446명(82.9%), '이용' 92명(17.1%)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나누면, '34세 미만(청년층)' 178명(33.1%), '34세 이상 65세 미만(중·장년층)' 149명(27.7%), '65세 이상(노년층)' 211명(39.2%)이 조사에 참여함(앞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부름).
- 3) 성별, 경제 상황, 주거유형, 가구 유형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이용자 집단 및 돌래 이웃의 유형과 유사하게 집계되었지만, 조사에 응답한 연령대 분포를 보면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다양한 의견이 고루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4) 다만,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여성' 응답 비중이 다소 높고, '수급 및 차상위' 중 다수는 '노년층'에 집중된 점, 경제 상황만큼 아니더라도 가구 유형도 '1인 가구' 응답 비중이 '노년층'에 집중된 점은 보고서 해석 과정에서 헤아려야 하는 사항임. 특이한 점은 '청년층'도 '1인 가구'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고, 지역사회 주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임.

단위: 명/%

구분	계	성별		경제상황		주거유형		가구유형		사회참여		돌봄여부		
		남성	여성	비수급	수급/차상위	APT 거주	APT 외	1인 가구	동거 가구	미참여	참여	미이용	이용	
계	538	128 23.8	410 76.2	373 69.3	165 30.7	402 74.7	136 25.3	299 55.6	239 44.4	482 89.6	56 10.4	446 82.9	92 17.1	
연령대	청년층 (34세 미만)	178 24.7	44 75.3	134 98.9	176 1.1	2 63.5	113 36.5	65 54.5	97 45.5	81 100	178 0.0	0 0.0	178 100.0	0 0.0
	중·장년층 (34세 이상 65세 미만)	149 32.2	48 67.8	101 88.6	132 11.4	17 73.2	109 26.8	40 35.6	53 64.4	96 79.9	119 20.1	30 96.6	144 96.6	5 3.4
	노년층 (65세 이상)	211 17.1	36 82.9	175 30.8	65 69.2	146 85.3	180 14.7	31 70.6	149 29.4	62 87.7	185 12.3	26 58.8	124 58.8	87 41.2

<표1>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5) 응답자의 장애 현황에 따르면, ‘비장애’ 476명(88.5%), ‘장애’ 62명(11.5%)이 조사에 참여함. 장애가 있는 응답자 중에는 ‘지체장애’ 26명, ‘신장장애’ 9명, ‘뇌병변장애’ 8명, ‘시각장애’ 5명, ‘정신장애’ 5명, ‘청각장애’ 4명, ‘심장장애’ 3명, ‘지적장애’ 2명, ‘간장애’ 2명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장애가 있는 응답자’ 중 다수는 ‘노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조사 분석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단위: 명/%

구분	계	장애현황												
		비장애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신장	심장	간	
계	538	476 88.5	62 11.5	26	8	5	4	1	2	5	9	3	2	
연령대	청년층 (34세 미만)	178	176 98.9	2 1.1	0 0.0	1 0.6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중·장년층 (34세 이상 65세 미만)	149	135 90.6	14 9.4	5 3.4	4 2.7	0 0.0	1 0.7	1 0.7	1 0.7	0 0.0	2 1.3	1 0.7	
	노년층 (65세 이상)	211	165 78.2	46 21.8	21 10.0	3 1.4	5 2.4	3 1.4	0 0.0	0 0.0	4 1.9	9 4.3	1 0.5	1 0.5

<표2> 연령대별 장애 현황

6) 응답자가 사는 동네는 ‘동 지역’ 495명(92%), ‘읍면지역’ 43명(8%)으로 조사됨. 동 지역에서는 ‘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초당동’, ‘경포동’, ‘송정동’, ‘홍제동’ 주민이 응답에 많이 참여하였고, ‘읍면지역’에서는 ‘주문진읍’이 주로 참여함. 우리 복지관의 복지 실천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7) 조사 대상에 복지관 이용자, 자원봉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후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집단의 의견이 이번 조사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지역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 우리 마을을 헤아려야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둘레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므로, 지나친 해석은 자제하되 주민의 욕구와 지역에 대하여 실천적 민감성을 갖고 분석하겠음.

단위: 명/%

구분	계	사는동네																					
		성덕	강남	내곡	초당	경포	송정	포남1	포남2	교1	교2	옥천	중앙	홍제	연곡	사천	옥계	강동	구정	왕산	성산	주문진	
계	538	204 37.9	71 13.2	42 7.8	31 5.8	40 7.4	31 5.8	14 2.6	13 2.4	3 0.6	12 2.2	5 0.9	3 0.6	26 4.8	2 0.4	1 0.2	2 0.4	3 0.6	5 0.9	7 1.3	3 0.6	20 3.7	
연령대	청년층 (34세 미만)	178	34 19.1	26 14.6	26 14.6	21 11.8	26 14.6	18 10.1	4 2.2	2 1.1	0 0.0	1 0.6	2 1.1	2 1.1	3 1.7	0 0.0	0 0.0	1 0.6	1 0.6	1 0.6	5 2.8	2 1.1	3 1.7
	중·장년층 (34세 이상 65세 미만)	149	22 14.8	24 16.1	14 9.4	8 5.4	14 9.4	12 8.1	4 2.7	6 4.0	2 1.3	6 4.0	3 2.0	0 0.0	14 9.4	2 1.3	1 0.7	1 0.7	2 1.3	4 2.7	1 0.7	1 0.7	8 5.4
	노년층 (65세 이상)	211	148 70.1	21 10.0	2 0.9	2 0.9	0 0.0	1 0.5	6 2.8	5 2.4	1 0.5	5 2.4	0 0.0	1 0.5	9 4.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0 0.0	9 4.3

<표3> 연령대별 사는 동네 분포

나. 성별 및 경제 상황, 가구 유형에 따른 응답자 유형

1) '남성'이 '여성'보다 장애 비중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참여, 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음.

단위: 명/%

구분	계	장애여부		사회참여		돌봄현황		
		비장애	장애	미참여	참여	미이용	이용	
계	538	476 88.5	62 11.5	482 89.6	56 10.4	446 82.9	92 17.1	
성별	남성	128	106 82.8	22 17.2	118 92.2	10 7.8	117 91.4	11 8.6
	여성	410	370 90.2	40 9.8	364 88.8	46 11.2	329 80.2	81 19.8

<표4> 성별에 따른 응답자 유형

2) 응답자 중 '수급 및 차상위'일수록 '아파트', '장애', '1인 가구', '돌봄 이용' 비중이 높음. 연령대별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이들 다수가 '노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단, 가구 유형에 대해서는 청년층), 저소득 집단의 경우 복지관이 위치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단위: 명/%

구분	계	주거유형		장애여부		가구유형		사회참여		돌봄현황		
		APT 거주	APT 외	비장애	장애	1인 가구	동거 가구	미참여	참여	미이용	이용	
계	538	402 74.7	136 25.3	476 88.5	62 11.5	299 55.6	239 44.4	482 89.6	56 10.4	446 82.9	92 17.1	
경제현황	일반	373	254 68.1	119 31.9	360 96.5	13 3.5	156 41.8	217 58.2	330 88.5	43 11.5	362 97.1	11 2.9
	수급/차상위	165	148 89.7	17 10.3	116 70.3	49 29.7	143 86.7	22 13.3	152 92.1	13 7.9	84 50.9	81 49.1

<표5> 경제상황에 따른 응답자 유형

3) '1인 가구'는 '동거가구'에 비하여, '사회참여' 비율이 낮고, '장애', '돌봄 이용' 비중이 높음.

단위: 명/%

구분	계	사회참여		장애여부		돌봄현황		
		미참여	참여	비장애	장애	미이용	이용	
계	538	482 89.6	56 10.4	476 88.5	62 11.5	446 82.9	92 17.1	
가구유형	1인가구	299	282 94.3	17 5.7	256 85.6	43 14.4	219 73.2	80 26.8
	동거가구	239	200 83.7	39 16.3	220 92.1	19 7.9	227 95.0	12 5.0

<표6> 가구 유형에 따른 응답자 유형

04 정신건강과 외로움

가. 일주일간 느낀 행복감·우울감·스트레스

- 1) '일주일간 느낀 행복감'은 '매우 그렇다' 175명(32.5%), '그렇다' 183명(34%), '보통이다' 131명(24.3%), '아니다' 36명(6.7%), '매우 아니다' 13명(2.4%) 순으로 조사됨. 일주일간 느낀 행복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중이 높지만,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2순위로 나타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의 일주일간 행복감은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보임(전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임).
- 2) '일주일간 느낀 우울감'은 '매우 아니다' 242명(45%), '아니다' 109명(20.3%), '보통이다' 96명(17.8%), '그렇다' 75명(13.9%), '매우 그렇다' 16명(3%)으로 조사됨. 또한, '일주일간 느낀 스트레스'는 '매우 아니다' 177명(32.9%), '아니다' 140명(26%), '보통이다' 100명(18.6%), '그렇다' 91명(16.9%), '매우 그렇다' 30명(5.6%)으로 조사됨.
- 3)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약 9%에 그쳤지만,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16.9%, 22.5%로 나타나, 일상 속 행복을 촉진하는 적극적 복지와 함께 문제 완화를 위한 복지도 지속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단위: 명/%

구분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n	mean	sd
1 일주일간 행복감	13 2.4	36 6.7	131 24.3	183 34.0	175 32.5	538	3.88	1.020
2 일주일간 우울감	242 45.0	109 20.3	96 17.8	75 13.9	16 3.0	538	2.10	1.203
3 일주일간 스트레스	177 32.9	140 26.0	100 18.6	91 16.9	30 5.6	538	2.36	1.251

<표7> 일주일간 경험한 감정(행복감·우울감·스트레스)의 정도

- 4) 각 유형에 따라 '일주일간 행복감'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유의수준 0.05). '수급여부'(t: 3.889, p=0.000), '장애여부'(t: 2.393, p=0.019), '마을관리소 이용여부'(t: 5.200, p=0.000),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t: 2.956, p=0.004). '수급', '장애', '마을관리소 비이용', '정기 프로그램 비이용'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 점수로 나타남.
- 5) 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유의수준 0.05). '연령대'(f: 7.022, p=0.001),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f: 4.142, p=0.016),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f: 20.993, p=0.000).
- 6) 사후검정 결과, '연령대'에서는 '청년층'(4.08점)이 '중장년층'(3.75점), '노년층'(3.79점)과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일주일간 행복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임.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에서는 '없음'(3.13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1개'(3.89점), '2개 이상'(3.90점) 대비 평균 차이가 있고, '없음' 응답자가 행복감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서는 '없음'(3.49점), '1~4명'(3.89점), '5명 이상'(4.27점) 순으로 평균 차이를 보임.

단위: 명/%

구분		일주일간 행복감 평균 점수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3.79	0.953	-1.098 (0.273)	-	-
	여성	410	3.90	1.040			
연령대	청년층 ^a	178	4.08	0.755	-	7.022 (0.001)	Games-Howell b,c<a
	중·장년층 ^b	149	3.75	1.077			
	노년층 ^c	211	3.79	1.144			
수급여부	비수급	373	4.00	0.904	3.889 (0.000)	-	-
	수급	165	3.59	1.199			
장애여부	비장애	476	3.92	0.971	2.393 (0.019)	-	-
	장애	62	3.52	1.290			
가구유형	1인가구	299	3.87	1.096	-0.153 (0.879)	-	-
	동거가구	239	3.88	0.918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4.42	0.620	5.200 (0.000)	-	-
	비이용자	110	3.61	1.142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4.10	1.012	2.956 (0.004)	-	-
	비이용자	82	3.56	1.112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	없음 ^a	15	3.13	1.187	-	4.142 (0.016)	Bonferroni a<b,c
	1개 ^b	160	3.89	1.022			
	2개 이상 ^c	363	3.90	1.003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3.49	1.031	-	20.993 (0.000)	Games-Howell a<b<c
	1~4명 ^b	333	3.89	1.049			
	5명 이상 ^c	98	4.27	0.711			

<표8> 유형별 일주일간 행복감 평균 점수

- 7) 각 유형에 따라 '일주일간 우울감'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유의수준 0.05). '수급여부'(t: 2.864, p=0.004), '가구유형'(t: 2.743, p=0.006),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t: -2.408, p=0.017). 수급, 동거가구, 정기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8) 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유의수준 0.05).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f: 4.995, p=0.012),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f: 32.275, p=0.000).
- 9) 사후검정 결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에서는 '1개' 응답자가 '2개 이상' 보다 우울감 평균 점수가 높음.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를 보면, '없음', '1~4명', '5명 이상' 순으로 우울감 평균 점수가 높음(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이 많은 집단이 우울감 평균 점수가 낮음.)

단위: 명/%

구분		일주일간 우울감 평균 점수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2.05	1.163	-0.536 (0.592)	-	-
	여성	410	2.11	1.216			
연령대	청년층	178	1.94	1.153	-	2.254 (0.107)	-
	중·장년층	149	2.18	1.191			
	노년층	211	2.17	1.244			
수급여부	비수급	373	1.99	1.155	-2.864 (0.004)	-	-
	수급	165	2.33	1.279			
장애여부	비장애	476	2.06	1.179	-1.617 (0.110)	-	-
	장애	62	2.35	1.356			
가구유형	1인가구	299	2.22	1.282	2.743 (0.006)	-	-
	동거가구	239	1.94	1.079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2.06	1.063	-0.749 (0.457)	-	-
	비이용자	110	2.24	1.334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1.90	1.227	-2.408 (0.017)	-	-
	비이용자	82	2.41	1.276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	없음 ^a	15	2.47	1.407	-	4.995 (0.012)	Games-Howell b>c
	1개 ^b	160	2.33	1.282			
	2개 이상 ^c	363	1.98	1.142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2.88	1.272	-	32.275 (0.000)	Games-Howell a>b>c
	1~4명 ^b	333	1.98	1.130			
	5명 이상 ^c	98	1.63	0.967			

<표9> 유형별 일주일간 우울감 평균 점수

- 10) 각 유형에 따라 ‘일주일간 스트레스’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고, ‘가구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함(‘동거가구’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 상대적으로 높음),
- 11) 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유의수준 0.05)한 결과는 ‘연령대’(f: 8.157, p=0.000),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f: 4.350, p=0.020),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f: 13.210, p=0.000)으로 분석됨.
- 12) 사후검정 결과, 연령대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청년층’, ‘노년층’보다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높고,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에서는 ‘1개’ 응답자가 ‘2개 이상’ 보다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높음.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를 보면, ‘없음’이 ‘1~4명’, ‘5명 이상’보다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높음.

단위: 명/%

구분		일주일간 스트레스 평균 점수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2.35	1.208	-0.113 (0.910)	-	-
	여성	410	2.37	1.266			
연령대	청년층 ^a	178	2.31	1.169	-	8.157 (0.000)	Games-Howell a,c<b
	중·장년층 ^a	149	2.70	1.212			
	노년층 ^c	211	2.17	1.302			
수급여부	비수급	373	2.38	1.202	0.414 (0.679)	-	-
	수급	165	2.33	1.358			
장애여부	비장애	476	2.36	1.225	-0.335 (0.738)	-	-
	장애	62	2.42	1.443			
가구유형	1인가구	299	2.26	1.335	-2.225 (0.026)	-	-
	동거가구	239	2.49	1.126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2.35	1.226	0.656 (0.513)	-	-
	비이용자	110	2.17	1.400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2.00	1.203	-1.631 (0.105)	-	-
	비이용자	82	2.37	1.453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	없음 ^a	15	2.67	1.397	-	4.350 (0.020)	Games-Howell b>c
	1개 ^b	160	2.59	1.319			
	2개 이상 ^c	363	2.25	1.200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2.90	1.387	-	13.210 (0.000)	Games-Howell a>b,c
	1~4명 ^b	333	2.29	1.225			
	5명 이상 ^c	98	2.04	0.994			

<표10> 유형별 일주일간 스트레스 평균 점수

나. 일상생활 만족도

- 1) ‘일상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538명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영역은 ‘식생활 만족도’(3.27점)이며, 다음으로 ‘주거환경 만족도’(3.18점), ‘재난안전 만족도’(3.09점), ‘정신건강 만족도’(3.04점), ‘이웃관계 만족도’(3.02점), ‘여가생활 만족도’(2.98점),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2.91점), ‘소득 및 경제 만족도’(2.90점), ‘신체건강 만족도’(2.87점) 순으로 조사됨. ‘정신건강 만족도’부터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3.07점)보다 평균 점수가 낮음.
- 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3.07점)는 긍정적인 응답이 84.2%이지만, 다른 분석 결과와 다르게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n	mean	sd
1 이웃관계 만족도	20 3.7	93 17.3	282 52.4	143 26.6	538	3.02	0.767
2 여가생활 만족도	28 5.2	88 16.4	290 53.9	132 24.5	538	2.98	0.786
3 신체건강 만족도	33 6.1	134 24.9	239 44.4	132 24.5	538	2.87	0.852
4 정신건강 만족도	20 3.7	90 16.7	278 51.7	150 27.9	538	3.04	0.771
5 재난안전 만족도	20 2.7	87 16.2	255 47.4	176 32.7	538	3.09	0.794
6 식생활 만족도	10 1.9	65 12.1	233 43.3	230 42.8	538	3.27	0.742
7 주거환경 만족도	12 2.2	72 13.4	263 48.9	191 35.5	538	3.18	0.740
8 소득 및 경제 만족도	33 6.1	122 22.7	248 46.1	135 25.1	538	2.90	0.845
9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	36 6.7	106 19.7	268 49.8	128 23.8	538	2.91	0.834
10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4 0.7	81 15.1	325 60.4	128 23.8	538	3.07	0.643

<표11> 일상생활 만족도

- 3) '이웃관계 만족도'는 평균 3.02점으로, 538명 중 425명(79%)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다양한 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사회참여 여부, 마을관리소 및 정기 프로그램 이용 여부,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활동 수,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4)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t=-2.438$, $p=0.015$ 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이웃 관계 만족도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여성' 평균 3.06점, '남성' 평균 2.88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웃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음.
- 5) '연령대'에 따른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F: 7.316$, $p=0.001$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사후검정 결과, '청년층(3.15점)'과 '노년층(3.04점)'이 '중장년층(2.83점)'보다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6) '수급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t=2.730$, $p=0.007$ 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비수급자'가 평균 3.08점으로 '수급자' 평균 2.87점보다 높은 '이웃관계 만족도'를 보임. 한편, '장애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t=3.204$, $p=0.002$ 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비장애인'이 평균 3.07점으로 '장애' 평균 2.66점보다 높은 '이웃관계 만족도'를 보임.
- 7) '사회참여' 여부의 경우, '사회참여'가 평균 3.29점으로 '미참여' 평균 2.99점보다 높은 '이웃관계 만족도'를 보임($t=-2.771$, $p=0.006$). '마을관리소 및 정기 프로그램 이용' 여부 분석 결과 '마을관리소 이용자'의 경우 평균 3.35점, '비이용자' 평균 2.89점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t=2.666$, $p=0.009$), '정기 프로그램 이용자' 역시 평균 3.24점으로 '비이용자' 평균 2.82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t=3.074$, $p=0.003$).
- 8)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활동 수'를 일원배치 분산분석하였을 때, $F=5.407$, $p=0.00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사후 검정 결과, '외로움 극복 여가'가 '2개 이상'이면 평균 3.10점, '1개'이면 2.88점으로 평균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9) '직접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명 이상인 경우 평균 3.26점, 1~4명은 평균 3.02점, 없는 경우 2.80점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집단이 이웃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F=9.128$, $p=0.000$).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단위: 명/%

구분		이웃관계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2.88	0.813	-2.438 (0.015)	-	-
	여성	410	3.06	0.747			
연령대	청년층 ^a	178	3.15	0.668	-	7.316 (0.001)	Bonferroni b<a,c
	중장년층 ^b	149	2.83	0.783			
	노년층 ^c	211	3.04	0.810			
수급여부	비수급	373	3.08	0.708	2.730 (0.007)	-	-
	수급	165	2.87	0.871			
주거유형	아파트	402	3.02	0.796	0.074 (0.941)	-	-
	아파트 외	136	3.01	0.678			
장애여부	비장애	476	3.07	0.727	3.204 (0.002)	-	-
	장애	62	2.66	0.957			
가구유형	1인가구	299	3.05	0.822	0.974 (0.331)	-	-
	동거가구	239	2.98	0.692			
사는동네	동지역	495	3.02	0.771	0.580 (0.562)	-	-
	읍·면지역	43	2.95	0.722			
사회참여	미참여	482	2.99	0.774	-2.771 (0.006)	-	-
	참여	56	3.29	0.653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3.35	0.661	2.666 (0.009)	-	-
	비이용자	110	2.89	0.902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3.24	0.652	3.074 (0.003)	-	-
	비이용자	82	2.82	0.970			
도움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없음 ^a	107	2.80	0.770	-	9.128 (0.000)	Bonferroni a<b<c
	1~4명 ^b	333	3.02	0.768			
	5명 이상 ^c	98	3.26	0.693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	없음 ^a	15	2.60	1.056	-	5.407 (0.009)	Games- Howell b<c
	1개 ^b	160	2.88	0.804			
	2개 이상 ^c	363	3.10	0.724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2.80	0.770	-	9.128 (0.000)	Bonferroni a<b<c
	1~4명 ^b	333	3.02	0.768			
	5명 이상 ^c	98	3.26	0.693			

<표12> 이웃관계 만족도 분석표

- 10)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우 평균 2.98점으로, 538명 중 433명(78.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다양한 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복지관 이용여부,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11) '연령대'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F=18.511$, $p=0.000$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사후 검정 결과,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간의 점수 차이가 나타남. '청년층' 3.24점, '중장년층' 2.84점, '노년층' 2.86점으로, '청년층'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12) '수급여부'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차이를 알기 위해 t-검정 실시 결과, $t=5.738$,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비수급' 평균 3.12점으로 평균 2.66점인 '수급'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 13) '장애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비장애' 평균 3.03점으로 '장애' 평균 2.5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여가생활 만족도'를 보임($t=3.701$, $p=0.000$).
- 14) '복지관 이용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t=-2.900$, $p=0.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경우 평균 2.79점으로 평균 3.04점인 '비이용자'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임. 복지관 이용자 중 장수식당, 노년층의 응답 비중이 높아 평균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15) '마을관리소 이용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이용자' 평균 3.32점으로 '비이용자' 평균 2.65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t=3.779$, $p=0.000$). '정기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분석하였을 때 $t=4.499$,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용자' 평균 3.15점, '비이용자' 평균 2.54점으로 정기 프로그램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임.
- 16) '직접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F: 15.399$, $p=0.000$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됨. 사후 검정 결과, 만족도 점수 차이가 '5명 이상', '1~4명', '없음'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단위: 명/%

구분	여가생활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3.05	0.762	1.141 (0.254)	-	-
	여성	410	2.96	0.793			
연령대	청년층 ^a	178	3.24	0.629	-	18.511 (0.000)	Games- Howell a>b,c
	중장년층 ^b	149	2.84	0.736			
	노년층 ^c	211	2.86	0.883			
수급여부	비수급	373	3.12	0.674	5.738 (0.000)	-	-
	수급	165	2.66	0.921			
주거유형	아파트	402	2.96	0.818	-1.014 (0.311)	-	-
	아파트 외	136	3.04	0.682			
장애여부	비장애	476	3.03	0.753	3.701 (0.000)	-	-
	장애	62	2.58	0.915			
가구유형	1인가구	299	2.96	0.816	-0.699 (0.485)	-	-
	동거가구	239	3.00	0.748			
사는동네	동지역	495	2.98	0.797	-0.194 (0.846)	-	-
	읍·면지역	43	3.00	0.655			
사회참여	미참여	482	2.96	0.782	-1.123 (0.262)	-	-
	참여	56	3.09	0.815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2.79	0.922	-2.900 (0.004)	-	-
	비이용자	397	3.04	0.722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3.32	0.702	3.779 (0.000)	-	-
	비이용자	110	2.65	0.925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3.15	0.582	4.499 (0.000)	-	-
	비이용자	82	2.54	1.033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	없음 ^a	15	2.60	1.056	-	2.651 (0.084)	-
	1개 ^b	160	2.89	0.790			
	2개 이상 ^c	363	3.03	0.766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2.69	0.806	-	15.399 (0.000)	Bonferroni a<b<c
	1~4명 ^b	333	2.98	0.770			
	5명 이상 ^c	98	3.29	0.703			

<표13> 여가생활 만족도 분석표

- 17) ‘신체건강 만족도’는 평균 2.97점으로, 538명 중 371명(68.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다른 ‘일상생활 만족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사회참여,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18) ‘연령대’에 따른 ‘신체건강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 39.762, P=0.000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사후 검정 결과, ‘청년층’ 평균 3.28점, ‘중장년층’ 평균 2.81점, ‘노년층’ 평균 2.58점으로, 청년층-중장년층-노년층 순으로 상대적으로 신체건강 만족도 차이를 보임.
- 19) ‘수급여부’에 따른 경우, t=7.647, 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비수급’ 평균 3.06점으로 ‘수급’ 평균 2.44점보다 높은 ‘신체건강 만족도’를 보이고, ‘장애여부’의 경우 ‘비장애’ 평균 2.97점으로 ‘장애’ 평균 2.16점보다 높은 ‘신체건강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t=7.339, p=0.000). ‘수급여부’에 따라 보게 되면, 노년층 응답 데이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활동 수’를 일원배치 분산분석하였을 때, F=3.606, p=0.037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사후 검정 결과, 여가활동 수가 ‘2개 이상’인 응답자가 평균 2.90점, ‘1개’ 응답자 평균 2.88점 대비 ‘없음’ 응답자는 2.27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21) ‘직접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른 분석 결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명 이상’인 경우 평균 3.18점으로 나왔지만, ‘1~4명’은 평균 2.83점, ‘없는 경우’ 2.72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 차이를 보임(F=8.889, p=0.000).

단위: 명/%

구분	신체건강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2.93	0.871	0.853 (0.394)	-
	여성	410	2.86	0.846		
연령대	청년층 ^a	178	3.28	0.703	-	39.762 (0.000)
	중장년층 ^b	149	2.81	0.794		
	노년층 ^c	211	2.58	0.876		
수급여부	비수급	373	3.06	0.745	7.647 (0.000)	-
	수급	165	2.44	0.920		
주거유형	아파트	402	2.84	0.861	-1.773 (0.077)	-
	아파트 외	136	2.99	0.816		
장애여부	비장애	476	2.97	0.810	7.339 (0.000)	-
	장애	62	2.16	0.834		
가구유형	1인가구	299	2.84	0.897	-0.951 (0.342)	-
	동거가구	239	2.91	0.792		
사는동네	동지역	495	2.87	0.860	-0.268 (0.789)	-
	읍·면지역	43	2.91	0.750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	없음 ^a	15	2.27	0.884	-	3.606 (0.037)
	1개 ^b	160	2.88	0.914		
	2개 이상 ^c	363	2.90	0.814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2.72	0.940	-	8.889 (0.000)
	1~4명 ^b	333	2.83	0.811		
	5명 이상 ^c	98	3.18	0.817		

<표14> 신체건강 만족도 분석표

- 22) '정신건강 만족도'는 평균 3.04점으로, 538명 중 428명(79.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가구유형, 복지관 이용여부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23)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 실시한 결과, $F=12.018$,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사후 검정 결과, '노년층(2.92점)'과 '중장년층(2.95점)'이 '청년층(3.25점)'에 대하여 '정신건강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 24) '수급여부'에 따르면, $t=3.778$, $p=0.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비수급' 평균 3.13점으로 '수급' 평균 2.84점보다 높은 '정신건강 만족도'를 보이고, '장애여부'의 경우 '비장애' 평균 3.10점으로 '장애' 평균 2.53점보다 높은 '정신건강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t=4.977$, $p=0.000$).
- 25) '가구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t=2.759$, $p=0.0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인 가구' 평균 3.12점으로 '동거가구' 평균 2.94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 26) 끝으로, '복지관 이용 여부'에 따르면 $t=-2.847$, $p=0.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복지관 '비이용자' 평균 3.09점, '이용자' 평균 2.88점으로 '비이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임. 복지관 이용자 특성상 노년층, 수급이 많아서 분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명/%

구분		정신건강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2.99	0.789	-0.756 (0.450)	-	-
	여성	410	3.05	0.766			
연령대	청년층	178	3.25	0.634	-	12.018 (0.000)	Games-Howell a>b,c
	중장년층	149	2.95	0.787			
	노년층	211	2.92	0.830			
수급여부	비수급	373	3.13	0.709	3.778 (0.000)	-	-
	수급	165	2.84	0.865			
주거유형	아파트	402	3.02	0.795	-0.636 (0.525)	-	-
	아파트 외	136	3.07	0.695			
장애여부	비장애	476	3.10	0.734	4.977 (0.000)	-	-
	장애	62	2.53	0.863			
가구유형	1인가구	299	3.12	0.825	2.759 (0.006)	-	-
	동거가구	239	2.94	0.686			
사는동네	동지역	495	3.05	0.782	1.133 (0.262)	-	-
	읍·면지역	43	2.93	0.632			
사회참여	미참여	482	3.02	0.773	-1.084 (0.279)	-	-
	참여	56	3.14	0.749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2.88	0.832	-2.847 (0.005)	-	-
	비이용자	397	3.09	0.741			

<표15> 정신건강 만족도 분석표

- 27) ‘재난안전 만족도’는 평균 3.09점으로, 538명 중 431명(80.1%)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사는동네,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28) ‘성별’에 따른 ‘재난안전 만족도’의 경우 $t=2.090$, $p=0.03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남성’이 평균 3.22점으로, 평균 3.05점인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 29) ‘연령대’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14.870$,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사후 검정 결과, ‘청년층(3.33점)’이 ‘중장년층(3.03점)’, ‘노년층(2.93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임.
- 30) ‘수급여부’의 경우 $t=2.901$, $p=0.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비수급자’가 평균 3.16점으로 ‘수급자’ 평균 2.93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장애여부’의 경우 ‘비장애’ 평균 3.14점으로 ‘장애’ 평균 2.74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t=3.725$, $p=0.000$). ‘사는 동네’에 따른 분석 결과 ‘동지역’ 거주자 평균 3.12점으로 ‘읍면지역’ 거주자 평균 2.72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t=2.676$, $p=0.010$).
- 31) ‘직접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5.185$, $p=0.0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사후검정 결과, ‘없음(2.90점)’ 대비 ‘1~4명(3.11점)’, ‘5명 이상(3.24점)’ 집단이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단위: 명/%

구분		재난안전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3.22	0.731	2.090 (0.037)	-	-
	여성	410	3.05	0.809			
연령대	청년층 ^a	178	3.33	0.661	-	14.870 (0.000)	Games- Howell a>b,c
	중장년층 ^b	149	3.03	0.735			
	노년층 ^c	211	2.93	0.887			
수급여부	비수급	373	3.16	0.745	2.901 (0.004)		
	수급	165	2.93	0.877			
주거유형	아파트	402	3.11	0.810	0.962 (0.337)		
	아파트 외	136	3.04	0.744			
장애여부	비장애	476	3.14	0.779	3.725 (0.000)	-	-
	장애	62	2.74	0.828			
가구유형	1인가구	299	3.12	0.762	0.849 (0.396)		
	동거가구	239	3.06	0.833			
사는동네	동지역	495	3.12	0.771	2.676 (0.010)		
	읍면지역	43	2.72	0.959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2.90	0.800	-	5.185 (0.006)	Bonferron i a<b,c
	1~4명 ^b	333	3.11	0.765			
	5명 이상 ^c	98	3.24	0.850			

<표16> 재난안전 만족도 분석표

- 32) '식생활 만족도'는 평균 3.27점으로, 538명 중 463명(86.1%)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일상생활 만족도'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33) '연령대'에 따른 '식생활 만족도'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F=8.744$,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됨. 사후 검정 결과, '청년층(3.43점)'이 '중장년층(3.09점)' 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차이를 보임.
- 34) '수급여부'에 따른 경우, $t=2.081$, $p=0.03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비수급' 평균 3.31점으로 '수급' 평균 3.17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 35) '장애여부'의 경우, '비장애' 평균 3.31점으로, '장애' 평균 2.97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 ($t=3.437$, $p=0.001$).

단위: 명/%

구분	식생활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3.29	0.765	0.341 (0.733)	-	-
	여성	410	3.26	0.736			
연령대	청년층 ^a	178	3.43	0.727	-	8.744 (0.000)	Bonferroni a>b
	중장년층 ^b	149	3.09	0.716			
	노년층 ^c	211	3.27	0.747			
수급여부	비수급	373	3.31	0.711	2.081 (0.038)	-	-
	수급	165	3.17	0.801			
주거유형	아파트	402	3.31	0.712	1.963 (0.050)	-	-
	아파트 외	136	3.16	0.818			
장애여부	비장애	476	3.31	0.725	3.437 (0.001)	-	-
	장애	62	2.97	0.809			
가구유형	1인가구	299	3.27	0.765	-0.068 (0.946)	-	-
	동거가구	239	3.27	0.714			
사는동네	동지역	495	3.27	0.736	0.126 (0.900)	-	-
	읍·면지역	43	3.26	0.819			
사회참여	미참여	482	3.29	0.731	1.924 (0.055)	-	-
	참여	56	3.09	0.815			
장수식당 이용여부	이용자	72	3.17	0.822	-0.811 (0.419)	-	-
	비이용자	67	3.27	0.642			

<표17> 식생활 만족도 분석표

- 36) '주거환경 만족도'는 평균 3.18점으로, 538명 중 454명(84.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일상생활 만족도' 중 '식생활 만족도'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대, 주거유형, 사는 동네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37) '성별'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 $t=-2.419$, $p=0.01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여성' 평균 3.22점으로 평균 3.04점인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 38) '연령대'에 따른 비교를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9.763$,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사후 검정 결과, '중장년층(2.97점)'이 '청년층(3.18점)'과 '노년층(3.3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임. 1인 가구가 많은 중장년,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문제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음.
- 39) '주거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아파트 거주자' 평균 3.25점, '아파트 외 거주자' 평균 2.95점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t=4.221$, $p=0.000$).
- 40) '사는 동네'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면 '동지역' 거주자가 평균 3.21점으로, 평균 2.81점인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t=3.381$, $p=0.001$).

단위: 명/%

구분	주거환경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3.04	0.747	-2.419 (0.016)	-	-
	여성	410	3.22	0.734			
연령대	청년층 ^a	178	3.18	0.730	-	9.763 (0.000)	Bonferroni b<a,c
	중장년층 ^b	149	2.97	0.762			
	노년층 ^c	211	3.32	0.703			
수급여부	비수급	373	3.15	0.713	-1.315 (0.190)	-	-
	수급	165	3.24	0.797			
주거유형	아파트	402	3.25	0.699	4.221 (0.000)	-	-
	아파트 외	136	2.95	0.810			
장애여부	비장애	476	3.19	0.732	0.902 (0.367)	-	-
	장애	62	3.10	0.804			
가구유형	1인가구	299	3.23	0.748	1.791 (0.074)	-	-
	동거가구	239	3.11	0.727			
사는동네	동지역	495	3.21	0.730	3.381 (0.001)	-	-
	읍면지역	43	2.81	0.764			

<표18> 주거환경 만족도 분석표

- 41) '소득 및 경제 만족도'는 평균 2.90으로, 538명 중 387명(71.2%)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사는동네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42) '연령대'의 경우, F: 9.551, p=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사후 검정 결과 '청년층(3.12점)'이 '중장년층(2.80점)', '노년층(2.79점)' 보다 소득 및 경제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임.
- 43) '수급여부'에 따르면, t-검정 결과 t=3.899, p=0.000으로, '비수급' 평균 3.00점, '수급' 평균 2.68점으로 '비수급' 집단이 '수급'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경제적 안정 여부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44) '주거유형'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는 평균 2.94점, '아파트 외 거주자'는 2.79점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t=1.717, p=0.087). '장애여부'의 경우 '비장애' 2.95점으로 '장애' 2.52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t=3.865, p=0.000).
- 45) '사는 동네'에 따르면 '동지역' 평균 2.92점, '읍면지역' 평균 2.65점으로 '동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t=2.030, p=0.043).

단위: 명/%

구분		소득 및 경제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2.84	0.962	-0.916 (0.361)	-	-
	여성	410	2.92	0.806			
연령대	청년층 ^a	178	3.12	0.783	-	9.551 (0.000)	Games-Howell a>b,c
	중장년층 ^b	149	2.80	0.885			
	노년층 ^c	211	2.79	0.836			
수급여부	비수급	373	3.00	0.815	3.899 (0.000)	-	-
	수급	165	2.68	0.875			
주거유형	아파트	402	2.94	0.832	1.717 (0.087)	-	-
	아파트 외	136	2.79	0.879			
장애여부	비장애	476	2.95	0.826	3.865 (0.000)	-	-
	장애	62	2.52	0.901			
가구유형	1인가구	299	2.93	0.852	0.765 (0.445)	-	-
	동거가구	239	2.87	0.838			
사는동네	동지역	495	2.92	0.845	2.030 (0.043)	-	-
	읍면지역	43	2.65	0.813			

<표19> 소득 및 경제 만족도 분석표

- 46)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는 평균 2.91점으로, 538명 중 395명(73.6%)이 긍정 응답함.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복지관 이용여부,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47) '연령대'에 따른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F=12.896$, $p=0.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됨. 사후 검정 결과, '청년층(3.15점)'이 '중장년층(2.83점)', '노년층(2.76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그동안 다른 조사나 예측과 사뭇 다른 결과인데, 사후 실천 과정에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음.
- 48) '수급여부'에 따르면, t-검정 결과 $t=4.543$, $p=0.000$ 으로 '비수급' 3.02점, '수급' 2.65점으로 '비수급'이 '수급'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를 보임. '장애여부'에 따르면 t-검정 결과 $t=2.809$, $p=0.005$ 으로 '비장애' 평균 2.94점이 '장애' 평균 2.63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 '복지관 이용 여부'의 경우 '복지관 이용자' 평균 2.73점과 '비이용자' 평균 2.97점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t=-2.948$, $p=0.003$ 으로 '복지관 비이용자'가 '이용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둘레 이웃을 중심으로 한 주민 조직화 시도가 계속 필요해 보임. 한편, '마을관리소 이용 여부'에 따르면, '마을관리소 이용자' 평균 3.26점인 반면 '비이용자' 평균 2.58점으로 '마을관리소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t=4.163$, $p=0.000$).
- 49)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르면, '없음'의 경우는 2.56점, '1~4명'은 2.91점, '5명 이상'은 3.28점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집단이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마을관리소 이용 여부'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수'의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과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음.

단위: 명/%

구분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2.85	0.897	-0.819 (0.414)	-	-
	여성	410	2.92	0.813			
연령대	청년층 ^a	178	3.15	0.730	-	12.896 (0.000)	Games- Howell a>b,c
	중장년층 ^b	149	2.83	0.842			
	노년층 ^c	211	2.76	0.869			
수급여부	비수급	373	3.02	0.784	4.543 (0.000)	-	-
	수급	165	2.65	0.888			
주거유형	아파트	402	2.91	0.840	0.162 (0.872)	-	-
	아파트 외	136	2.90	0.819			
장애여부	비장애	476	2.94	0.823	2.809 (0.005)	-	-
	장애	62	2.63	0.873			
가구유형	1인가구	299	2.91	0.845	0.082 (0.935)	-	-
	동거가구	239	2.90	0.822			
사회참여	미참여	482	2.91	0.814	-0.029 (0.977)	-	-
	참여	56	2.91	0.996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2.73	0.844	-2.948 (0.003)	-	-
	비이용자	397	2.97	0.822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3.26	0.682	4.163 (0.000)	-	-
	비이용자	110	2.58	0.828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2.85	0.761	1.437 (0.153)	-	-
	비이용자	82	2.65	0.894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2.56	0.871	-	20.661 (0.000)	Games- Howell a<b<c
	1~4명 ^b	333	2.91	0.805			
	5명 이상 ^c	98	3.28	0.729			

<표20>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 분석표

- 50)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3.07점으로, 538명 중 452명(84.2%)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장애여부,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살펴봤을 때, 유의한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51) ‘장애여부’의 경우 ‘비장애’ 3.10점, ‘장애’ 2.84점으로 ‘비장애’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로 나타남($t=2.588, p=0.012$).
- 52) ‘마을관리소 이용 여부’의 경우 ‘이용자’ 평균 3.23점, ‘비이용자’ 2.95점으로 ‘마을관리소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t=2.080, p=0.039$).
- 53)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르면, ‘없음’ 2.80점, ‘1~4명’ 3.10점, ‘5명 이상’ 3.28점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집단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관계망과 지원 체계가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차이를 주는 것으로 보임.

단위: 명/%

구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2.99	0.670	-1.620 (0.106)	-	-
	여성	410	3.10	0.633			
연령대	청년층	178	3.14	0.580	-	2.337 (0.098)	-
	중장년층	149	2.99	0.657			
	노년층	211	3.08	0.679			
수급여부	비수급	373	3.10	0.598	1.742 (0.082)	-	-
	수급	165	3.00	0.733			
장애여부	비장애	476	3.10	0.619	2.588 (0.012)	-	-
	장애	62	2.84	0.772			
가구유형	1인가구	299	3.10	0.696	1.010 (0.313)	-	-
	동거가구	239	3.04	0.571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3.01	0.671	-1.407 (0.160)	-	-
	비이용자	397	3.10	0.632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3.23	0.617	2.080 (0.039)	-	-
	비이용자	110	2.95	0.675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3.05	0.600	0.656 (0.513)	-	-
	비이용자	82	2.98	0.720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수	없음	15	2.73	1.033	-	0.863 (0.431)	-
	1개	160	3.09	0.680			
	2개 이상	363	3.08	0.603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a	107	2.80	0.693	-	15.278 (0.000)	Bonferroni a<b<c
	1~4명b	333	3.10	0.615			
	5명 이상c	98	3.28	0.588			

<표2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석표

다. UCLA외로움(성인용 단축형) 척도 점수

- 1)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를 살펴보면, ‘거의 그렇지 않다’ 305명(56.7%), ‘가끔 그렇다’ 194명(36.1%), ‘자주 그렇다’ 39명(7.2명) 순으로 조사되었고, ‘나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의 그렇지 않다’ 361명(67.1%), ‘가끔 그렇다’ 131명(24.3%), ‘자주 그렇다’ 46명(8.6%) 순으로 조사됨.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낀다’는 ‘거의 그렇지 않다’ 376명(69.9%), ‘가끔 그렇다’ 110명(20.4%), ‘자주 그렇다’ 52명(9.7%) 순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n	mean	sd
1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05 56.7	194 36.1	39 7.2	538	1.51	0.629
2	나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한다	361 67.1	131 24.3	46 8.6	538	1.41	0.644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376 69.9	110 20.4	52 9.7	538	1.40	0.659
계					538	1.44	-

<표22> UCLA 외로움 척도

- 2) ‘수급 여부’에 따른 ‘외로움’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2.428$, $p=0.016$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됨. ‘비수급(1.40점)’ 보다 ‘수급(1.53점)’이 더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임.
- 3) ‘장애여부’에 따른 평균 비교 결과, $t=-3.018$, $p=0.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비장애(1.41점)’보다 ‘장애(1.68점)’가 있는 응답자가 더 ‘외로움’을 경험함. ‘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1인 가구(1.50점)’가 ‘동거가구(1.36점)’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t= 2.855$, $p= 0.004$). 추가로, ‘정기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외로움’을 겪고 있음.
- 4)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활동 개수’에 따른 평균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 14.787$, $p= 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사후 검정 결과, ‘2개 이상(1.34점) 집단이 ‘없음(2.07점)’, ‘1개(1.60점)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덜 겪는 것으로 보임.
- 5)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른 비교는 비모수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없음(1.87점)’, ‘1~4명(1.37점)’, ‘5명 이상(1.20점)’ 순으로 ‘외로움’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명/%

구분	외로움 점수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28	1.435	0.583	-0.101 (0.920)	-	-
	여성	410	1.441	0.555			
연령대	청년층 ^a	178	1.40	0.591	-	1.019 (0.362)	-
	중장년층 ^b	149	1.48	0.551			
	노년층 ^c	211	1.45	0.543			
수급여부	비수급	373	1.40	0.550	-2.428 (0.016)	-	-
	수급	165	1.53	0.580			
장애여부	비장애	476	1.41	0.538	-3.018 (0.004)	-	-
	장애	62	1.68	0.675			
가구유형	1인가구	299	1.50	0.602	2.855 (0.004)	-	-
	동거가구	239	1.36	0.498			
사는동네	동지역	495	1.43	0.556	-0.692 (0.490)	-	-
	읍·면지역	43	1.50	0.632			
사회참여	미참여	482	1.44	0.572	0.402 (0.688)	-	-
	참여	56	1.41	0.471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1.33	0.433	-2.751 (0.007)	-	-
	비이용자	82	1.57	0.584			
외로움 극복 여가 개수	없음 ^a	15	2.07	0.809	-	14.787 (0.000)	Games- Howell c<a,b
	1개 ^b	160	1.60	0.640			
	2개 이상 ^c	363	1.34	0.476			
직접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없음 ^a	107	1.87	0.651	독립표본 Kruskal-Wallis 76.662(0.000)		대응별 비교 a>b>c
	1~4명 ^b	333	1.37	0.500			
	5명 이상 ^c	98	1.20	0.391			

<표23> 유형별 UCLA 외로움 척도 분석표

05 여가 생활과 이웃 관계

가.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활동 유형

- 1) ‘여가 활동 유형’ 분석 결과, ‘TV/유튜브 시청’ 289명(25.0%)으로 가장 높은 선호를 기록함. 특히 ‘노년층’과 ‘수급’ 집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운동’ 156명(13.5%), ‘산책’ 141명(12.2%), ‘자기계발’ 134명(11.6%)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n	%	케이스 중 %
계	1156	100	214.9
TV 및 유튜브	289	25.0	53.7
게임	85	7.4	15.8
자기계발	134	11.6	24.9
산책	141	12.2	26.2
운동	156	13.5	29.0
문화, 스포츠 관람	55	4.8	10.2
친목 모임	101	8.7	18.8
종교 활동	57	4.9	10.6
사회 참여, 봉사활동	31	2.7	5.8
여행, 나들이	69	6.0	12.8
아무것도 하지 않음	15	1.3	2.8
기타	23	2.0	4.3

<표24>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유형

- 2) ‘TV/유튜브’ 시청은 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활동이지만,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 노년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3) ‘게임’은 ‘남성’, ‘청년 및 중장년’, ‘비수급’, ‘비장애’,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미이용’ 응답자 집단에서 많이 응답함. ‘자기계발’은 ‘노년층’, ‘수급’, ‘돌봄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하였는데, 수급 및 차상위 계층으로 응답한 다수는 노년층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산책’은 ‘여성’,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장애가 있는 응답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운동’은 ‘남성’,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비수급’, ‘동거가구’,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5) ‘문화·스포츠 관람’은 ‘노년층’, ‘수급’, ‘장애’, ‘1인가구’, ‘돌봄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함. 대체로, 문화 활동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기도 함. ‘친목모임’은 ‘여성’, ‘노년층’, ‘수급’, ‘장애’, ‘돌봄서비스 이용’ 집단의 선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6) '종교활동'은 '남성', '청년층', '비장애', '1인가구',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적음. '사회참여, 봉사활동'은 '중장년층', '비수급', '동거가구' 집단에서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여행, 나들이'는 '중장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이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높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경우, '노년층', '수급', '장애', '돌봄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선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성별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가구유형		돌봄여부		
	남성	여성	청년	중·장년	노년	비수급	수급	비장애	장애	1인	동거	미이용	이용	
계	128	410	178	149	211	373	165	476	62	299	239	446	92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유형	TV 및 유튜브	72	217	85	81	123	186	103	247	42	156	133	228	61
		56.3	52.9	47.8	54.4	58.3	49.9	62.4	51.9	67.7	52.2	55.6	51.1	66.3
	게임	28	57	45	34	6	76	9	78	7	51	34	82	3
		21.9	13.9	25.3	22.8	2.8	20.4	5.5	16.4	11.3	17.1	14.2	18.4	3.3
	자기 계발	31	103	59	46	29	118	16	122	12	66	68	123	11
		24.2	25.1	33.1	30.9	13.7	31.6	9.7	25.6	19.4	22.1	28.5	27.6	12.0
	산책	24	117	36	41	64	101	40	122	19	76	65	116	25
		18.8	28.5	20.2	27.5	30.3	27.1	24.2	25.6	30.6	25.4	27.2	26.0	27.2
	운동	41	115	39	45	72	117	39	139	17	73	83	137	19
		32.0	28.0	21.9	30.2	34.1	31.4	23.6	29.2	27.4	24.4	34.7	30.7	20.7
	문화, 스포츠 관람	13	42	22	22	11	49	6	53	2	21	34	52	3
		10.2	10.2	12.4	14.8	5.2	13.1	3.6	11.1	3.2	7.0	14.2	11.7	3.3
	친목 모임	10	91	9	20	72	61	40	85	16	52	49	74	27
		7.8	22.2	5.1	13.4	34.1	16.4	24.2	17.9	25.8	17.4	20.5	16.6	29.3
종교 활동	9	48	6	17	34	38	19	48	9	25	32	42	15	
	7.0	11.7	3.4	11.4	16.1	10.2	11.5	10.1	14.5	8.4	13.4	9.4	16.3	
사회 참여, 봉사 활동	6	25	2	14	15	27	4	27	4	6	25	27	4	
	4.7	6.1	1.1	9.4	7.1	7.2	2.4	5.7	6.5	2.0	10.5	6.1	4.3	
여행, 나들이	20	49	14	28	27	58	11	65	4	21	48	64	5	
	15.6	12.0	7.9	18.8	12.8	15.5	6.7	13.7	6.5	7.0	20.1	14.3	5.4	
아무것도 하지 않음	4	11	1	1	13	1	14	9	6	13	2	6	9	
	3.1	2.7	0.6	0.7	6.2	0.3	8.5	1.9	9.7	4.3	0.8	1.3	9.8	
기타	4	19	1	8	14	12	11	19	4	15	8	13	10	
	3.1	4.6	0.6	5.4	6.6	3.2	6.7	4.0	6.5	5.0	3.3	2.9	10.9	

<표25> 집단별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유형

※복잡한 표는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칸에 하이라이트

나. 집단별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활동 수

- 1)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활동 수'를 살펴보면, 평균 2.12개의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개' 150명, '2개' 221명, '3개 이상' 141명으로 파악됨.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15명임.
- 2) '연령대'에 따른 여가 활동 수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f: 15.615,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사후 검정 결과, '청년층'이 '중장년층'과 '노년층' 대비 여가 활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3) '수급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 수 또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고 $t=3.804,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비수급' 2.26점, '수급' 1.81점으로 수급을 받는 집단이 여가 활동 수가 적음. '가구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1인 가구' 1.88점, '동거가구' 2.42점으로 '1인 가구'가 여가 활동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됨($t= 3.804, p=0.000$).
- 4) '복지관 이용여부'에 따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활동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고, '마을관리소 이용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도, '마을관리소 이용자' 집단이 여가 활동 수가 더 많음. '정기 프로그램'에 따른 차이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

단위: 명/%

구분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활동 수			t(p)	F(p)	사후검정
		N	평균	표준편차			
계		538	2.12	1.293	-	-	-
성별	남성	128	2.02	1.170	-1.127 (0.261)	-	-
	여성	410	2.15	1.328			
연령대	청년층 ^a	178	1.79	0.837	-	15.615 (0.000)	Games- Howell a<b,c
	중장년층 ^b	149	2.39	1.190			
	노년층 ^c	211	2.21	1.591			
수급여부	비수급	373	2.26	1.334	3.804 (0.000)	-	-
	수급	165	1.81	1.136			
장애여부	비장애	476	2.11	1.224	-0.360 (0.720)	-	-
	장애	62	2.19	1.745			
가구유형	1인가구	299	1.88	1.195	-4.881 (0.000)	-	-
	동거가구	239	2.42	1.348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2.46	1.624	3.114 (0.002)	-	-
	비이용자	397	2.00	1.130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3.03	1.663	2.250 (0.026)	-	-
	비이용자	110	2.30	1.583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3.15	1.919	4.244 (0.000)	-	-
	비이용자	82	1.96	1.149			

<표26> 집단별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활동 수 비교

다. 여가 활동을 주로 같이하는 사람

- 1) '여가 활동을 주로 같이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혼자' 232명(4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웃, 친구, 동호회'가 163명(30.3%), '가족, 친척'이 138명(25.7%)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5명(0.9%)이 응답하였으며 반려동물, 프로그램 이용자, 종교인, 여가 활동 없음 등이 언급됨.

단위: 명/%

구분	n	%
계	538	100
혼자	232	43.1
가족, 친척	138	25.7
이웃, 친구, 동호회	163	30.3
기타	5	0.9

<표27> 여가 활동을 주로 같이하는 사람

- 2) '혼자' 여가 활동하는 비중이 높은 집단은 '청년층', '노년층', '수급', '장애', '1인 가구', '사회 미참여', '돌봄서비스 이용', '마을관리소 미이용', '정기 프로그램 미이용'으로 조사됨. '노년층', '수급', '장애', '1인 가구', '사회참여', '돌봄서비스 이용', '복지관 이용' 집단은 가족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이웃, 친구, 동호회'는 '노년층', '사회참여', '복지관 이용자', '마을관리소 이용자', 정기PG 이용자'가 높게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라면, '수급', '장애', '1인가구', '돌봄이용' 집단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만들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임.

단위:명/%

구분	계	평소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혼자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호회	기타
계	538	232 43.1	138 25.7	163 30.3	5 0.9
성별	남성	128 55 43.0	39 30.5	33 25.8	1 0.8
	여성	410 177 43.2	99 24.1	130 31.7	4 1.0
연령대	청년층	178 84 47.2	61 34.3	33 18.5	0 0.0
	중장년층	149 44 29.5	62 41.6	40 26.8	3 2.0
	노년층	211 104 49.3	15 7.1	90 42.7	2 0.9
수급여부	비수급	373 132 35.4	130 34.9	110 29.5	1 0.3
	수급	165 100 60.6	8 4.8	53 32.1	4 2.4
장애여부	비장애	476 193 40.5	135 28.4	146 30.7	2 0.4
	장애	62 39 62.9	3 4.8	17 27.4	3 4.8
가구유형	1인가구	299 167 55.9	38 12.7	90 30.1	4 1.3
	동거가구	239 65 27.2	100 41.8	73 30.5	1 0.4
사회참여	미참여	482 223 46.3	131 27.2	125 25.9	3 0.6
	참여	56 9 16.1	7 12.5	38 67.9	2 3.6
돌봄현황	미이용	446 173 38.8	134 30.0	136 30.5	3 0.7
	이용	92 59 64.1	4 4.3	27 29.3	2 2.2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61 43.3	13 9.2	64 45.4	3 2.1
	비이용자	397 171 43.1	125 31.5	99 24.9	2 0.5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4 12.9	3 9.7	23 74.2	1 3.2
	비이용자	110 57 51.8	10 9.1	41 37.3	2 1.8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15 25.4	7 11.9	36 61.0	1 1.7
	비이용자	82 46 56.1	6 7.3	28 34.1	2 2.4

<표28> 집단별 여가 활동을 주로 같이하는 사람 비교

※복잡한 표는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칸에 하이라이트

라. 여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 1) '여가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분석한 결과, '시간부족'이 185명(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 부담' 158명(20.5%), '나의 건강 상태' 109명(14.1%), '여가 활동 정보 부족' 76명(9.8%), '프로그램이 없음' 74명(9.6%), '장소가 없음' 49명(6.3%), '함께할 사람이 없음' 40명(5.2%), '다른 가족 돌봄' 17명(2.2%)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64명(8.3%)이 응답하였으며, '어려움 없음'이 가장 많고, 차량 없어서(이동수단), 귀찮아서, 프로그램이 어려워, 자신이 없어서 등이 언급됨.

단위:명/%

구분	n	%	케이스 중 %
계	772	100.0	143.5
비용부담	158	20.5	29.4
시간부족	185	24.0	34.4
장소가 없음	49	6.3	9.1
프로그램이 없음	74	9.6	13.8
여가 활동 정보 부족	76	9.8	14.1
나의 건강 상태	109	14.1	20.3
함께할 사람이 없음	40	5.2	7.4
다른 가족 돌봄	17	2.2	3.2
기타	64	8.3	11.9

<표29> 여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 2) 지역주민이 '여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한 세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먼저, '성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비용부담', '시간부족'을 주된 어려움으로 응답했는데, '남성'은 '여가활동 정보부족'을, '여성'은 '건강상태', '프로그램 없음'을 3순위로 응답함.
- 3) '연령대'에 따르면, '청년층'은 '시간부족' 90명(50.6%), '비용부담' 55명(30.9%)을 주로 응답하고, '중장년층'의 경우 '비용부담' 83명(55.7%), '시간부족' 68명(45.6%)으로 높게 나타남. '노년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84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이 63명(29.9%)으로 이어서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의 대부분은 어려움 없음으로 응답),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시간부족'이 27명(12.8%)으로 높게 나타남.
- 4) '수급여부'에 따르면, '수급을 받지 않는 지역주민'은 '시간부족' 177명(47.5%), '비용부담' 133명(35.7%)으로 높게 나타남. '수급을 받는 지역주민'의 경우 '건강상태'가 74명(4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이 50명(30.3%)으로 이어서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비용부담'이 25명(15.2%)으로 높게 나타남.
- 5) '장애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장애가 없는 지역주민'의 경우 '시간부족' 179명(37.6%), '비용부담' 145명(30.5%)으로 높게 조사됨. '장애가 있는 지역주민'의 경우 '건강상태' 31명(50%), '기타의견'이 14명(22.6%)으로 이어서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비용부담'이 13명(21%)으로 높게 나타남.

- 6) '가구유형'에 따른 '여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지역주민의 경우 '건강상태' 79명(26.4%), '시간부족' 74명(24.7%)으로 높게 나타남. '동거가구'의 경우 '시간부족' 111명(46.4%), '비용부담' 88명(36.8%)으로 높게 나타남.
- 7) '돌봄현황'에 따른 여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경우 '시간부족' 184명(41.3%), '비용부담' 151명(33.9%)으로 높게 나타남.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건강상태' 50명(54.3%), '기타의견'이 23명(25%) 높게 조사됨.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함께할 사람 없음'이 10명(10.9%)으로 높게 나타남.
- 8) '사는동네'에 따르면, '동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시간부족' 165명(33.3%), '비용부담' 141명(28.5%) 높게 조사됨.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도 '시간부족' 20명(46.5%), '비용부담' 17명(39.5%)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요소도 유사하게 나타남.
- 9) '복지관 이용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건강상태' 51명(36.2%) '기타의견' 42명(29.8%)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시간부족'이 21명(14.9%)으로 높게 나타남.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경우 '시간부족'이 164명(41.3%), '비용부담' 144명(36.3%)으로 높게 나타남.
- 10) '마을관리소 이용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을 보면, '마을관리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건강상태'와 '시간부족'이 각 11명(3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정보부족'이 8명(25.8%)으로 이어서 높게 나타남. '마을관리소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경우 '건강상태' 40명(36.4%), '기타의견' 36명(32.7%)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비용부담'과 '시간부족'이 각 10명(9.1%)로 높게 나타남.
- 11) '정기프로그램 이용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을 보면, '정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기타의견' 118명(30.5%), '건강상태' 13명(22%)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시간부족'이 11명(18.6%)으로 높게 나타남. '정기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경우 '건강상태'가 38명(4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이 24명(29.3%)으로 이어서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비용부담' 과 '시간부족'이 각 10명(12.2%)로 높게 나타남.
- 12) 정리하자면, '비용부담'을 더 높게 느끼는 집단은 남성, 중장년층, 청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돌봄 미이용, 읍면지역, 복지관 비이용자로 조사됨. '시간부족'의 경우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돌봄 미이용, 읍면지역, 복지관 비이용자로 나타남. '장소없음'의 경우 '청년층', '비수급', '비장애', '돌봄서비스 미이용', '동지역', '복지관 비이용자' 등으로 나타남.
- 13) '프로그램 없음'을 높게 선택한 집단은 여성,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미이용, 동지역, 복지관 비이용자로 조사되었고, '여가활동 정보부족'에 있어서는,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돌봄서비스 미이용 등으로 나타남.
- 14) '건강상태'의 경우 여성, 노년층, 수급, 장애, 1인가구, 돌봄서비스 이용, 읍면지역, 복지관 이용자로 분석되었고, '함께할 사람 없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 1인가구, 돌봄서비스 이용, 읍면지역 등으로 나타남.

단위:명/%

구분	계	여가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장소 없음	프로그램 없음	여가활동 정보부족	건강 상태	함께할 사람없음	다른 가족돌봄	기타	
계	538	158	185	49	74	76	109	40	17	64	
성별	남성	128	48	51	10	14	19	18	13	5	13
			37.5	39.8	7.8	10.9	14.8	14.1	10.2	3.9	10.2
여성	410	110	134	39	60	57	91	27	12	51	
		26.8	32.7	9.5	14.6	13.9	22.2	6.6	2.9	12.4	
연령	청년층	178	55	90	35	41	32	6	10	2	0
			30.9	50.6	19.7	23.0	18.0	3.4	5.6	1.1	0.0
	중장년층	149	83	68	8	21	27	19	12	11	1
		55.7	45.6	5.4	14.1	18.1	12.8	8.1	7.4	0.7	
노년층	211	20	27	6	12	17	84	18	4	63	
		9.5	12.8	2.8	5.7	8.1	39.8	8.5	1.9	29.9	
수급여부	비수급	373	133	177	47	65	69	35	25	13	14
			35.7	47.5	12.6	17.4	18.5	9.4	6.7	3.5	3.8
수급	165	25	8	2	9	7	74	15	4	50	
		15.2	4.8	1.2	5.5	4.2	44.8	9.1	2.4	30.3	
장애유무	비장애	476	145	179	47	70	73	78	34	13	50
			30.5	37.6	9.9	14.7	15.3	16.4	7.1	2.7	10.5
장애	62	13	6	2	4	3	31	6	4	14	
		21.0	9.7	3.2	6.5	4.8	50.0	9.7	6.5	22.6	
가구인원	1인가구	299	70	74	28	33	34	79	25	4	46
			23.4	24.7	9.4	11.0	11.4	26.4	8.4	1.3	15.4
동거가구	239	88	111	21	41	42	30	15	13	18	
		36.8	46.4	8.8	17.2	17.6	12.6	6.3	5.4	7.5	
매월매월생활	미이용	446	151	184	47	70	71	59	30	17	41
			33.9	41.3	10.5	15.7	15.9	13.2	6.7	3.8	9.2
이용	92	7	1	2	4	5	50	10	0	23	
		7.6	1.1	2.2	4.3	5.4	54.3	10.9	0.0	25.0	
사시노내	동지역	495	141	165	47	70	70	98	35	15	63
			28.5	33.3	9.5	14.1	14.1	19.8	7.1	3.0	12.7
읍면지역	43	17	20	2	4	6	11	5	2	1	
		39.5	46.5	4.7	9.3	14.0	25.6	11.6	4.7	2.3	
복지관여부	이용자	141	14	21	6	12	17	51	10	2	42
			9.9	14.9	4.3	8.5	12.1	36.2	7.1	1.4	29.8
비이용자	397	144	164	43	62	59	58	30	15	22	
		36.3	41.3	10.8	15.6	14.9	14.6	7.6	3.8	5.5	
마을관리소여부	이용자	31	4	11	4	3	8	11	2	0	6
			12.9	35.5	12.9	9.7	25.8	35.5	6.5	0.0	19.4
비이용자	110	10	10	2	9	9	40	8	2	36	
		9.1	9.1	1.8	8.2	8.2	36.4	7.3	1.8	32.7	
정기피복프로그램여부	이용자	59	4	11	4	8	10	13	6	2	18
			6.8	18.6	6.8	13.6	16.9	22.0	10.2	3.4	30.5
비이용자	82	10	10	2	4	7	38	4	0	24	
		12.2	12.2	2.4	4.9	8.5	46.3	4.9	0.0	29.3	

<표30> 집단별 여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마. 직접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의 수

- 1) '직접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의 수'를 살펴보면, '1~4명' 333명 (61.9%), '없음' 107명(19.9%), '5명 이상' 98명(18.2%) 순으로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 '1~4명'을 가장 높게 응답함. 집단 유형에 따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장애여부, 복지관 이용여부,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등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을 확인함.
- 2) '연령대'와 '도움 주고 받는 사람의 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38.321$,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중장년층'은 115명 (77.2%)이 '1~4명'을 주로 응답하였고, 다른 연령대도 유사하지만, '청년층' 39명(21.9%)과 '노년층' 51명 (24.2%)은 '없음'을 선택한 비중이 '중장년층'보다 높음.
- 3) '수급여부' 교차분석 결과, $\chi^2=13.500$, $p=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비수급'보다 '수급' 집단에서 '없음'을 선택한 비중이 더 높음. '가구유형' 교차분석 결과, $\chi^2=19.872$,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1인가구'가 '동거가구'보다 '없음'을 선택한 비중이 더 높음. '사회참여' 교차분석 결과, $\chi^2 =7.802$, $p=0.02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회 미참여' 집단이 상대적으로 '없음' 비중이 높음. '사는동네' 교차분석 결과, $\chi^2=10.041$, $p=0.007$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지역'에 사는 응답자가 '없음' 선택 비중이 더 높음.

단위:명/%

구분	계	직접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의 수			$\chi^2(p)$
		없음	1~4명	5명 이상	
계	538	107 19.9	333 61.9	98 18.2	-
성별	남성	128 19.5	79 61.7	24 18.8	0.038 (0.981)
	여성	410 20.0	254 62.0	74 18.0	
연령대	청년층	178 21.9	86 48.3	53 29.8	38.321 (0.000)
	중장년층	149 11.4	115 77.2	17 11.4	
	노년층	211 24.2	132 62.6	28 13.3	
수급여부	비수급	373 16.6	231 61.9	80 21.4	13.500 (0.001)
	수급	165 27.3	102 61.8	18 10.9	
장애여부	비장애	476 19.3	291 61.1	93 19.5	5.004 (0.082)
	장애	62 24.2	42 67.7	5 8.1	
가구유형	1인가구	299 26.1	179 59.9	42 14.0	19.872 (0.000)
	동거가구	239 12.1	154 64.4	56 23.4	
사회참여	미참여	482 21.4	296 61.4	83 17.2	7.802 (0.020)
	참여	56 7.1	37 66.1	15 26.8	
사는동네	동지역	495 20.8	309 62.4	83 16.8	10.041 (0.007)
	읍면지역	43 9.3	24 55.8	15 34.9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24.8	83 58.9	23 16.3	3.003 (0.223)
	비이용자	397 18.1	250 63.0	75 18.9	
정기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20.3	34 57.6	13 22.0	2.884 (0.236)
	비이용자	82 28.0	49 59.8	10 12.2	

<표31> 집단별 직접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의 수

바. 평소 이웃 관계 태도 유형

- 1) ‘평소 이웃 관계 태도 유형’ 분석 결과, ‘알고 지내며 종종 왕래함’ 236명(35.3%),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려움’ 103명(15.4%),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음’ 9명(14.8%), ‘이웃을 사귀고 싶지만 방법을 모름’ 78명 (11.7%), ‘비슷한 관심사를 함께함’ 70명(10.5%), ‘이웃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55명(8.2%), ‘동네 일을 함께 해결함’ 17명(2.5%), ‘기타’ 10명(1.5%) 순으로 조사됨.

단위:명/%

구분		n	%	케이스 중 %
계		668	100.0	124.2
1	이웃을 사귀고 싶지만 방법을 모름	78	11.7	14.5
2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려움	103	15.4	19.1
3	알고 지내며 종종 왕래함	236	35.3	43.9
4	비슷한 관심사를 함께 함	70	10.5	13.0
5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음	99	14.8	18.4
6	동네 일을 함께 해결함	17	2.5	3.2
7	이웃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55	8.2	10.2
8	기타	10	1.5	1.9

<표32>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유형

- 2)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종종 왕래함’ 50명(39.1%), ‘방법을 모름’ 24명(18.8%)를 높게 응답하고, ‘여성’은 ‘종종 왕래함’ 186명(45.4%), ‘도움을 주고 받음’ 85명(20.7%)으로 나타남.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청년층’은 ‘종종 왕래함’ 65명(36.5%), ‘만나기 어려움’ 49명(27.5%)을, ‘중장년층’은 ‘종종 왕래함’ 41명(27.5%), ‘방법을 모름’ 36명(24.2%)을, 노년층은 ‘종종 왕래함’ 130명(61.6%), ‘도움을 주고 받음’ 44명(20.9%)으로 높게 응답함.
- 3) ‘수급여부’에 따르면, ‘비수급’은 ‘종종 왕래함’ 144명(38.6%), ‘만나기 어려움’ 86명(23.1%)이 높게 응답하고, ‘수급’은 ‘종종 왕래함’ 92명(55.8%), ‘도움을 주고 받음’ 29명(17.6%)으로 높게 조사됨. ‘장애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비장애’는 ‘종종 왕래함’ 203명(42.6%), ‘만나기 어려움’ 95명(20.0%)이 높게 응답하고, ‘장애’는 ‘종종 왕래함’ 33명(53.2%), ‘필요한지 모름’ 11명(17.7%)으로 나타남.
- 4) ‘가구유형’에 따라 보면, ‘1인 가구’와 ‘동거가구’ 모두 1·2·3순위는 같으나, 4순위부터는 ‘1인 가구’의 경우 ‘필요한지 모름’ 35명(11.7%)로 나타났고, ‘동거가구’는 ‘방법을 모름’ 45명(18.8%)으로 조사됨. ‘주거 유형’에 따르면, ‘아파트’ 집단은 ‘종종 왕래함’ 173명(43.0%), ‘만나기 어려움’ 79명(19.7%)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아파트 외’ 집단은 ‘종종 왕래함’ 63명(46.3%), ‘도움을 주고 받음’ 32명(23.5%)으로 높게 나타남.
- 5) ‘사는 지역’을 보면, ‘동지역’은 ‘종종 왕래함’ 215명(43.4%), ‘만나기 어려움’ 99명(20.0%)으로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은 ‘종종 왕래함’ 21명(48.8%), ‘도움을 주고 받음’ 11명(25.6%)으로 높게 나타남. ‘사회 참여’에 따르면, ‘미참여’는 ‘종종 왕래함’ 214명(44.4%), ‘만나기 어려움’ 97명(20.1%)로 높게 나타났고, ‘참여’는 ‘도움을 주고 받음’ 26명(46.4%), ‘종종 왕래함’ 22명(39.3%)이 높게 나타남.
- 6) ‘복지관 이용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이용자’는 ‘종종 왕래함’ 88명(62.4%), ‘도움을 주고 받음’ 33명(23.4%)을 높게 응답하고, ‘비이용자’는 ‘종종 왕래함’ 148명(37.3%), ‘만나기 어려움’ 94명(23.7%)을 높게 응답함. 복지관 이용자 중에서 특히, ‘마을관리소 이용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비중이 높다고 응답했고, ‘정기 프로그램’에서는 ‘관심사를 함께 함’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7) 정리하자면, '방법을 모름'을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한 집단은 남성,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아파트, 동지역, 사회 미참여, 복지관 비이용자이고, '만나기 어려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아파트, 동지역, 사회 미참여, 복지관 비이용자로 나타남. '종종 왕래함'의 경우 여성, 노년층, 수급, 장애, 1인가구, 아파트 외, 읍면지역, 사회미참여, 복지관 이용자 집단이고, '관심사를 함께함'의 경우 여성, 청년층, 비수급, 비장애, 1인가구, 아파트 외, 읍면지역, 참여, 복지관 이용자로 나타남. '도움을 주고 받음'은 여성, 중장년층, 노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아파트 외, 읍면지역, 사회참여, 복지관 이용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참여, 복지관 이용자 집단 등이 특히 다른 집단보다 비중이 높음. '동네일을 함께 해결함'은 여성, 중장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아파트 외, 읍면지역, 사회참여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사회참여 집단에서 비중이 더 높음. '필요한지 모르겠음'은 남성, 중장년층, 수급, 장애, 1인가구, 아파트, 동지역, 미참여, 복지관 이용자 집단에서 더 높게 응답함. 특히, 남성, 중장년층 집단의 비중이 높음.

단위:명/%

구분	계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1 방법모름	2 만남어려움	3 종종왕래	4 관심사함께	5 도움주고받음	6 함께해결	7 필요모름	8 기타	
계	538	78	103	236	70	99	17	55	10	
성별	남성	128	24	22	50	15	14	3	23	1
	여성	410	54	81	186	55	85	14	32	9
연령대	청년층	178	29	49	65	25	25	6	13	0
	중장년층	149	36	32	41	18	30	9	23	5
	노년층	211	13	22	130	27	44	2	19	5
수급여부	비수급	373	64	86	144	57	70	17	36	4
	수급	165	14	17	92	13	29	0	19	6
장애여부	비장애	476	70	95	203	63	92	17	44	9
	장애	62	8	8	33	7	7	0	11	1
가구유형	1인가구	299	33	49	143	42	47	3	35	4
	동거가구	239	45	54	93	28	52	14	20	6
주거현황	아파트	402	63	79	173	49	67	10	42	8
	아파트 외	136	15	24	63	21	32	7	13	2
사는지역	동지역	495	74	99	215	62	88	15	52	8
	읍면지역	43	4	4	21	8	11	2	3	2
사회참여	미참여	482	75	97	214	58	73	6	53	8
	참여	56	3	6	22	12	26	11	2	2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10	9	88	19	33	5	16	1
	비이용자	397	68	94	148	51	66	12	39	9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1	1	19	4	15	5	2	0
	비이용자	110	9	8	69	15	18	0	14	1
정기PG 이용여부	이용자	59	2	4	46	15	13	0	2	1
	비이용자	82	8	5	42	4	20	5	14	0
			9.8	6.1	51.2	4.9	24.4	6.1	17.1	0.0

<표33> 집단별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유형

- 8) 한편, '이웃관계 만족도'에 따른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이웃관계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려움', '이웃을 사귀고 싶지만 방법을 모름', '이웃이 필요한지 모르겠음'으로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9) 반면, '이웃관계에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에 답변한 사람들은 '알고 지내며 종종 왕래함',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음', '비슷한 관심사를 함께함' 순으로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웃 관계 만족도와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간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확인할 수 없지만, 경향 차이는 비교할 수 있었음.

단위:명/%

구분	계	평소 이웃관계에 대한 태도							
		1 방법모름	2 만남어려움	3 종종왕래	4 관심사함께	5 도움주고받음	6 함께해결	7 필요모름	8 기타
계	538	78	103	236	70	99	17	55	10
이웃관계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 20.0	7 35.0	8 40.0	0 0.0	0 0.0	0 0.0	4 20.0	0 0.0
	만족하지 않는다	93 26.9	30 32.3	21 22.6	4 4.3	7 7.5	1 1.1	25 26.9	3 3.2
	만족한다	282 11.3	48 17.0	126 44.7	43 15.2	62 22.0	9 3.2	25 8.9	5 1.8
	매우 만족한다	143 11.9	18 12.6	81 56.6	23 16.1	30 21.0	7 4.9	1 0.7	2 1.4

<표34> 이웃관계 만족도에 따른 평소 이웃관계에 대한 태도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06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및 복지 프로그램 참여 욕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 모임

- 1) 응답자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 모임 유형’을 살펴보면 ‘취미 모임’ 238명(34.7%)으로 가장 높게 조사됨.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23.2%)’,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13.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명/%

구분	n	%	케이스 중 %
계	686	100	127.5
취미 모임	238	34.7	44.2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159	23.2	29.6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90	13.1	16.7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59	8.6	11.0
그 외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46	6.7	8.6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88	12.8	16.4
기타	6	0.9	1.1

<표35>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 모임

- 2) ‘성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모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취미모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을 주로 응답했는데 3순위 응답을 보면 ‘남성’은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26명(20.3%)을, ‘여성’은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80명(19.5%)을 응답함.
- 3) ‘연령대’에 따라 보면, ‘청년층’의 주된 응답은 ‘취미모임’ 64명(36.0%),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60명(33.7%)이고, ‘중장년층’도 ‘취미모임’ 79명(53.0%),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61명(40.9%)으로 비슷하게 응답한 반면, ‘노년층’은 ‘취미모임’ 95명(45.0%),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54명(25.6%)으로 응답함.
- 4) ‘수급여부’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1순위인 ‘취미 모임’ 외 2순위부터 보면, ‘비수급’ 집단의 주된 응답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130명(34.9%),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60명(16.1%) 순으로 조사됨. ‘수급’ 집단은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45명(27.3%),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30명(18.2%)으로 나타남.
- 5)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집단은 ‘취미모임’ 198명(49.3%),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109명(27.1%)을 주로 응답하고, ‘아파트 외’ 집단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50명(36.8%), ‘취미모임’ 40명(29.4%) 순으로 응답함. 3순위부터 살펴보면, ‘아파트’ 집단이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6) ‘장애여부’에 따르면, 1순위인 ‘취미모임’ 외에서 보면, ‘비장애’ 집단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147명(30.9%),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79명(16.6%) 순으로 조사되었고, ‘장애’ 집단에서는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14명(22.6%),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12명(19.4%) 순으로 나타남.

- 7)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1·2순위 응답인 ‘취미모임’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을 제외하면, ‘1인 가구’에서는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63명(21.1%),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53명(17.7%) 순으로 조사되었고, ‘동거가구’는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37명(15.5%),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36명(15.1%) 순으로 나타남.
- 8) ‘사는 동네’에 따라 보면, 두 집단 모두 1·2순위 응답인 ‘취미모임’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을 제외하면, ‘동지역’ 집단은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87명(17.6%),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81명(16.4%) 순으로 조사되었고, ‘읍면지역’ 집단은 (집단 내 같은 2순위이긴해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8명(18.6%),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7명(16.4%) 순으로 나타남.
- 9) ‘돌봄 여부’에 따라 보면, ‘미이용’ 집단은 ‘취미 모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을 주로 선택하고, ‘이용’ 집단에서는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다른 전체 집단보다도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10) 정리하자면, ‘취미모임’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집단은 여성, 중장년층, 노년층, 비수급, 아파트, 비장애, 동거가구,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으로 드러남.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의 경우 ‘여성’,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아파트 외’, ‘비장애’, ‘동거가구’, ‘동지역’,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으로 조사됨.
- 11)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은 여성, 청년층, 수급, 아파트 외, 장애, 1인가구, 동지역, 돌봄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의 경우 남성,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아파트 외, 장애, 동거가구, 읍면지역,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12) ‘그 외(기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의 경우 남성,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아파트 외, 장애, 동거가구, 읍면지역,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응답하였고,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의 경우 남성, 노년층, 수급, 아파트, 비장애,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남.

단위: 명/%

구분	계	성별		연령대			수급여부		주거유형		장애여부		가구유형		사는동네		돌봄여부		
		남성	여성	청년	중·장년	노년	비수급	수급	APT	APT외	비장애	장애	1인	동거	동	읍면	미이용	이용	
계	538	128	410	178	149	211	373	165	402	136	476	62	299	239	495	43	446	9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 모임	취미모임	238	51	187	64	79	95	168	70	198	40	213	25	128	110	219	19	208	30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모임	159	34	125	60	61	38	130	29	109	50	147	12	85	74	151	8	146	13
	마을 장터, 잔치를 만드는 모임	90	10	80	35	22	33	60	30	65	25	76	14	53	37	87	3	74	16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59	20	39	24	20	15	50	9	41	18	52	7	23	36	51	8	53	6
	그 외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46	13	33	19	14	13	41	5	28	18	38	8	19	27	40	6	46	0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88	26	62	18	16	54	43	45	68	20	79	9	63	25	81	7	52	36
	기타	6	2	4	0	5	1	3	3	3	3	3	3	2	4	5	1	5	1
		1.6	1.0	0.0	3.4	0.5	0.8	1.8	0.7	2.2	0.6	4.8	0.7	1.7	1.0	2.3	1.1	1.1	

<표36> 집단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 모임

나. 선호하는 복지 프로그램 유형

- 1) '선호하는 복지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운동, 건강관리' 197명(19.8%)로 가장 높게 조사됨. 다음으로 '노래 부르기' 116명(11.7%), '그림 그리기' 77명(7.7%), '여행, 나들이' 67명(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스마트폰 배우기' 21명(2.1%), '사진, 영상 촬영법' 35명(3.5%)으로 선호 비율이 낮게 조사됨.

단위: 명/%

구분	n	%	케이스 중 %
계	995	100.0	184.9
1 운동, 건강관리	197	19.8	36.6
2 노래 부르기	116	11.7	21.6
3 악기 배우기	68	6.8	12.6
4 만들기	66	6.6	12.3
5 그림 그리기	77	7.7	14.3
6 한글 배우기	47	4.7	8.7
7 외국어 배우기	66	6.6	12.3
8 글쓰기	26	2.6	4.8
9 요리 배우기	51	5.1	9.5
10 스마트폰 배우기	21	2.1	3.9
11 사진, 영상 촬영법	35	3.5	6.5
12 영화, 공연 관람	58	5.8	10.8
13 여행, 나들이	67	6.7	12.5
14 마을 잔치	20	2.0	3.7
15 사회참여, 문제 해결	34	3.4	6.3
16 기타	46	4.6	8.6

<표37> 선호하는 복지 프로그램 유형

- 2)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운동, 건강관리(33.6%)'가 크게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여성'은 '운동, 건강관리(37.6%)'와 '노래 부르기(25.9%)' 순으로 조사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운동, 건강관리'로 나타남. 한편, '청년층'은 '악기 배우기(18.0%)'가 2순위로 높게 나왔으며, '중장년층'은 '여행, 나들이(24.2%)', '노년층'은 '노래 부르기(31.3%)'가 2순위로 조사됨. '수급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급' 집단은 '노래 부르기(35.2%)', '운동, 건강관리(29.7%)', '비수급' 집단은 '운동, 건강관리(39.7%)', '악기 배우기(16.9%)' 순으로 높게 조사됨. '장애 여부'별로 살펴보면, '장애' 집단은 '노래 부르기(37.1%)', '운동, 건강관리(35.5%)'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비장애' 집단은 '운동, 건강관리(36.8%)', '노래 배우기(19.5%)' 순으로 높게 나옴.
- 3) '주거유형'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 집단과 '비거주' 집단 모두 '운동, 건강관리'가 1순위로 조사되었으나, '아파트 비거주' 집단은 '만들기(18.4%)'가 2순위로 조사됨. '아파트' 집단은 '노래 부르기(23.1%)'임. '복지관 이용 여부'로 살펴보면, '이용 집단'과 '비이용 집단' 모두 '운동, 건강관리', '노래 부르기' 순으로 높게 조사됨. '마을관리소 이용 여부'로 살펴보면, 이용하는 집단에서 '운동, 건강관리(67.7%)'가 매우 높은 비율로 조사됨. '정기 프로그램 이용 여부'로 살펴보면, '이용' 집단은 '운동, 건강관리(52.5%)', '외국어 배우기(35.6%)'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비이용' 집단은 '기타(31.7%)'가 가장 높게 조사됨. 사는 동네로 살펴보면, 동에 거주하는 집단은 '운동, 건강관리(37.0%)', '노래 부르기(32.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 거주 집단은 '운동, 건강관리(32.6%)', '그림 그리기(25.6%)' 순으로 높게 조사됨.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 이용' 집단은 '노래 부르기(41.3%)'가 1순위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비이용' 집단은 '운동, 건강관리(39.0%)'가 1순위로 조사됨. 사회 참여 여부별로 살펴보면, 참여 집단은 '운동, 건강관리(62.5%)'에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단위: 명/%

구분	계	선호하는 복지프로그램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	538	197	116	68	66	77	47	66	26	51	21	35	58	67	20	34	46	
성별	남성	128	43	10	12	10	12	9	14	5	15	7	14	18	18	4	8	14
			33.6	7.8	9.4	7.8	9.4	7.0	10.9	3.9	11.7	5.5	10.9	14.1	14.1	3.1	6.3	10.9
성별	여성	410	154	106	56	56	65	38	52	21	36	14	21	40	49	16	26	32
			37.6	25.9	13.7	13.7	15.9	9.3	12.7	5.1	8.8	3.4	5.1	9.8	12.0	3.9	6.3	7.8
연령대	청년	178	48	23	32	28	30	13	20	10	15	6	15	19	15	3	2	0
			27.0	12.9	18.0	15.7	16.9	7.3	11.2	5.6	8.4	3.4	8.4	10.7	8.4	1.7	1.1	0.0
	중장년	149	77	27	21	20	19	8	22	7	22	2	16	27	36	4	23	2
			51.7	18.1	14.1	13.4	12.8	5.4	14.8	4.7	14.8	1.3	10.7	18.1	24.2	2.7	15.4	1.3
연령대	노년	211	72	66	15	18	28	26	24	9	14	13	4	12	16	13	9	44
			34.1	31.3	7.1	8.5	13.3	12.3	11.4	4.3	6.6	6.2	1.9	5.7	7.6	6.2	4.3	20.9
수급 여부	비수급	373	148	58	63	61	60	33	63	23	44	17	32	45	52	13	30	1
			39.7	15.5	16.9	16.4	16.1	8.8	16.9	6.2	11.8	4.6	8.6	12.1	13.9	3.5	8.0	0.3
수급 여부	수급	165	49	58	5	5	17	14	3	3	7	4	3	13	15	7	4	45
			29.7	35.2	3.0	3.0	10.3	8.5	1.8	1.8	4.2	2.4	1.8	7.9	9.1	4.2	2.4	27.3
장애 여부	비장애	476	175	93	66	64	72	42	64	25	46	19	33	51	55	16	31	33
			36.8	19.5	13.9	13.4	15.1	8.8	13.4	5.3	9.7	4.0	6.9	10.7	11.6	3.4	6.5	6.9
장애 여부	장애	62	22	23	2	2	5	5	2	1	5	2	2	7	12	4	3	13
			35.5	37.1	3.2	3.2	8.1	8.1	3.2	1.6	8.1	3.2	3.2	11.3	19.4	6.5	4.8	21.0
가구 유형	1인	299	100	68	35	30	43	26	21	9	23	11	14	28	24	8	9	39
			33.4	22.7	11.7	10.0	14.4	8.7	7.0	3.0	7.7	3.7	4.7	9.4	8.0	2.7	3.0	13.0
가구 유형	동거	239	97	48	33	36	34	21	45	17	28	10	21	30	43	12	25	7
			40.6	20.1	13.8	15.1	14.2	8.8	18.8	7.1	11.7	4.2	8.8	12.6	18.0	5.0	10.5	2.9
주거 유형	APT	402	149	93	50	41	53	29	55	20	34	17	30	39	45	10	20	42
			37.1	23.1	12.4	10.2	13.2	7.2	13.7	5.0	8.5	4.2	7.5	9.7	11.2	2.5	5.0	10.4
주거 유형	APT외	136	48	23	18	25	24	18	11	6	17	4	5	19	22	10	14	4
			35.3	16.9	13.2	18.4	17.6	13.2	8.1	4.4	12.5	2.9	3.7	14.0	16.2	7.4	10.3	2.9
복지관 이용자	이용	141	55	42	9	11	18	20	22	7	13	10	4	5	12	8	14	28
			39.0	29.8	6.4	7.8	12.8	14.2	15.6	5.0	9.2	7.1	2.8	3.5	8.5	5.7	9.9	19.9
복지관 이용자	비이용	397	142	74	59	55	59	27	44	19	38	11	31	53	55	12	20	18
			35.8	18.6	14.9	13.9	14.9	6.8	11.1	4.8	9.6	2.8	7.8	13.4	13.9	3.0	5.0	4.5
마을 관리소 이용자	이용	31	21	5	1	7	4	6	4	2	5	2	2	2	3	4	8	1
			67.7	16.1	3.2	22.6	12.9	19.4	12.9	6.5	16.1	6.5	6.5	6.5	9.7	12.9	25.8	3.2
마을 관리소 이용자	비이용	110	34	37	8	4	14	14	18	5	8	8	2	3	9	4	6	27
			30.9	33.6	7.3	3.6	12.7	12.7	16.4	4.5	7.3	7.3	1.8	2.7	8.2	3.6	5.5	24.5
정기 프로그램 이용자	이용	59	31	19	7	8	13	18	21	6	9	8	2	4	11	6	6	2
			52.5	32.2	11.9	13.6	22.0	30.5	35.6	10.2	15.3	13.6	3.4	6.8	18.6	10.2	10.2	3.4
정기 프로그램 이용자	비이용	82	24	23	2	3	5	2	1	1	4	2	2	1	1	2	8	26
			29.3	28.0	2.4	3.7	6.1	2.4	1.2	1.2	4.9	2.4	2.4	1.2	1.2	2.4	9.8	31.7
사는 동네	동	495	183	111	65	55	65	41	62	24	45	20	30	49	60	15	30	44
			37.0	22.4	13.1	11.1	13.1	8.3	12.5	4.8	9.1	4.0	6.1	9.9	12.1	3.0	6.1	8.9
사는 동네	읍면	43	14	5	3	11	12	6	4	2	6	1	5	9	7	5	4	2
			32.6	11.6	7.0	25.6	27.9	14.0	9.3	4.7	14.0	2.3	11.6	20.9	16.3	11.6	9.3	4.7
돌봄 현황	비이용	446	174	78	66	63	63	38	64	24	46	20	35	53	60	15	31	19
			39.0	17.5	14.8	14.1	14.1	8.5	14.3	5.4	10.3	4.5	7.8	11.9	13.5	3.4	7.0	4.3
돌봄 현황	이용	92	23	38	2	3	14	9	2	2	5	1	0	5	7	5	3	27
			25.0	41.3	2.2	3.3	15.2	9.8	2.2	2.2	5.4	1.1	0.0	5.4	7.6	5.4	3.3	29.3
사회 참여	미참여	482	162	108	63	61	68	46	59	24	46	18	30	49	52	19	18	41
			33.6	22.4	13.1	12.7	14.1	9.5	12.2	5.0	9.5	3.7	6.2	10.2	10.8	3.9	3.7	8.5
사회 참여	참여	56	35	8	5	5	9	1	7	2	5	3	5	9	15	1	16	5
			62.5	14.3	8.9	8.9	16.1	1.8	12.5	3.6	8.9	5.4	8.9	16.1	26.8	1.8	28.6	8.9

<표38> 집단별 선호하는 복지 프로그램 유형

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

1)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참여’ 240명(44.6%), ‘고민’ 187명(34.8%), ‘미참여’ 111명(20.6%) 순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n	%
계	538	100.0
미참여	111	20.6
고민	187	34.8
참여	240	44.6

<표39>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

- 2) 집단별로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복지관 이용 여부’,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정기프로그램 이용여부’, ‘장수식당 이용여부’, ‘성별’,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가구유형’, ‘사회참여’, ‘돌봄유형’ 집단에서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3) ‘복지관 이용 여부’의 경우, 복지관 ‘비이용자’는 ‘고민’ 175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관 ‘이용자’ 집단에서는 ‘참여’ 97명(68.8%)으로 가장 높았음. ‘마을관리소 이용여부’에서는 ‘이용자’는 ‘참여’ 27명(87.1%)으로 가장 많았고, ‘비이용자’도 ‘참여’ 비중이 가장 높으나, ‘미참여’ 32명(29.1%) 비중도 높음.
- 4)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에서 ‘이용자’는 ‘참여’ 54명(91.5%)으로 가장 많고, ‘비이용자’도 동일하게 ‘참여’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미참여’ 32명(39.0%) 비중도 높음. ‘장수식당’도 같은 양상이지만, ‘이용자’ 집단에서 ‘미참여’ 비중이 더 높음.
- 5)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고민’ 51명(39.8%)이 응답하며 가장 비중이 높고, ‘여성’은 ‘참여’ 195명(47.6%)이 가장 많이 응답함. ‘남성’의 ‘미참여’ 비중도 상대적으로 더 큼.
- 6) ‘연령대’에 따라 보면, ‘청년층’은 ‘고민’ 95명(53.4%), ‘중장년층’도 ‘고민’ 74명(49.7%), ‘노년층’ ‘참여’ 133명(6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노년층’은 ‘미참여’ 비중도 세 집단 중 가장 높았음.
- 7) ‘수급여부’에 따르면, ‘비수급’은 ‘고민’ 164명(44.0%), ‘수급’은 ‘참여’ 85명(5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수급’은 ‘미참여’ 비중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8) ‘장애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참여’ 비중이 가장 높으나, ‘비장애’ 집단은 ‘고민’ 175명(36.8%)으로 더 높게 나타남.
- 9) ‘사회참여’에 따르면, ‘미참여’ 집단에서는 ‘미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사회참여’ 집단이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더 높음. ‘돌봄유형’을 살펴보면, ‘돌봄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미참여’ 35명(38.0%)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참여’ 의향도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보다 높음. ‘돌봄서비스 미이용’ 집단은 ‘고민’ 176명(39.5%)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명/%

구분	계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			x ² (p)	
		미참여	고민	참여		
계	538	111	187	240	-	
복지관 이용여부	이용자	141	32 22.7	12 8.5	97 68.8	63.321 (0.000)
	비이용자	397	79 19.9	175 44.1	143 36.0	
마을관리소 이용여부	이용자	31	0 0.0	4 12.9	27 87.1	11.854 (0.003)
	비이용자	110	32 29.1	8 7.3	70 63.6	
정기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자	59	0 0.0	5 8.5	54 91.5	30.644 (0.000)
	비이용자	82	32 39.0	7 8.5	43 52.4	
장수식당 이용여부	이용자	72	32 44.4	4 5.6	36 50.0	38.772 (0.000)
	비이용자	67	0 0.0	8 11.9	59 88.1	
성별	남성	128	32 25.0	51 39.8	45 35.2	6.168 (0.046)
	여성	410	79 19.3	136 33.2	195 47.6	
연령대	청년층	178	28 15.7	95 53.4	55 30.9	105.979 (0.000)
	중·장년층	149	23 15.4	74 49.7	52 34.9	
	노년층	211	60 28.4	18 8.5	133 63.0	
수급여부	비수급	373	54 14.5	164 44.0	155 41.6	54.551 (0.000)
	수급	165	57 34.5	23 13.9	85 51.5	
장애여부	비장애	476	95 20.0	175 36.8	206 43.3	7.337 (0.026)
	장애	62	16 25.8	12 19.4	34 54.8	
가구유형	1인가구	299	80 26.8	81 27.1	138 46.2	23.980 (0.000)
	동거가구	239	31 13.0	106 44.4	102 42.7	
사회참여	미참여	482	109 22.6	165 34.2	208 43.2	11.388 (0.003)
	참여	56	2 3.6	22 39.3	32 57.1	
돌봄유형	미이용	446	76 17.0	176 39.5	194 43.5	33.630 (0.001)
	이용	92	35 38.0	11 12.0	46 50.0	

<표40> 집단별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희망

- 10)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따른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복지관 프로그램 '비참여' 집단은 '알고 지내며 종종 왕래함' 36명(32.4%)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이웃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24명(21.6%)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1) 참여에 대하여 '고민'을 선택한 집단도 '이웃이 필요한지 모르겠음(10.2%)' 비중이 '참여' 집단보다 높으나, 특히 '이웃을 사귀고 싶지만 방법을 모름' 35명(18.7%),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려움' 42명(22.5%)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음', '비슷한 관심사를 함께함' 비중은 '참여' 집단보다 높았는데, '고민'을 선택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이웃 관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태도일 수도 있겠음. '참여' 의향이 있는 집단은 '알고 지내며 종종 왕래함' 133명(5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음'이 46명(29.2%)으로 2순위로 높았음. 통계적 유의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복지관 참여 의향과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간에 경향은 파악할 수 있겠음.

단위: 명/%

구분	계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이웃을 사귀고 싶지만 방법을 모름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려움	알고 지내며 종종 왕래함	비슷한 관심사를 함께함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음	동네일을 함께 해결함	이웃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기타	
계	538	78	103	236	70	99	17	55	10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	비참여	111	18	16	36	5	20	2	24	2
			16.2	14.4	32.4	4.5	18.0	1.8	21.6	1.8
	고민	187	35	42	67	32	33	6	19	4
			18.7	22.5	35.8	17.1	17.6	3.2	10.2	2.1
	참여	240	25	45	133	33	46	9	12	4
			10.4	18.8	55.4	13.8	19.2	3.8	5.0	1.7

<표41>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따른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 12)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고민 또는 비참여하는 이유'로는 '거리가 멀어서' 74명(24.8%), '기타' 67명(22.5%), '학교, 직장 때문에' 64명(21.5%), '복지관을 잘 모름' 59명(19.8%), '이미 다른 곳을 이용 중임' 17명(5.7%), '복지관에 대한 인식 때문에' 17명(5.7%) 순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n	%
계	298	100.0
이미 다른 곳을 이용 중임	17	5.7
복지관을 잘 모름	59	19.8
거리가 멀어서	74	24.8
학교, 직장 때문에	64	21.5
복지관에 대한 인식 때문에	17	5.7
기타	67	22.5

<표42>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민하는 이유

07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 응답자 중 이용자 현황

- 1) 전체 응답자 538명 중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응답자(=이용자)는 141명(26.2%)로 나타남. 이 중 '마을관리소' 31명(22.0%), '정기 프로그램' 59명(41.8%), '장수식당' 72명(51.1%)으로 조사됨(중복 이용 집계).

단위: 명/%

구분		n	%
계		538	100
복지관 이용여부	비이용자	397	73.8
	이용자	141	26.2
	마을관리소	31	22.0
	정기 프로그램	59	41.8
	장수식당	72	51.1

<표43> 전체 응답자 중 이용자 현황

- 2) 응답자 중 복지관 이용 현황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음. '여성', '노년층', '수급', '비장애', '1인 가구' 등 비중이 높음. 다만, 실제 프로그램 및 복지관 이용 실태와 동일하지 않아, 사업 기획 및 인공 시 주의가 필요함(내부 분기별 이용 실인원 데이터 활용 권장).

구분	계	성별		연령대			수급여부		장애여부		가구유형		사회참여		주거유형		사는지역		돌봄현황	
		남성	여성	청년	중장년	노년	비수급	수급	비장애	장애	1인	동거	미참	참여	APT	APT외	동	읍면	미이용	이용
응답자 중 복지관 이용 현황	141	22	119	0	16	125	56	85	108	33	92	49	121	20	117	24	140	1	94	47
		15.6	84.4	0.0	11.4	88.7	39.7	60.3	76.6	23.4	65.3	34.8	85.8	14.2	83.0	17.0	99.3	0.7	66.7	33.3

<표44> 응답자 집단별 복지관 이용 현황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08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교육문화

가. 교육문화 이용 현황

1)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유형을 ‘학습 프로그램’, ‘취미·문화 프로그램’ 총 2가지로 분류 하였음. 응답 인원 중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은 30명(38.0%), ‘취미·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은 49명(62.0%)인 것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n(59명)	%	케이스 중 %
계		79	100	133.9
학습 프로그램	한글 1반	11	13.9	18.6
	한글 2반	4	5.1	6.8
	영어 1반	5	6.3	8.5
	영어 2반	10	12.7	16.9
취미·문화 프로그램	노래교실	7	8.9	11.9
	미술교실	7	8.9	11.9
	다향다색	7	8.9	11.9
	에코브릿지	9	11.4	15.3
	화사한인생	6	7.6	10.2
	한국화	3	3.8	5.1
	우리동네 뜨개방	4	5.1	6.8
	난타	6	7.6	10.2
학습 프로그램		30	38.0	50.8
취미·문화 프로그램		49	62.0	83.1

<표45> 응답자 중 교육문화 이용 현황

2)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인원 59명 중 1개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인원은 43명(72.9%)이며, 2개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6명(27.1%)임. 이 중, 프로그램 2개를 이용하는 인원이 가장 큰 비율 (81.3%)을 차지함.

단위: 명/%

구분	n	%
계	59	100
1개 이용	43	72.9
2개 이상 이용	16	27.1
2개	13	81.3
3개	2	12.5
4개	1	6.3

<표46> 1인당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 수

나. 프로그램 선택 시 중요한 요소

- 1) 프로그램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지(41.4%)’가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흥미로운지(15.5%)’,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13.8%)’ 순으로 높게 조사됨. 반면, ‘강사의 전문성(1.7%)’과 ‘스트레스 해소(3.4%)’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단위: 명/%

구분	n	%
계	58	100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8	13.8
강사의 전문성	1	1.7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지	24	41.4
프로그램 흥미로운지	9	15.5
아는 사람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6	10.3
스트레스,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2	3.4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4	6.9
예전에 하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지속 참여 희망)	3	5.2
기타	1	1.7

<표47> 프로그램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다.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 1) 교육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전체 분석 결과, 최대 5점 중 4.39점으로 조사됨. 작년 대비(평균 4.64점) 소폭 하락되었는데, 세부 평가 항목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려움. 따라서, 2025년 만족도 조사 진행 시 변화 수준을 올해 측정치와 비교할 예정임. 한편, 프로그램 영역별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최대 5점 중 4.31점, 취미·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4.43점으로 조사됨.
- 2) 전체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시 진행되어도 참여하고 싶다(평균 4.55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평균 4.47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평균 4.4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문항은 평균 4.2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3) ‘학습’ 영역을 살펴보면, ‘다시 진행되어도 참여하고 싶다(평균 4.43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평균 4.37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평균 4.23점)’, ‘프로그램 내용을 따라가기(이해하기) 쉬웠다(평균 4.27점)’는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개인별 수준 차이와 성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4) ‘취미·문화’ 영역을 살펴보면 ‘다시 진행되어도 참여하고 싶다(평균 4.62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평균 4.4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나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다(평균 4.30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평균 4.32점)’는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점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명/%

구분(전체)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n	mean	sd
1	프로그램 내용을 따라가기(이해하기) 쉬웠다		2 2.6	10 13.0	25 32.5	40 51.9	77	4.34	0.805
2	나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다			15 19.5	21 27.3	41 53.2	77	4.34	0.788
3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14 18.2	27 35.1	36 46.8	77	4.29	0.758
4	이전보다 나의 생활이 좋아졌다		1 1.3	11 14.3	29 37.7	36 46.8	77	4.30	0.762
5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0 13.0	26 33.8	41 53.2	77	4.40	0.712
6	다시 진행되어도 참여하고 싶다			5 6.5	25 32.5	47 61.0	77	4.55	0.619
7	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	1 1.3		8 10.4	21 27.3	47 61.0	77	4.47	0.788
계							77	4.39	-

<표48> 전체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학습영역)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n	mean	sd
1	프로그램 내용을 따라가기(이해하기) 쉬웠다		1 3.3	6 20.0	7 23.3	16 53.3	30	4.27	0.907
2	나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다			5 16.7	8 26.7	17 56.7	30	4.40	0.770
3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6 20.0	11 36.7	13 43.3	30	4.23	0.774
4	이전보다 나의 생활이 좋아졌다		1 3.3	3 10.0	13 43.3	13 43.3	30	4.27	0.785
5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 16.7	9 30.0	16 53.3	30	4.37	0.765
6	다시 진행되어도 참여하고 싶다			4 13.3	9 30.0	17 56.7	30	4.43	0.728
7	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	1 3.3		6 20.0	7 23.3	16 53.3	30	4.23	1.006
계							30	4.31	-

<표49> 학습영역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취미·문화)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n	mean	sd
1 프로그램 내용을 따라가기(이해하기) 쉬웠다		1 2.1	4 8.5	18 38.3	24 51.1	47	4.38	0.739
2 나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다			10 21.3	13 27.7	24 51.1	47	4.30	0.805
3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8 17.0	16 34.0	23 48.9	47	4.32	0.755
4 이전보다 나의 생활이 좋아졌다			8 17.0	16 34.0	23 48.9	47	4.32	0.755
5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 10.6	17 36.2	25 53.2	47	4.43	0.683
6 다시 진행되어도 참여하고 싶다			1 2.1	16 34.0	30 63.8	47	4.62	0.534
7 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			2 4.3	14 29.8	31 66.0	47	4.62	0.573
계						47	4.43	-

<표50> 취미·문화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5) 마지막으로,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보면, ‘한글 2반’, ‘영어 2반’, ‘노래교실’, ‘난타’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평균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차후 사업 구상 시 각 세부 사업별 보완 요구됨. (세부 사업별 내부 결과보고서에서 성찰 필요)

단위: 명/%

구분	n	mean	sd
계	77	4.39	-
한글 1반	11	4.38	0.674
한글 2반	4	3.89	0.244
영어 1반	5	4.89	0.256
영어 2반	10	4.13	0.623
노래교실	6	4.26	0.574
미술교실	7	4.39	0.347
다향다색	7	4.57	0.508
에코브릿지	9	4.41	0.502
화사한 인생	6	4.52	0.524
한국화	3	4.76	0.297
우리동네 뜨개방	4	4.50	1.000
난타	5	4.23	0.458

<표51> 세부 프로그램별 이용 만족도

라.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한다면 참여 여부

- 1) 추후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 인원 69명 중 61명이며 고민 및 미참여로 응답한 인원은 8명으로 나타남.
- 2) 고민 및 미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시간 부족’, ‘난이도, 내용이 어려워서’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n(55명 응답)	%	케이스 중 %
계		69	100.0	125.5
한글 1반	참여	8	11.6	14.5
	비참여	1	1.4	1.8
	고민	1	1.4	1.8
한글 2반	참여	3	4.3	5.5
	비참여	1	1.4	1.8
	고민	-	-	-
영어 1반	참여	4	5.8	7.3
	비참여	-	-	-
	고민	-	-	-
영어 2반	참여	8	11.6	14.5
	비참여	-	-	-
	고민	2	2.9	3.6
노래교실	참여	4	5.8	7.3
	비참여	1	1.4	1.8
	고민	-	-	-
미술교실	참여	5	7.2	9.1
	비참여	1	1.4	1.8
	고민	1	1.4	1.8
다향다색	참여	7	10.1	12.7
	비참여	-	-	-
	고민	-	-	-
에코브릿지	참여	7	10.1	12.7
	비참여	-	-	-
	고민	-	-	-
화사한인생	참여	3	4.3	5.5
	비참여	-	-	-
	고민	-	-	-
한국화 먹그림	참여	3	4.3	5.5
	비참여	-	-	-
	고민	-	-	-
우리동네 뜨개방	참여	4	5.8	7.3
	비참여	-	-	-
	고민	-	-	-
난타	참여	5	7.2	9.1
	비참여	-	-	-
	고민	-	-	-

<표52>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 시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n	%
계	5	100.0
시간부족	1	20.0
난이도, 내용이 어려워서	4	80.0

<표53> 동아리 전환 시 미참여 사유

09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강남동 마을관리소

가. 마을관리소 이용 만족도

- 1) 마을관리소 이용 만족도 분석 결과, 평균 4.51점으로 나타남. 2023년, 4.65점 대비 소폭 하락함(▼3.1%).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관리소의 직원과 활동가는 친절하다’는 ‘매우 그렇다’ 20명(64.5%), ‘그렇다’ 11명(35.5%)으로 나타남. ‘마을관리소의 직원과 활동가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안내하였다’의 경우, ‘매우 그렇다’ 19명(61.3%), ‘그렇다’ 9명(29%), ‘보통이다’ 3명(9.7%) 순으로 조사됨.
- 2) ‘마을관리소에는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는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각 13명(4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명(9.7%), ‘그렇지 않다’ 1명(3.2%), ‘매우 그렇지 않다’ 1명(3.2%) 순으로 조사됨. ‘마을관리소의 역할과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매우 만족한다’ 20명(64.5%), ‘만족한다’ 9명(29.0%), ‘보통이다’ 2명(6.5%) 순으로 나타남.
- 3) ‘마을관리소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매우 그렇다’ 15명(48.4%), ‘그렇다’ 13명(41.9%), ‘보통이다’ 2명(6.5%), ‘그렇지 않다’ 1명(3.2%) 순으로 나타남. ‘마을관리소 재방문 또는 지역주민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의 경우 ‘매우 그렇다’ 24명(77.4%), ‘그렇다’ 7명(22.6%)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n	mean	sd
1 마을관리소의 직원과 활동가는 친절하다				11 35.5	20 64.5	31	4.65	0.486
2 마을관리소의 직원과 활동가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안내하였다			3 9.7	9 29.0	19 61.3	31	4.52	0.677
3 마을관리소에는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1 3.2	1 3.2	3 9.7	13 41.9	13 41.9	31	4.16	0.969
4 마을관리소의 역할과 서비스에 만족한다			2 6.5	9 29.0	20 64.5	31	4.58	0.620
5 마을관리소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졌다		1 3.2	2 6.5	13 41.9	15 48.4	31	4.35	0.755
6 마을관리소 재방문 또는 지역주민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7 22.6	24 77.4	31	4.77	0.425
계						31	4.51	-

<표54> 강남동 마을관리소 이용 만족도

나. 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 1) 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분석 결과, 평균 3.39점(4점 만점, 100점 환산 시 84.8점)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사는 게 즐겁다’는 ‘그렇다’ 19명(61.3%), ‘매우 그렇다’ 12명(38.7%)으로 나타남. ‘마을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각각 15명(4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다’는 답변이 1명(3.2%)으로 나타남. ‘마을에 갈 곳이 생겼다’는 ‘매우 그렇다’ 16명(51.6%), ‘그렇다’ 15명(48.4%)으로 나타남. ‘이웃과 서로 신뢰하게 되었다’의 경우 ‘매우 그렇다’ 15명(48.4%), ‘그렇다’ 14명(45.2%), ‘아니다’ 2명(6.5%)으로 나타남.
- 2) ‘새로 알게 된 이웃이 있다’는 ‘매우 그렇다’ 15명(48.4%), ‘그렇다’ 14명(45.2%), ‘아니다’ 1명(3.2%), ‘매우 아니다’는 답변이 1명(3.2%)으로 나타남. ‘이웃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각각 15명(4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다’는 답변이 1명(3.2%)으로 나타남. ‘마을에서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그렇다’ 16명(51.6%), ‘매우 그렇다’ 9명(29%), ‘아니다’ 5명(16.1%), ‘매우 아니다’ 1명(3.2%)으로 나타남. ‘마을이 더 활기차졌다’의 경우 ‘그렇다’ 16명(51.6%), ‘매우 그렇다’ 11명(35.5%), ‘아니다’ 3명(9.7%), ‘매우 아니다’ 1명(3.2%) 순으로 조사됨.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매우 그렇다’ 20명(64.5%), ‘그렇다’ 10명(32.3%), ‘아니다’ 1명(3.2%)으로 분석됨.

단위: 명/%

구분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n	mean	sd
1 마을에서 사는게 즐겁다			19 61.3	12 38.7	31	3.39	0.495
2 마을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		1 3.2	15 48.4	15 48.4	31	3.45	0.568
3 마을에 갈 곳이 생겼다			15 48.4	16 51.6	31	3.52	0.508
4 이웃과 서로 신뢰하게 되었다		2 6.5	14 45.2	15 48.4	31	3.42	0.620
5 새로 알게 된 이웃이 있다	1 3.2	1 3.2	14 45.2	15 48.4	31	3.39	0.715
6 이웃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1 3.2	15 48.4	15 48.4	31	3.45	0.568
7 마을에서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1 3.2	5 16.1	16 51.6	9 29.0	31	3.06	0.772
8 마을이 더 활기차졌다	1 3.2	3 9.7	16 51.6	11 35.5	31	3.19	0.749
9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3.2	10 32.3	20 64.5	31	3.61	0.558
계					31	3.39	-

<표55> 강남동 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측정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10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장수식당

가. 장수식당 만족도

장수식당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28점으로 나타남. 각 만족도 점수별 결과로는 ‘5점’ 52명(58.3%), ‘4점’ 14명(19.4%), ‘3점’ 11명(15.3%), ‘2점’ 4명(5.6%), ‘1점’ 1명(1.4%)으로 나타남. 작년 평균 4.57점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이고(▼6.4%), 같은 해 실시한 한끼드림 만족도 조사 평균 4.64점보다 낮음. 연간 운영 중 조리사 부재 등 내부 운영 사정으로 인한 운영 형태의 잦은 변화가 만족도가 낮아진 데 큰 요인으로 분석됨.

단위: 명/%

구분	1	2	3	4	5	n	mean	sd
계	1 1.4	4 5.6	11 15.3	14 19.4	42 58.3	72	4.28	1.010

<표56> 장수식당 이용 만족도

나. 집에서 식사 시 주된 유형

‘집에서 식사 시 주된 유형’으로는 ‘직접 만들어 먹는다’ 72명(8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편식으로 먹는다’ 4명(5.6%), ‘편의점 음식이나 빵을 사 먹는다’ 1명(1.4%), ‘식당에서 사 먹는다’ 1명(1.4%), ‘식사를 거른다’ 1명(1.4%)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6명(8.3%)이 응답하였으며 모든 응답이 ‘요양보호사가 조리해준다’라고 언급함.

단위: 명/%

구분	n	%
계	72	100
직접 만들어 먹는다	59	81.9
간편식으로 먹는다	4	5.6
편의점 음식이나 빵을 사 먹는다	1	1.4
식당에서 사 먹는다	1	1.4
식사를 거른다	1	1.4
기타	6	8.3

<표57> 집에서 식사 시 주된 유형

다. 식사를 거르는 이유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거른 적 없음’이 39명(5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욕(밥맛)이 없어서’ 23명(31.9%), ‘혼자 먹기 싫어서’ 2명(2.8%), ‘장보기가 번거로워서’ 2명(2.8%)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6명(8.3%)이 응답하였으며 ‘병원 방문으로’(2명), ‘소화가 어려움’(1명), ‘치아 통증’(1명), ‘귀찮아서’(1명), ‘늦잠을 자서’(1명)와 같은 의견이 나타남.

단위: 명/%

구분	n	%
계	72	100
식욕(밥맛)이 없어서	23	31.9
혼자 먹기 싫어서	2	2.8
장보기가 번거로워서	2	2.8
거른 적 없음	39	54.2
기타	6	8.3

<표58> 식사를 거르는 이유

라. 식당 비상 운영 시 선호하는 대체 운영 방식

‘장수식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 선호하는 대체 운영 방식’으로는 ‘일주일 분량의 식재료 제공’을 48명(66.7%)이 선택하여 ‘외부에서 완성된 음식을 가져와 식당 대체 운영’ 24명(33.3%)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비상 운영으로 인한, 이용 형태의 변화 시 평소 먹지 않던 외부 음식보다는 본인의 방식으로 먹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됨.

단위: 명/%

구분	n	%
계	72	100
일주일 분량의 식재료 제공	48	66.7
외부에서 완성된 음식을 가져와 식당 대체 운영	24	33.3

<표59> 식당 비상 운영 시 선호하는 대체 운영 방식

11 결론 및 향후계획

가. 지역주민의 일상으로 들어가기: 신체·정신건강, 이웃 관계, 여가, 소속감 등 과제에 초점

- 1) 일상생활 만족도 결과를 전제로 복지관 활동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건강, 이웃 관계, 여가생활, 지역사회 소속, 소득 및 경제, 신체건강 관련 영역에 초점을 맞추되,
- 2) 세부 여건에서 집단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보다 높은 영역이 주민 욕구가 적다고 볼 수는 없음. 결국, 프로그램 개발과 성과 목표를 관리할 때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당사자 발굴과 연계가 중요함.
 - (1) 이웃 관계: 남성, 중장년, 수급, 장애 집단, 관계 빈곤 집단 등에 초점
 - (2) 여가생활: 중장년층, 노년층, 수급, 장애 집단 등에 초점
 - (3) 신체건강: 수급, 장애, 중장년층, 노년층 집단 등에 초점(신체 건강 지원, 신체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는 환경 조성)
 - (4) 정신건강: 중장년층, 노년층, 수급, 장애인, 1인 가구, 복지관 이용 집단 등에 초점
 - (5) 재난안전: 여성, 중장년층, 노년층, 수급, 장애인, 읍면지역, 관계 빈곤 집단 등에 초점(개인과 마을의 재난 대응력, 회복력)
 - (6) 식생활: 중장년층, 수급, 장애 집단 등 초점 및 식생활을 구실로 다른 무엇을 이루는 단계로 이행하기(공동체 식사 등)
 - (7) 주거환경: 남성, 중장년층, 아파트 외 거주자, 읍면지역 집단 등에 초점(주문마루 등에서 시행 및 협약 단체와 협업 검토)
 - (8) 소득 및 경제: 중장년층, 노년층, 수급, 아파트 외, 장애, 읍면지역 집단 등에 초점
 - (9) 지역사회 소속감: 중장년층, 노년층, 수급, 장애, 복지관 이용자 중 마을관리소 비이용 집단(장수식당 등), 관계 빈곤 집단 초점

나. 정신건강 증진과 외롭지 않은 사회를 위해 노력: 교류하고 연대하는 문화 만들기

- 1) 행복 비중보다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좋은 것을 더 좋게(적극적 복지) 만드는 것만큼,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문제를 완화(소극적 복지)하는 복지 실천도 여전히 중요해 보임.
- 2) 한편, 행복, 우울, 스트레스, 외로움 영역에서 대체로 여가 활동 및 타인과의 교류가 큰 집단이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프로그램(실천)의 효과인지, 원래 그러한 집단이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각 개별사업에서 당사자의 변화를 성과로 측정하고, 표적 집단을 발굴 및 선정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실천)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음.
※수급 가구, 장애인, 중장년, 노년층, 1인 가구, 적은 여가생활, 관계 빈곤 집단에 초점(관계-정서-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실천)
- 3) 사회복지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도 당사자의 주변 환경이 건강한 여가문화, 이웃 교류, 공동체와 연대하는 환경으로 변한다면,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민 조직화,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도 정신건강·외로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4)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가 및 외부 교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 조사에서 여가 활동에 대하여 응답한 현황을 보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인지, 외로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인지 각 응답자의 내면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웃, 가족과 같은 지지자의 인정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5) 따라서, 주민이 어울려 살도록 도우려면, 각 집단이 원하는 요소, 피하거나 선호도가 낮은 여가 유형 요소를 제외하여 주민 조직화 등 복지 실천을 구성해야 함. 만약, 교류가 중심이 되는 여가 활동이 아니면, 다른 여가 유형을 사회복지사가 제안하고, 함께 하자고 촉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은 여가 증진과 공동체 강화에 도움이 됨). 혹은 장애인, 노년층 등 건강 등으로 인해 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집단도 분명히 있으므로, 보통의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충분히 여가를 즐기고, 교류하도록 실천 과정에서 배려가 필요함(수급 등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음).

- (1) 여가 수에 따라 이웃 관계, 정신건강 평균에 차이가 있는데,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여가에 수동적이고, 참여를 어려워하는 것일 수 있음.
- (2) 청년층과 노년층의 혼자 여가 비중이 높는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세대 통합 활동(멘토링)도 제안할 수 있겠음.
- (3) 복지관 이용 집단의 여가생활 중 특이한 점은 가족과 함께하는 비중이 비이용 집단에 비해 크게 낮음. 설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현재 복지관 이용 집단에 대해서는 가족기능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병행되면 좋겠음.
- (4) 여가 활동의 어려움 중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데, 최근 3년간 교육문화 강의 시간의 기본 단위(1시간에서 1시간 30분, 2시간)와 회기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한 당사자가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강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도 당사자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건강 여건, 운영 시간의 유연성)도 요구됨.
- (5)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복지관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대관, 이용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음(커뮤니티허브).
- (6) 비용 부담이 없도록 더 넓은 계층(전통적 복지 계층이 아닌 집단이 더 비용 부담 체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현재 진행하는 홍보 방식이 다소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이므로, 전체 지역주민에게 정보가 빠지지 않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매체를 늘려야 함. 이 과정은 지역주민과 복지관의 접점 부위를 늘리는 작업으로, 후원 개발 및 자원봉사 개발 실천 활동과의 연계도 중요해 보임.
- (7) 여가 활동을 함께할 사람이 없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남성,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이용, 읍면지역 등으로 나타나, 이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체 강화 노력이 필요함. 반면,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거나 적은 집단의 경우 청년층, 노년층, 수급, 1인 가구, 사회활동 미참여, 동 지역으로 나타나, 주민 조직화 때 집단 여건에 맞춰 접근하면 좋겠음(동아리, 중장년 사회 관계망 강화, 노년층 건강 모니터링 활동 등).

6) 한편, 이웃 관계에 대한 각 집단의 태도에서 대체로 종종 왕래하며 살고 있다고 했으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웃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임. 상대적으로, 이웃 관계에 대한 용의가 있으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은 남성, 청년층, 중장년층, 비수급, 비장애, 동거가구, 아파트, 동 지역, 사회활동 미참여, 복지관 비이용 집단으로 보이고, 용의가 없는 집단은 장애, 1인 가구로 보임. 1인 가구는 여러 면에서 관계 문제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뒤에서 언급될 모임 불필요 비중도 큼). 물론, 1인 가구가 모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이 조사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1인 가구가 지역에서 공생하고, 연결되게 돕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보임.

- (1) 이웃이 필요하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외 남성, 중장년층의 비중도 높음.
- (2) 이웃 관계 태도 유형에 따라 접근하되, 상대적으로 관계 형성 용의가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동기부여(지역에서 수시로 만나기 등)가 필요해 보임. 다만, 읍면 지역의 경우 만나고 싶어도 지역 소멸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3)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거나, 어렵거나,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은 이웃 관계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음.
- (4) 연결되게 돕는 장치는 ‘만나는 구실’이며, 잔치, 봉사, 마을 만들기, 환경 실천, 취미 등으로 볼 수 있음.

7) 연결되게 돕는 장치는 곧 ‘만나는 구실’이며, 취미 공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기, 마을 잔치, 환경 실천 등이 될 수 있겠음. 대체로 취미 기반(흥미)의 모임을 선호하나, 나중에는 조직력을 위해 목표 설정 등으로 소속감이 강화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프로젝트성 실천이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돕기, 환경 실천, 마을 잔치 등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에 수월해 보임. 특히, 잔치는 지역의 사회적, 인적, 물적 자원을 연대하기 좋은 수단이라 판단됨(기관 주도 큰 행사 외).

- (1) 수급, 돌봄서비스 이용 집단은 모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큰데, 임파워먼트가 필요해 보임.
- (2) 분소(미디어폰 5단지)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이 요구되지만, 아파트 거주 집단에서는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통장, 입주민대표 등과 사전 주민 만나기 단계가 꼭 필요하겠음.
- (3) 읍면 지역은 표본이 많지는 않으나, 자연환경과 더 가까워, 환경 실천에 대한 동참 비중이 큼.
- (4) 후원 전략 수립할 때, 집단별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결국, 후원도 지역 복지 해결을 위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임.

다.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 개선

- 1) 주민 집단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다른 와중에 운동 및 건강관리는 대체로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정기 프로그램 이용 집단도 운동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우리 복지관의 교육문화 영역에서는 이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2) 과거 운동 및 건강관리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나, 수월하게 진행하지 못한 실천 경험이 있어서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프로그램 참여 여건에 맞게 개선 개발할 필요가 있음. 동적인 운동에 대한 욕구인지, 요가 등 정적인 활동인지 추가 파악도 요구됨. 혹은 단순히 신체 건강(의료지원, 물리치료, 재활)에 대한 관심이 운동 및 건강관리로 치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음(특히, 노년층은 신체건강 만족도가 크게 낮는데, 운동 및 건강관리 욕구가 큼).
- 3) 한편, 앞서 검토한 이웃 관계, 정신건강, 외로움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드러난 프로그램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특정 목표(정신건강, 관계 등)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어야 함.
 - (1) 예를 들어, 만들기, 그림 그리기 수요가 높으면 그대로 그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지역의 이머징 또는 전통적 복지 이슈, 문제 의식, 관련 집단 등 배경을 이해하고,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활용
 - (2) 한편, 기존 복지관 이용자들은 계속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고민 비중이 적지 않음. 앞으로도 계속 욕구 기반의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이유임. 특히, 장수식당 이용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 부정,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음.
 - (3) 남성은 대체로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에도 회의적인 모습인데, 이웃 관계 등 공동체에 대한 태도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을 복지관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음(중장년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
 - (4)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경향이 확인됨. 이를 통해 보면, 결국 복지관이 주민 관계를 더 주선하고, 역할을 확장하려면 복지관 주로 만났던 주민이나 전통적 취약계층을 넘어 마을 전체를 '자주' 만나야 함.
 - (5) 특히, 복지관 참여에 대해 고민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이웃 관계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공동체의 지속성, 안전감 등이 이 집단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6) 노년층은 건강 상태, 낙인 등으로 인해 참여-비참여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보임. 건강, 낙인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 외부 홍보(노출) 시 대상화하지 않는 홍보(노출)가 중요하겠음(장애, 수급도 같은 이치).
- 4) 복지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접근성도 계속 개선해야 함. 과거부터 계속 지적된 접근성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남. 접근성 문제는 복지관 더더욱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복지관의 위치가 주는 심리적 요인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 조사의 응답자들도 복지관의 서비스가 주로 진행, 전달되는 지역에 사는 응답자
- 5) 다른 주민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용무를 보러 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화와 더불어 각종 낙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다양한 주민, 사회계층이 소셜 믹스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음. 이 또한 결국 주민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돕는 '구실'이 중요하겠음. 실천 과정에서는 앞서 여가의 어려움을 함께 검토해야 함.
- 6) 더불어, 분소, 주문마루, 마을관리소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개소하고 활용하는 와중에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주민이 많음. 특히, 분소는 아파트 단지 내 있으므로, 미디어촌 5단지에서 홍보를 더 확대하고, 단지 입주민들이 바라보는 분소 이미지도 파악하면 좋겠음.

- 7) 지금부터는 이 조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의 결론임. 앞으로도 복지관은 복지 실천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계속해서 평가하여 주민의 요구와 지역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음.
- 8) **교육문화1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참여 유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소 적용 필요**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흥미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 여부', '아는 사람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주민이 지식 습득, 자기계발 또는 새로운 기술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단순히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도 기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계 형성의 기회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작년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매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함). 특히,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 커리큘럼을 설계하거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안에서 개인의 목표 달성, 이해 수준, 담당자와의 상호 작용 등에서 약간의 특이사항이 확인되는데, 교육문화 사업이 충분히 성과 목표가 잘 설정되었는지, 그에 따라 집단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2025년 신규 사업 전에는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은지도 성찰하면 좋겠음.
- 9) **교육문화2 교육문화의 자조 모임(동아리) 전환을 위해 프로그램 내에서도 자율성 부여하기**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 인원 간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주선하려면, 결국 정해진 커리큘럼과 배움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이 자율성을 가진 채 모여 활동하는 자조모임이 필요해 보임.
- 10) **마을관리소 지역주민이 경험하는 마을 안 커뮤니티 거점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마을 생활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강남동 마을관리소 사업은 2024년으로 종료되지만,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을에 갈 곳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 공간을 신규 사업인 '우리동네 그린러너'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설 대관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마을관리소는 앞의 다양한 집단별 분석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마을관리소 이용 집단과 비이용 집단의 평균 차이 또는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분석된 영역은 다음과 같음. 특히, 제시된 모든 영역에서 마을관리소 이용 집단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문제의 완화보다는 강점, 역량 중심의 적극적 복지가 주를 이룸. (일주일간 행복감, 이웃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여가 활동 수, 프로그램 참여 의향 등)
 마을관리소의 당초 목적이었던 삶의 질 향상 목표를 부분 또는 전반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임.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거, 완화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지역의 자원, 강점을 기반으로 한 실천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음.
 (모임 활동·마을 활동으로 당사자를 찾고, 돌보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복지 사업이나 잔치하며 서로 즐기고, 프로그램을 구실로 사랑방에서 만나 이야기 나누며 느슨하게 연대하고, 모든 계층과 세대의 어울림을 지향하며 청년기획단이 함께하면서 이웃의 정을 나누려 했던 사례)

12 기타 응답 모음

구분	내용	
외로움 극복을 위한 여가 활동 유형	먹기, 빨래, 폭식, 라인 댄스, 정당 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라디오, 원예, 교육 활동, 퍼즐, 노래, 센터 프로그램참여, 프로그램 참여, 인터넷, 색칠, 노래감상, 음악감상, 잠자기, 집안일, 전화하며 떠들기, 뜨개질	
여가 활동을 주로 같이하는 사람	종교인, 반려동물, 교회, 프로그램 참여인원, 하지 않음, 본인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을 전혀 못함	
여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해당없음, 여가를 하지 않음, 티비가 안 나옴, 차량이 없어서, 이동 불편, 귀찮아서, 프로그램이 어려워져서, 자신이 없어서	
평소 이웃 관계에 대한 태도	엘베에서 만나면 인사만 할 정도, 골목이나 대문 밖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아파트라 그런지 별 교류가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현재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음, 이사한 지 얼마 안되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음, 알고만 있음, 과거엔 왕래했지만 현재는 주위 이웃이 없어 못 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 모임	강압적이지 않으며 과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모르겠어요, 몸이 힘들어서 모임 욕구가 없음,	
선호하는 복지 프로그램 유형	댄스, 없음, 쉬기, 봉사활동, 먹거리 나눔 활동, 원예, 관심없음, 퍼즐, 없음, 다 좋다, 관심 없음, 필요없다고 생각, 꽃꽂이, 필요없다고 생각, 없음, 축구시청, 한지, 원예, 바둑, 발 가꾸기, 꽃꽂이, 장기, 낚시, 서예, 한문	
복지관 프로그램에 고민 또는 미참여 이유	직장 문제로 교대 근무자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으므로 참여율이 확실하지 않아 참가하기 꺼려짐,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대는 참여하지 못해서, 체력 이유, 바쁨, 글을 모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힘이 들어서, 부분 참여, 의지가 없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바빠서, 신체 장애, 하루가 바빠서, 건강상 문제, 그때마다 다르다, 혼자서 편한 마음이 있음,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음, 시끄러운 것을 싫어함, 여럿이 있는 게 싫다, 건강, 체력, 몸이 아파서, 흥미가 없음, 기타,건강,신체적 장애로 인해, 프로그램이 노는 목적으로 치우치기 때문, 나이가 많아서, 관심 없으심, 건강문제, 유아가 있음, 없음, 건강, 몸이 아파서, 관심이 없음, 신체 불편, 건강, 자신감 결여, 귀찮다, 새로운 시작이 부담, 시간제약, 건강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싫음, 몸이 힘들어서, 없음, 건강	
이용자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	프로그램 시간
	집에서 주된 식사 유형	요양보호사가 와서 해주신다, 요양보호사, 요양사가 해주심, 요양보호사, 복지사가 조리해줌, 요양사분이 조리해줌
	식사를 거르는 이유	병원 갈 때, 병원에 갈 때, 소화가 안됨, 이빨이 아파서, 귀찮아서, 늦잠을 자서
	강남동 마을관리사 기타 의견	본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참여 인원이 제한됨.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음, 활동과 교육으로 기억력 감퇴에 좋은 것 같다, 장소가 협소함, 마을 관리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 이용했으면 한다.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많은 노력이 보인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겠음, 마을에 버스노선이 생겼으면 생활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 없음, 계속해서 이용하겠음
	장수식당 기타 의견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식판을 줬으면 좋겠다
교육문화 기타 의견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여럿이서 얘기하는 게 즐겁다,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래교실 시간이 너무 빨라 참여하기 힘들다, 계속 참여하겠다	

MEMO